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최선영
이원진·권영지·윤태영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영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윤태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이사

연구보고서 2023-43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97-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43>

발|간|사

청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 청년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청년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성인 이행 과정의 변화를 가족의 시각에서 조명한다. 소득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청년세대의 사적 자원에 대한 의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청년 자녀세대와 장년 부모세대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부모의 지원과 이에 대한 청년의 의존을 둘러싼 세대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년들의 일차적인 어려움은 19~34세 청년의 평균 취업률과 개인소득 수준이 모두 낮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청년기 취약성에 대해 가족은 단지 빈곤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보호망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이 경제적 취약성을 무릅쓰고 교육, 훈련, 시험준비 등 각종 자기 투자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후자의 기능이 더욱 확대된다면, 청년기 기간의 연장, 부모세대 부담의 가중, 불평등의 확대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가족의 변화, 세대 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청년과 생애과정 연구를 확장한 시도이며, 이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의 윤태영 박사, 본원의 이원진 부연구위원과 권영지 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본원의 함선유 부연구위원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익명의 검독위원들을 비롯하여 보고서 발간 과정에 애써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면접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과 과제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3절 주요 개념과 연구 내용	23
제2장 성인이행기의 빈곤위험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효과	29
제1절 연구 방법 및 자료	31
제2절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의 관계	36
제3절 청년의 특성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관계	54
제4절 소결	62
제3장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과 부모의 지원	65
제1절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	67
제2절 대학교육과 부모역할의 연장	77
제3절 노동시장 진입 전략과 위험 대응	98
제4절 투자로서 성인이행기 부모 지원	114
제5절 소결	122
제4장 주거독립 과정과 부모의 지원	125
제1절 취업 이후 부모 동거와 지원관계의 변화	127

제2절 주거독립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비지원	136
제3절 부모 지원의 생애주기와 이상적 부모역할의 변화	143
제4절 소결	156
제5장 결론	161
제1절 연구 결과와 함의	163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71
부록	177
[부록 1] 부표	177
[부록 2] 일대일 심층면접 질문 목록	185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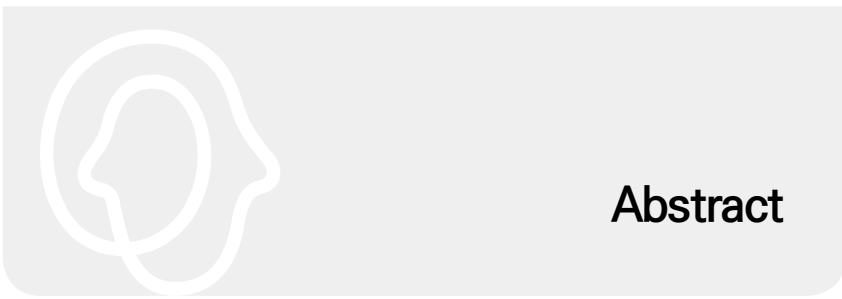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표본 사례 수 및 빈곤율	32
〈표 2-2〉 부모 동거 정의	33
〈표 2-3〉 부모 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정의	33
〈표 2-4〉 소득 정의	35
〈표 3-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69
〈표 3-2〉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1
〈표 3-3〉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3
〈표 3-4〉 개별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76
〈부표 1〉 연령별 청년의 소득 평균	177
〈부표 2〉 연령별 청년의 소득 상대평균	179
〈부표 3〉 연령별 청년의 빈곤율	181
〈부표 4〉 연령별 청년의 빈곤갭 비율	183

그림 목차

[그림 2-1] 청년의 연령별 학업상태	38
[그림 2-2] 청년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39
[그림 2-3] 청년의 연령별 학업·경제활동상태	40
[그림 2-4] 청년의 연령별 가구유형	41
[그림 2-5] 청년의 연령별 부모 동거	42
[그림 2-6] 청년의 연령별 부모 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43
[그림 2-7]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집단의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 ·	45
[그림 2-8] 청년의 연령별 소득 평균과 동거 형태의 효과	49
[그림 2-9] 청년의 연령별 소득 상대평균과 동거 형태의 효과	50
[그림 2-10] 청년의 연령별 빈곤율	51
[그림 2-11] 청년의 연령별 빈곤갭 비율	52
[그림 2-12]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성별 비교	55
[그림 2-13]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연령별 비교	56
[그림 2-14]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종사상지위별 비교	57
[그림 2-15]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학업·경제활동상태별 비교	58
[그림 2-16] 19~34세 청년의 가구유형별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59



Abstract

Responding to risk in transition to adulthood: Parental support and adult children's experiences

Project Head: Choi Sun You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adulthood is becoming prolonged. Despite the fact that today's youth possess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greater human capital compared to past generations,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point at which they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s pushed further back.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se changes in the process of adult attai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ies, focusing especially on how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al period to adulthood are perceived, absorbed, or managed within Korean families.

Analyzing income statistics, this study objectively demonstrates the reliance of youth on parental suppor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both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ir paren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surrounding parental support and youth 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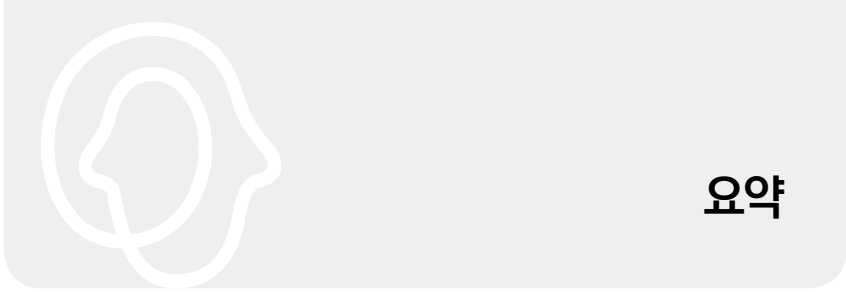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The primary difficulties faced by youth are manifested in the low average employment rate and personal income levels of those aged 19 to 34. Families not only serve as a safety net against the risk of poverty but also cushion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youth, enabling them to invest in education, train-

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ing, exam preparation, and other self-development endeavor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latter aspect is further strengthened, it could exacerbate the extension of the youth period, increase the burden on the parental generation, and widen social inequality.

Despite the high societal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related to i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dd to research on early adulthood and the life course,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more nuanced policies.

Keyword : early adulthood, transition to adulthood, family, parenthood, privatization of risk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가족이 성인이행기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흡수 또는 관리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성인이행기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개인과 가족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이행기에 대한 가족의 실천을 다루었다. 첫째, 대표적인 소득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년 집단(19~34세)의 연령별 소득, 취업 여부와 형태, 가구구성 형태(부모 동거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가구구성 형태에 따른 개인 및 가구단위 빈곤율을 분석하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청년기의 낮은 소득 및 취업률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년과 장년세대 각각을 대상으로 수행한 일대일 심층면접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이 부모-성인자녀의 관계를 통해 다루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이행기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제2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9~2022년 통합)를 활용하여 성인이행기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 실태를 살펴보았다. 19~34세 청년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36.2%이고, 비취업 비율은 49.9%로, 성인이행기 청년의 절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

4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인취업소득 기준 빈곤율이 60.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34세 청년의 73%가 부모와 동거하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동거로 간주), 부모와의 동거와 소득 공유가 청년의 빈곤위험을 48.8%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부모 포함 균등화 가구소득과 부모 제외 균등화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를 통해 계산). 그 결과 청년의 약 90%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고 성인이행기를 경과한다. 반면 전체 청년의 10%를 차지하는 빈곤 청년은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행기 초기의 사적이전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전체의 연령별 패턴을 보면, 20대 후반 이후에는 점차 상용직 취업 비율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동거 비율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부모 동거 비율이 낮은 상용직 취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 19~34세 한국 청년은 그 절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낮은 경제활동 집단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0%의 청년이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득활동을 하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성인이행기에서 사적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개별 청년 자녀세대와 장년 부모세대의 '성인이행기' 경험과 대응 방식에 관해 질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3장에서는 성인이행기를 대학준비-대학교육-구직-취업의 시간적 흐름과 가족의 대응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도화 정도가 강한 중·고교 대학 준비기와 달리, 대학교육 기간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정착하기까지의 초기 성인기는 요구되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 자원의 부담 방식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화된 생애단계이다. 개인과 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능동성을 발휘하지만, 경제적 제약, 부모-자녀 관계의 질, 가용 지식과 정보의 질 등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자산과 노동소득을 자녀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위험 대응 방법이자 지원 형태이다. 부모세대는 이를 의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청년 자녀세대는 그 정도가 약했다. 의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양측 모두에서 의존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에 의존하는 상태가 ‘부모 의존 극복’(성인이행의 과제)의 실패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교육, 훈련, 시험준비 등 자녀의 자기계발과 노동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일 때, 이러한 지원-의존 관계는 가족을 단위로 수행되는 정상적인 투자로 해석되었다. 즉 성인이행기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세대 간 지원과 의존의 지속은 성인이 되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모에 대한 의존 극복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안정된 삶과 사회경제적 성취라는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제4장은 주거자립 과정에 대한 부모의 지원/비지원 경험과 청년 및 장년 세대 각각의 태도를 다루었다. 청년이 점차 재정적 자립 능력을 갖추어감에 따라 부모 집을 떠날 가능성은 커지지만, 일반적인 주거분리 시점이 여전히 ‘결혼’에 맞추어질 경우, 자립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상태에서 부모 동거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기적인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녀가 부모와 계속해서 동거하는 것은 단지 관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립을 위한 준비의 수단으로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가 부모-성인자녀 동거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동거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의 이행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자녀가 부모와 분리된 독립된 주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사적 자원의 한계를 보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은퇴기는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만들며, 가족에 의존하는 방식의 성인이행기 대응은 최종적인 주거독립 국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난 20세기 후반 이래로 가족 내 세대 관계는 점차 세대 간 자립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노인세대의 동거와 부양은 점차 사적인 세대 관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책임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와 비교하여, 성인이행기는 시간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의존의 종류와 강도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이행의 지연과 청년기의 장기화를 전통적인 세대 간 지원과 의존의 의무와 당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거나 의존적인 아동기에 다를 바 없이 의존적이고 순응적이라는 의미에서 ‘아동화’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 졸업에서 시작하여 안정된 직업 확보(그에 따른 가족형성)에 이르는 여정은 제도적 구심점과 안정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화된 생애 단계이다. 형식적으로 대학제도, 직업훈련제도,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서비스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제도들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에 대한 안정된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은 다양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의 생애에서 성인이행기는 이제 필수적인 생애단계로 부상하였다. 성장과 성숙을 통한 자율적인 성인 되기라는 목표가 노동시장 지위 확보에 종속될수록,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방식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능력과 자격을 획득하는 일에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세대 간의 자립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적 가족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도록 만든다.

주요 용어 : 청년, 성인이행, 가족, 부모역할, 위험의 개인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과제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주요 개념과 연구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과제

1. 연구 배경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생애 전반부,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그 결과로 이 시기의 위험은 사사화, 개인화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이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성인이행기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생애단계를 의미하는 ‘성인이행기’는 민법상 성인이 되었지만 생애과정상의 특성에 의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달하지 않은 생애의 한 국면이다.¹⁾ 경제적 자립에 미달하는 생애단계라는 성인이행기의 특성은 아동기나 노년기와 다를 바 없이 이 시기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인이행기의 비자립성은 노동능력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시장의 여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도 크고 ‘의존’의 정당성도 명료하지 못하다.

1) 이 글에서 성인이행기는 생애단계를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청년기(youth),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 등과 호환될 수 있는 용어이다(Furstenberg, Rumbaut, Sittersten, 2004). 성인이행기라는 명명은 초기 성인기를 성인이행이라는 과업에 의해 규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성인이행의 지표(졸업, 취업, 주거독립,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경제적, 사회적 자율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인이행이라는 과업을 이해한다. 아울러, 문맥에 따라 청년기, 초기 성인기, 이행기 청년등 다양한 용어와 번갈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성인이행기는 이처럼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식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과해야 하는 시기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확대가 20대 초반의 의존적인 시기를 연장하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라면, 더 결정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 경쟁의 심화, 인적 자본 수준의 상승, 불안정 일자리의 확대 등이 성인이행기를 일반적 경험으로 만들고 그 길이를 연장하며,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성인이행기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된 시기로, 그 성격이 명료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장학금제도,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정책 등을 통해 성인이행기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인이행기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개인과 사적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복지와 지원은 뚜렷한 한계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개별 가족의 복지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여 부모세대의 복지를 위협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이행의 목적 자체가 부모세대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가족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성인이행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나아가 사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의 강화는 결국 개별 가족의 재정적 역량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성인이행 경로와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 성인기 전체에서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성인이행기로 확장된 가족 부담의 가중은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탈전통화와 개인화 추세 속에서 가족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족형성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부모의 재정적 역량이 자녀

의 생애 이행과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경제적 능력을 부모역할의 수행이라는 도덕적 능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되거나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 간주했던 성인이행기에 대한 가족 대응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지원(parental support)²⁾이라는 연구 관심은 기존의 세대 관계 및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흐름에서 봤을 때 다소 낮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아동·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모의 양육자, 조연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의 증가, 노동시장 진입 연령의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은 청년기(초기 성인기) 자녀의 부모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가족의 대응은 더 이상 단순한 안전망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 취업, 결혼 등에 부과되었던 연령 규범이 완화됨에 따라, 개별 가족은 청년기에 자원을 투입하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은 한편으로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지원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정교화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부모세대)의 시간적, 재정적, 관계적 역량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성인이행기의 위험이 부상하고 있지

2) 우리말에서 '부모 지원'은 부모가 지원의 주체인 경우와 지원의 대상인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 부모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상황과 관계만을 의미하며,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힌다.

만 이미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노년기 이행의 위험도 부모-성인자녀 지원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대 간 가족 연대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동거나 사적이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나 요구라기보다는 오랜 관습과 전통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교육, 취업, 결혼 등 성인이행 과업은 개인의 과업이기 전에 가족의 과업으로 간주되었으며, 가족 및 친족 단위로 일상적/비일상적으로 재정적 자원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 지원은 단지 과거와 비교하여 부모의 부담이 양적으로 증가했거나 감소한 것으로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부상하는 당대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세대 간의 연속된 가치와 규범의 복잡한 얽힘을 반영한 새롭고 복잡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심에서 한국의 성인이행기라는 문제적 시기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대두되는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가족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동거 지원과 사적이전(교육비, 주거비용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부모 지원이 한국 청년들의 성인이행기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성인이행기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국면에서 개인과 가족이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실태를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자와 수여자 각각의 입장에서 부모-성인자녀 간의 지원 관계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의 성인이행 과정과 가족

청년기의 주요 과업은 고등교육, 학교-노동시장 이행, 주거독립(분리), 가족형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청년의 성인이행에 대한 가족의 영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의 차이가 (자녀)청년의 이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한 축에 있고, 비교적 소수이지만 부모의 기여를 전제하는 제도적 배치 자체에 관심을 갖는 비교사회적 이행체제 연구가 다른 한 축에 있다.

교육, 노동시장, 가족 등의 이행 영역에서 가족 배경이 청년의 이행 경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은 광범위한 편이다(박미희, 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이희정, 2019; 이상직, 2022). 그러나 청년의 이행 과정에 대한 가족의 영향은 사회계층(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을 설명하려는 목적에 한정되어 왔다. 진학, 노동시장 이행, 주거독립, 가족형성 등 생애 전반에 이처럼 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 자체를 탐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한국의 성인이행기를 고찰한 연구로는 김수정(2020)과 이상직 외(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성인이행기의 소득/빈곤 및 가구형태 등에서 국가 간에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가 복지레짐 또는 ‘성인이행체제’(regimes of youth transitions)의 산물이라는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김수정(2020)은 생애과정의 이행 과정에 수반된 빈곤위험이 국가(복지레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즉 혼인, 미혼 독립, 자녀양육, 교육, 실업 등이 빈곤위험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빈곤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높은 부모 동거율(주거분리의 지연)이 이에 기여하였다. 즉 단독가구 청년층의 빈곤위험은 20%포인트로 나타나 한국에서도 주거분리는 빈곤위험을 높이지만, 대부분의 청년이 부

모와 동거하는 가구구성의 효과 때문에 청년층의 빈곤위험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결혼을 통한 가구형성이 부모 동거보다 빈곤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 집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빈곤위험을 높이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을 통한 분가가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를 결혼 이행과 계층지위 간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에서 부모 동거와 주거분리, 결혼 등의 개인 생애과정 결정(성인이행 과정)이 생애과정 빈곤위험에 상당히 민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직 외(2022)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인이행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이행 요인, 즉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가족 이행(분가와 결혼)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특성을 군집화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군집으로 묶였다. 구직기간이 길고, 고학력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중이 높으며, 분가 시점과 결혼, 출산 시점이 늦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의 학교-노동시장 연계 형태가 촘촘함과 느슨함(Kerckhoff, 1996) 중에서 느슨함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비교적 늦게 교육, 직업 전망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의 현재 지위 수용 정도가 낮으며,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이러한 조건은 성인이행기를 연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와의 동거, 가족에 대한 의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성인이행기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인이행기에 대한 가족 차원의 대응과 관련된 연구로, 부모 동거와 사적이전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함

게 사는 성인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자원을 주고받고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거와 사적이전(주로 비동거 자녀와 부모의 사적이전)에 초점을 맞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모 동거에서 비동거(주거독립)로 이행하는 계기는 취업보다는 결혼이 우세하다. 먼저, 이순미(2017)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개인의 생애에서 취업, 결혼, 분가의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취업 분가와 결혼 분가를 구분했다. 남녀 모두 취업을 통해 바로 분가하는 경우보다는 결혼을 통해 분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연구는 이어서 결혼과 동거에 따른 이동 경로를 ‘핵가족형’, ‘부모 동거형’, ‘단독 거주형’으로 구분하고, 성별, 학력, 노동이력과 지위의 관계를 분석했다. 결혼을 통해 주거독립을 한 유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특성을 보였다. 이와 달리 부모 동거형과 단독거주형은 내적인 동질성이 약했다. 비혼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단독거주 비율이 낮고 부모 동거형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부모 동거형 비혼여성의 경제적 상태가 핵가족형(유배우 주거독립) 여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영(2022)은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통해, 19~49세 남녀의 주거독립 계기와 비혼의 부모 동거 비율 등을 분석했다. 기혼과 미혼을 모두 합한 표본에서, 결혼은 가장 우세한 주거독립의 계기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는 계속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분리가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의 상태별 부모 동거율의 차이도 나타났다. 여성의 부모 동거율이 높았고, 상용직에 취업한 경우라면 부모 동거율이 낮아졌지만, 미취업이거나 임시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부모 동거율이 높아졌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주거자립은 특정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됨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인자녀와의 동거 경험과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동거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택이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에게 긴장과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박주영, 유소이(2018)는 55~70세를 대상으로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은퇴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75.0%가 은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의 은퇴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김혜은, 정소현, 이강민, 황윤서, 이현정(2021)의 연구에서도 청년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가 청년의 주거독립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청년들은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는 물론 가사노동 등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부모세대의 큰 부담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세대 자신들도 부모와의 동거를 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병진, 김리나(2018)는 중산층 20대 비혼여성들 대상의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의존보다 독립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맥락을 탐구했다. 돈을 버는 능력과 자율적인 주거 공간 마련 등은 단지 부모로부터 자립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부모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이현정(2020)은 청년 10명의 사례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거독립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통학이나 통근 문제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기적인 소득과 직장이 있는 청년들도 금융기관과 정부 지원만으로 주거독립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성이거나 가구 경제에 대한 기여 측면의 이질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요하다. 이봉조(2022)는 취업소득이 있는 부모 동거 청년들이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구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를 통해, 분가-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생애 과업을 따르지 않고서도 가족 내에서 이미 성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청년의 성인이행 조건 중에서 주거독립이 과연 필수적인 요소인가라고 질문한다. 오히려 오늘날의 주택시장 상황과 노동소득의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독립이 이제 더 이상 성인 됨의 필수적 요소일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동거 청년과 부모와의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전보다는 자녀에서 부모로의 이전이 빈도 면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시점과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전은 대학 진학, 결혼 등 중요 생애과정 이행 시점에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자녀에서 부모로의 이전은 월 10만 원 전후의 소액이나 현물을 정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한 성인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생계비를 직접 지원받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거독립 시점(대체로 결혼)과 출산 등 성인자녀에게 중요한 이행사건이 발생할 때 부모의 지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선영, 오신휘, 박종서(2020)는 결혼 주거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비지원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택가격(또는 임차보증금)이 높을수록 부모 지원의 규모와 비중은 높았다. 결혼연령도 관련이 있었는데,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것과 결혼연령이 높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지원은 적정 연령에 결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기능을 하며, 그러한 사적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부부의 노동소득과 금융권 대출을 통해 주거자금을 마련하며 결혼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것이다.

결혼 또는 주거분리 시점의 부모 지원을 제외하면, 성인자녀와 비동거 부모 사이의 일상적인 사적이전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2017)은 미혼청년과 부모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9~18차(2006~2015)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세대 간 자원 이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의 지원은 없고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유형으로서 48.4%를 차지했고, 서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24.4%를 차지했다. 청년세대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지원 규모는 지원하는 금액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더 많았다. 이는 부모세대의 지원이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로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지원의 형태로 현금자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행기 청년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인 경제적 지원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생애과정 위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대학 등록금 지원, 취업 준비 지원, 결혼 지원 등 특정한 생애과정 이행기에 부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성인이행기의 부모 동거 및 주거분리, 세대 간 사적이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인이행기의 가족관계 동학의 관점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이행 과정에서 부모 동거나 주거분리, 그리고 지원 경험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주관적 해석과 의미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거 여부나 이전 등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성인이행기의 연장과 부모의 새로운 역할

초기 성인기의 주거분리가 일반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떠났던 자녀가 다시 부모 집으로 복귀하는 현상(‘부메랑 키즈’), 부모 집을 떠나지 않는 현상(‘둥지에 묶인’(stuck in the nest)) 등과 같이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일이 서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Mazurik, Knudson, & Tanaka, 2020). 미국의 경우, 2014년에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수가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청년의 수를 능가했는데, 이는 100여 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Fry, 2016; van Stee, 2022a, p. 6에서 재인용). 캐나다도 사정이 비슷하다. 20대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981년 27.5%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42.3%로 늘어났다(Milan, 2016; Mazurik et. al., 2020, p. 491 재인용).

성인자녀의 고용안정성과 괜찮은 소득 수준이 주거독립의 기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체로 안정된 고용과 고소득 청년들일수록 독립가구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득 청년일수록 부모 집을 떠날 확률이 높고 다시 돌아올 확률은 낮았기 때문이다(Goldscheider, 1997; Mulder and Clark, 2000; Kaplan, 2012). 반대로 부모와 계속 동거를 이어가거나 복귀하는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었으며, 이때 부모 동거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가족 동거의 기능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즉 가족은 청년의 성인이행에서 제1의 ‘버팀목’(scaffold)으로 기능하면서(Swartz, Kim, Uno, Mortimer, O'Brien, 2011), 한시적으로 성인자녀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럽 청년들의 주거독립과 소득(청년과 부모 각각의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행기 초반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동거 비율이 높았으며, 성인이행기 후반에 동거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Iacovou, 2002). 성인이행기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안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성인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육을 추구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quilino, 2005; 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따라서 이와 같이 ‘발판’을 제공하는 의미의 지원은 자립이라는 이상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립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Swartz, et. al., 2011).³⁾

이처럼 성인이행기 초기의 부모 지원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이 아니라, 최대한의 버팀목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모 지원은 의존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자원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van Stee, 2022b). 버팀목으로서 부모의 지원은 대학교육 지원을 비롯하여 성인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고소득 직종 진입 등과 같은 차별적 성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성인이행기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주거 지원과 소득 지원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의존과 자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동거의 지속(또는 부모 동거로의 복귀)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청년세대와 그 부모세대가 ‘지원’에 어떤 동기, 의미를 부

3) Swartz와 그 동료들(Swartz, et. al., 2011, p. 415)은 부모 지원의 방식과 동기를 종합하여, ‘비계’와 ‘안전망’으로 구분한 뒤,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 번째는 비계(scaffolding)로, 자녀의 인적 자본이나 특정 사회경제적 성취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일시적인 부모의 지원으로 정의했다. 두 번째는 안전망(safety net)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의 좌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도움으로 정의했다.”

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성인이행기의 가족 대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3절 주요 개념과 연구 내용

1. 사회적 위험, 생애과정 위험, 위험의 개인화

이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성인자녀의 ‘욕구’(needs)에 대한 충족이라는 틀에서 나아가,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위험(risk)은 자연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에 이르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다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이다(Renn, 200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자명한 실체라기보다는 인지되고 의식되며 소통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어진다(Zinn, 2013). 생애과정 위험(life course risk)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위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위험을 “생애과정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사건이 수반하는 이득이나 손실이 불확실한 상태”(O’Rand, 2003)로 정의한다.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애과정 위험의 변화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전근대적 환경에서 위험은 주로 인간의 지식과 통제력 바깥에 있는 것

4) 생애과정(life course)이란 가족, 교육, 일, 건강, 여가 등의 생활영역에 속한 연령 관련 사회적 역할과 이 역할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시간적 배치(순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과정은 국가, 시장, 가족 등의 사회제도 및 권력과 개인의 인구행동(생애과정 선택)의 산물이다. 이러한 생애과정 제도와 개인 인구행동은 전자에 의해 후자가 규정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 인구행동이 생애과정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을 탈제도화라고 개념화한다. 개인 인구행동의 패턴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경우를 생애과정의 탈정형화(destandardization)라고 명명하는데, 탈정형화가 반드시 탈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었다. 따라서 위험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 위해(danger)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위험을 매개해줄 별도의 지식과 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과 위해는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을 통한 자연환경의 극복과 조작 가능성을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위험과 위해가 구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Zinn, 2010).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빈곤, 실업, 질병, 장애 등의 위험은 복지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집단화될 수 있는 위해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별적인 위험이 아닌 집단적인 인구의 위험이며,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인간 생애과정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이러한 집단화와 계산 가능성의 기반이 되었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의 관리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이란 평균적인 생산노동자가 순차적이고 표준적인 생애주기를 살아갈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에스핑-앤더슨, 2006).⁵⁾ 사회보험제도로 체계화된 생애과정 위험은 생애과정 그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되고 관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탈근대사회에서 위험 개념은 또다시 변화를 겪고 있다. 관리되고 계산될 수 있는 위험은 위험의 집단화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로 위험에 대한 집단적 대처 주변에서, 위험의 개인화라는 새로운 접근이 출현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제 위험은 적절한 태도와 지식, 그리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된다. 즉 위험은 투자 가능성과 결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된 것이다(Zinn, 2010). 이에 따라 위험 회피와 위험 감수가 모두 가능한

5) “생애주기 위험은 상당 부분 라운트리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즉 궁핍과 여유의 주기성의 문제라든가, 아동이 많은 가족과 노령기에 특별히 빈곤의 위험이 존재하는 문제 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책은 가족수당과 연금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은 ‘평균적인 생산 노동자’가 순차적이고 표준화된 생애주기를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가정했다”(에스핑-앤더슨, 2006, pp. 291-292).

선택지로 부상한다. 위험이 국가나 인구의 집합적인 단위에서가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계산되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회정책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이해했다. 가령 올랜드(O’Rand, 2003)의 논의는 구위험과 신위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서 신위험에 대한 관리란 곧 위험의 개인화임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위험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애과정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이 정보는 개별 결과의 확률 또는 가능성 형태로 제공된다.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종종 불투명한) 대안을 모니터링하고 선택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산된다. 개인들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건강보험 옵션을 선택하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생애과정 이행과 관련되어 더 많은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학교, 일, 가족, 건강, 퇴직 등의 시점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한다(O’Rand, 2003, p. 695). 생애과정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인구학적 행동의 다양성과 비전형성은 개인 수준에서 위험이 인식되고 대응되며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위험은 상대적인 무지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무작위적이고 평등하게 노출되는 외적인 충격으로 간주되었으며,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생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위험 개념은 정치적인 합리성(‘통치성’)으로 하여금 집합적인 정책과 공적인 해법을 지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은 정보의 확대 속에서 등장하며, 사회에 대해 내생적이고 개인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위험에 대한 정보의 개인적 접근성, 이해력, 활용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위험 개념은 더 개별화된 정책과 사적인 해법을 유도한다. 새로운 위험은 정상적인 생애과정 위험과 예외적인 생애과정 위험을 집합적인 사회보험으로부터 개인화된 재정적 역량과 주도권으로 재분배한다(O’Rand, 2003, p. 695).

복지국가가 저발전한 한국 사회에서 생애과정의 위험이 가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관리되었던 경험은 빈약하다. 2000년대 이후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높은 노인빈곤율이 입증하듯이 위험의 집단적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가족은 서구 복지국가의 유사 기능적 대응물로 간주되었다(장경섭, 2018). 그런데 서구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가족 역시 구위험이 아니라 신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은 위험에 대한 무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해야 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고안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이 보고서의 제2, 제3, 제4장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별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횡단면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성인이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하는 장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9~2022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기의 연령별 주거,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연령별 개인취업소득 및 균등화 가구소득을 계산하고 비교분석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이 변화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같은 가족 단위의 실천이 청년의 소득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대상의 일대일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횡단면 집계 자료를 통해 성인이행기 생애과정 위험의 집합적 특성을 확인했다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러한 집합적 결과의 사회적 과정을 살펴본다. 행위자들이 성인이행이라는 생

에 목표와 관련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성인이행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과 가족의 실천을 다루고, 제4장에서는 부모 집을 떠나 주거자립을 이루는 과정과 가족의 실천을 다룬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성인이행기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가족 대응의 특성을 서술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다.





제2장

성인이행기의 빈곤위험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효과

제1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제2절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의 관계

제3절 청년의 특성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관계

제4절 소결



제 2 장

성인이행기의 빈곤위험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효과

제1절 연구 방법 및 자료

1. 분석 개요

생애주기에 따른 빈곤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라 빈곤위험이 급증하고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동거,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박경숙, 김미선, 2016; 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제4장; Ku, Lee, & Lee, 2021; 이원진 외, 2022, 제5장; 최선영, 남궁은하, 이다미, 이원진, 최인선, 2022, 제3장 제1절). 하지만 생애주기 초중반 이행기 청년의 빈곤위험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일자리 특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아니라 부모와의 동거 및 사적이전 같은 가족 요인이 청년의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할 때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이 변화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표본 사례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2019~2022년⁶⁾ 4개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횡단적으로 분석한

3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다. 여러 시점에 측정된 소득을 결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21년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였고,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설정하였다.⁷⁾ 또한,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청년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을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을 상대소득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표본 사례 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표본 사례 수 및 빈곤율

(단위: 명, %)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사례 수	전체	3,765	3,444	3,738	4,006	3,786	3,505	3,265	3,227	3,343	3,869	28,314
	빈곤	487	401	422	397	321	310	253	264	333	401	2,701
	비빈곤	3,278	3,043	3,316	3,609	3,465	3,195	3,012	2,963	3,010	3,468	25,613
빈곤율		11.3	10.9	10.5	8.3	7.7	8.2	7.3	8.1	9.6	9.6	8.8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 장에서 부모 동거는 <표 2-2>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첫째,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모 비동거’로 정의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취업·학업 등의 사유로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를 정의하므로 (통계청, 2021, pp.26-27), 해당 범주는 주거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부모와 분리한 청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

6) t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학업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 등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t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소득을 t-1년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에서 청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은 2019~2022년을 기준으로, 소득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7) 2021년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연도 기준 시점별 빈곤선은 2018년 1,425만 원/년, 2019년 1,481만 원/년, 2020년 1,537만 원/년, 2021년 1,586만 원/년이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고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 가구주·배우자-부모 동거’로 정의한다. 해당 범주는 대체로 가구 내에서 청년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아니고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 가구원-부모 동거’로 정의한다. 해당 범주는 대체로 가구 내에서 부모가 청년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 동거 범주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과 같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 하더라도 소득·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례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2〉 부모 동거 정의

구분	내용
부모 비동거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인 가구주·배우자-부모 동거	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고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 가구원-부모 동거	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아니고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주: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고,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취업·학업 등의 사유로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를 정의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표 2-3〉 부모 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정의

구분	내용
부모 비동거-사적이전 비존재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가구사적이전소득이 0원인 경우
부모 비동거-사적이전 존재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가구사적이전소득이 0원 초과인 경우
부모 동거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주: 사적이전소득은 생계를 달리 하는 가족, 친척, 동료 등으로부터의 가구 간 현금·현물 이전소득과 비영리단체로부터의 현금·현물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표 2-3〉에서는 부모 동거와 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를 조합한 범주를 정의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가구 내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청년의 비동거 형제·자매 등이 청년이 아니라 부모를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부모 비

동거 청년에 대해 가구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즉, 전체 청년을 '부모 비동거-사적이전 비존재', '부모 비동거-사적이전 존재', '부모 동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가구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가구사적이전소득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정기적인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의미하고, 경조금과 같은 부정기적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통계청, 2021, p.104). 또한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을 포착하지 않으므로,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여 동일 가구로 조사된 청년이 가구 내에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함선유, 이원진, 하은솔(2023, 제5장)을 따라 <표 2-4>와 같이 소득을 정의하여 동거 부모와 사적이전이 청년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표에서 '소득 3'은 가구 내에서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취업소득을 합산·균등화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가상 균등화 가구취업소득을 의미한다. 소득 4는 청년의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의 취업소득을 합산·균등화한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소득 4'와 '소득 3'의 차이를 동거 부모가 청년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동거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청년을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면, 부모를 제외할 때보다 포함할 때 청년의 균등화 가구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동거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청년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면, 부모를 제외할 때보다 포함할 때 청년의 균등화 가구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은 소득 4와 소득 3이 동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득 4와 소득 3의 차이를 '부모 효과'로 부른다.

〈표 2-4〉 소득 정의

	구분	정의
소득 1	개인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소득 2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본인·배우자의 취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본인·배우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3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본인·배우자·자녀의 취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본인·배우자·자녀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4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취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5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전체 가구원의 취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6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가구 내에서 전체 가구원의 취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7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가구 내에서 전체 가구원의 취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소득 8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가구 내에서 전체 가구원의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주: '배우자', '자녀', '부모'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적이전지출은 가구 간 이전지출과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을 의미하고, 공적이전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미한다.

자료: 함선유, 이원진, 하은솔(2023, 발간 예정,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 연구, 제5장)의 〈표 2-3〉에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항목을 추가하여 인용하였다.

〈표 2-4〉에서 '소득 6'은 가구 내 취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균등화한 가구일차소득이고, '소득 7'은 가구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의 지출)을 차감한 가구시장소득이다. 따라서 소득 7과 소득 6의 차이를 사적이전이 청년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이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에게 지원한 이전지출보다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크다면, 사적이전이 청년의 가구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사적이전지출이 사적이전소득보다 크다면, 사적이전이 청년의 가구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득 7과 소득 6의 차이를 사적이전 효과로 부른다.

청년의 빈곤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활용한다. 빈곤율은 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로 정의하고, 빈곤갭 비율은 빈곤선과 빈곤층 소득의 차이의 총합을 빈곤선과 인구수의 곱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21, pp.151-153). 빈곤층의 규모가 크고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갭 비율이 증가한다.

제2절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의 관계

제2절에서는 청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이 변화하는 실태를 분석한다. [그림 2-1]~[그림 2-4]에서는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우선 청년의 학업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을 살펴보았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빈곤 청년과 빈곤선 이상인 비빈곤 청년의 실태를 함께 보고하였다.

[그림 2-1]에는 청년의 학업상태를 보고하였다. 청년의 대학(교) 재학·휴학 비율은 19·20세의 74%에서 29·30세에는 2%로 감소하여, 대체로 20대 후반에 정규교육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중반 청년의 66~70%는 대학교 졸업자였고, 15~19%는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보다 빈곤 청년의 대학(교) 진학률이 낮아 30대 초중반 빈곤 청년의 대학(교) 졸업 비율이 48~53%에 그쳤다.

[그림 2-2]에는 청년의 종사상지위를 보고하였다. 청년의 비취업 비율은 17·18세의 98%에서 29·30세에는 26%로 감소하였고 30대 초중반에 25~27%를 유지하였다. 이는 대체로 20대 후반에 청년의 입직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은 비취업 비율과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청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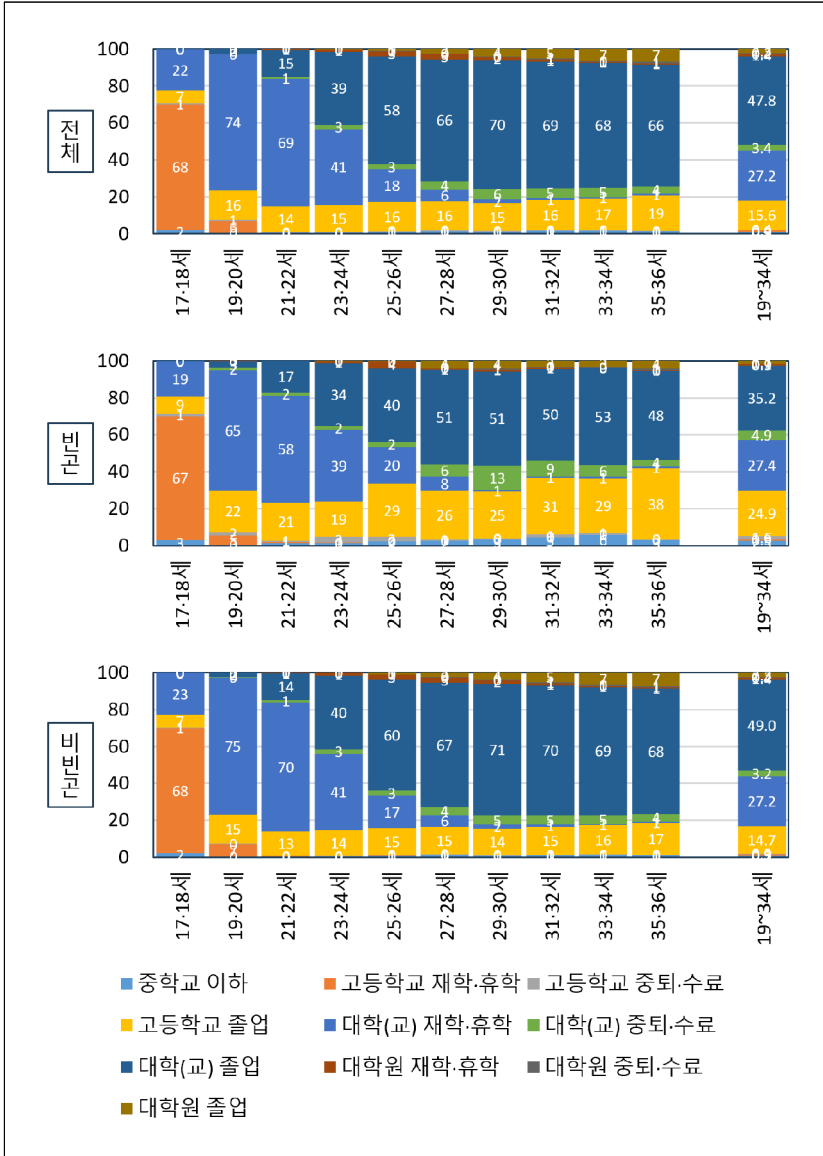
[그림 2-3]에서 청년의 학업상태와 경제활동상태를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의 교육-입직 이행이 대체로 20대 후반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지 않고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재학·휴학-비취업)은 17·18세의 91%에서 29·30세의 3%로 감소하였고, 정규교육을 완료하였으나 취업하지 않은 비율(미취학·중퇴·수료·졸업-비취업)은 17·18세의 7%에서 29·30세의 23%로 증가하였으며,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취업한 비율은 17·18세의 1%에서 29·30세의 73%로 증가하였다. 30대 초중반 청년의 23~26%는 정규교육을 완료하였으나 취업하지 않았다. 특히 30대 초중반 빈곤 청년은 40~46%가 정규교육을 완료하였으나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에서 청년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대 중반부터 결혼·출산이 시작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유배우·유자녀 비율은 23·24세의 1%에서 35·36세의 58%로 증가하였고, 유배우·무자녀 비율은 25·26세의 1%에서 35·36세의 11%로 증가하였다.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의 결혼·출산이 조금 더 빨리 시작되었지만, 35·36세의 유배우·유자녀 비율은 빈곤 청년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30대 중반 빈곤 청년의 6~7%는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8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그림 2-1] 청년의 연령별 학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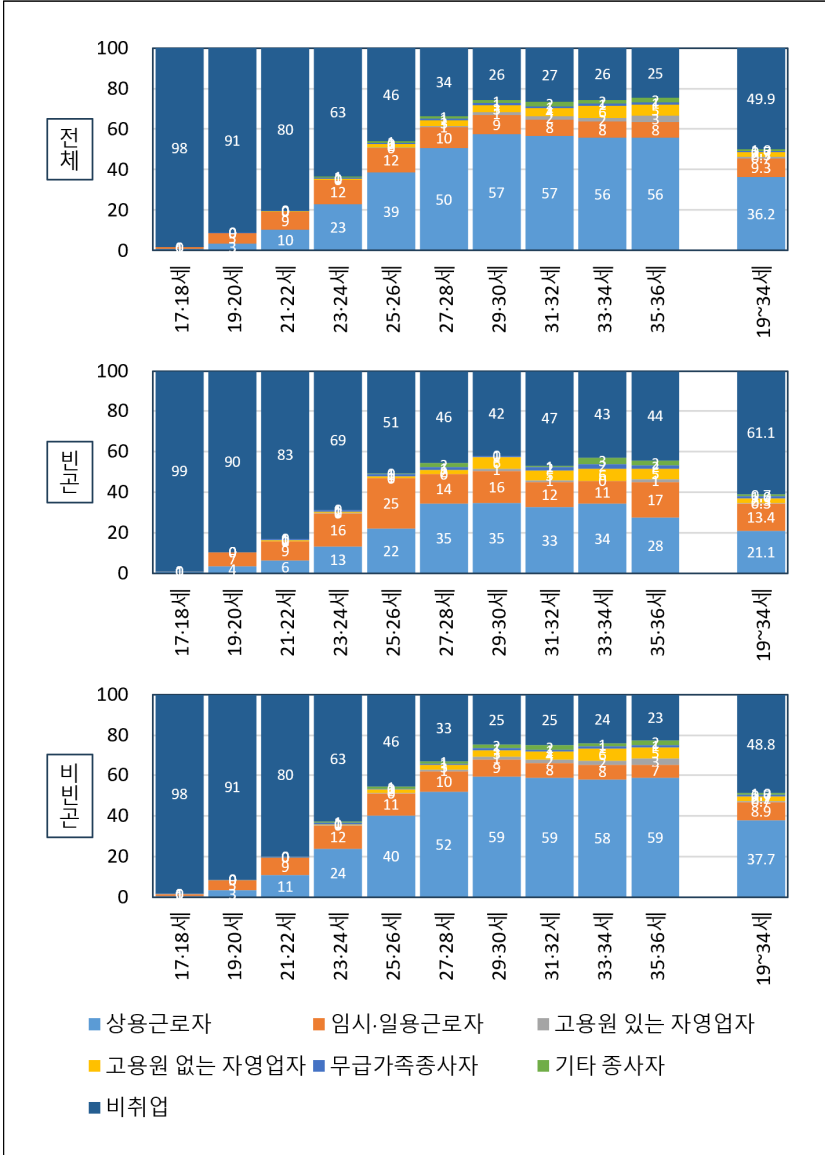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2] 청년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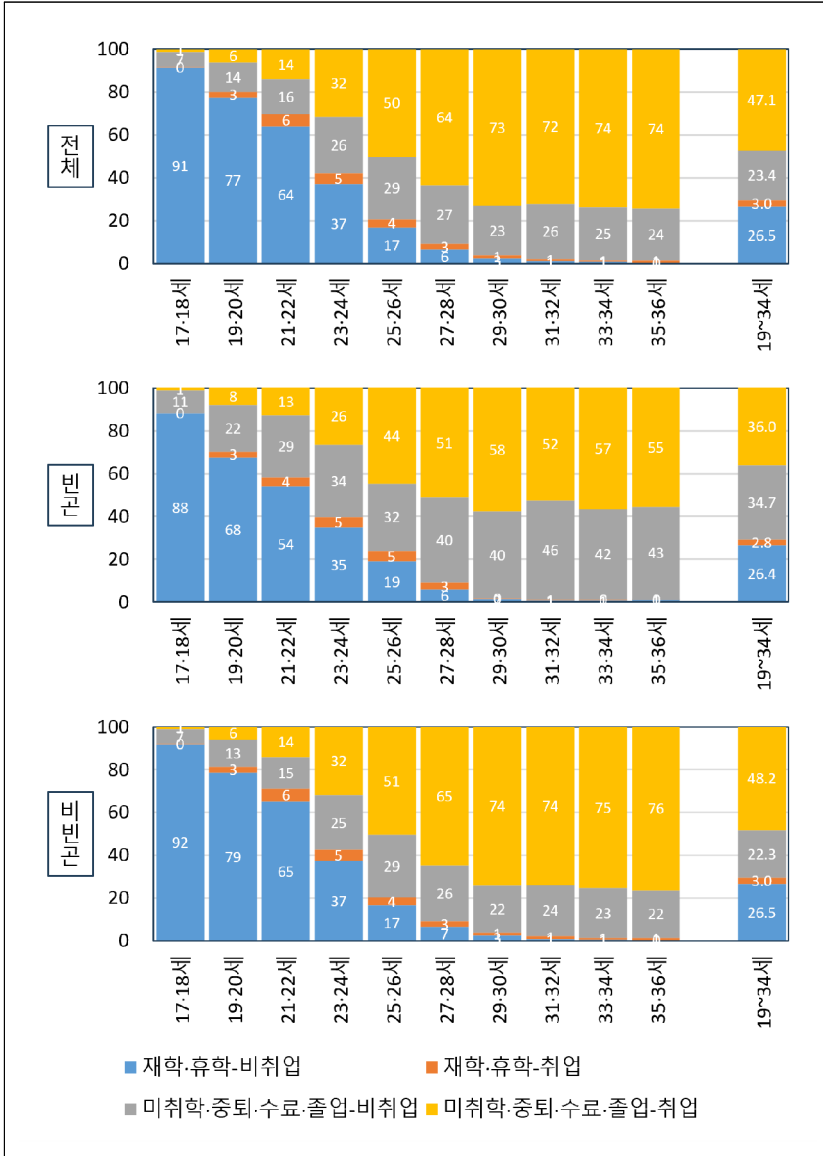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40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그림 2-3] 청년의 연령별 학업·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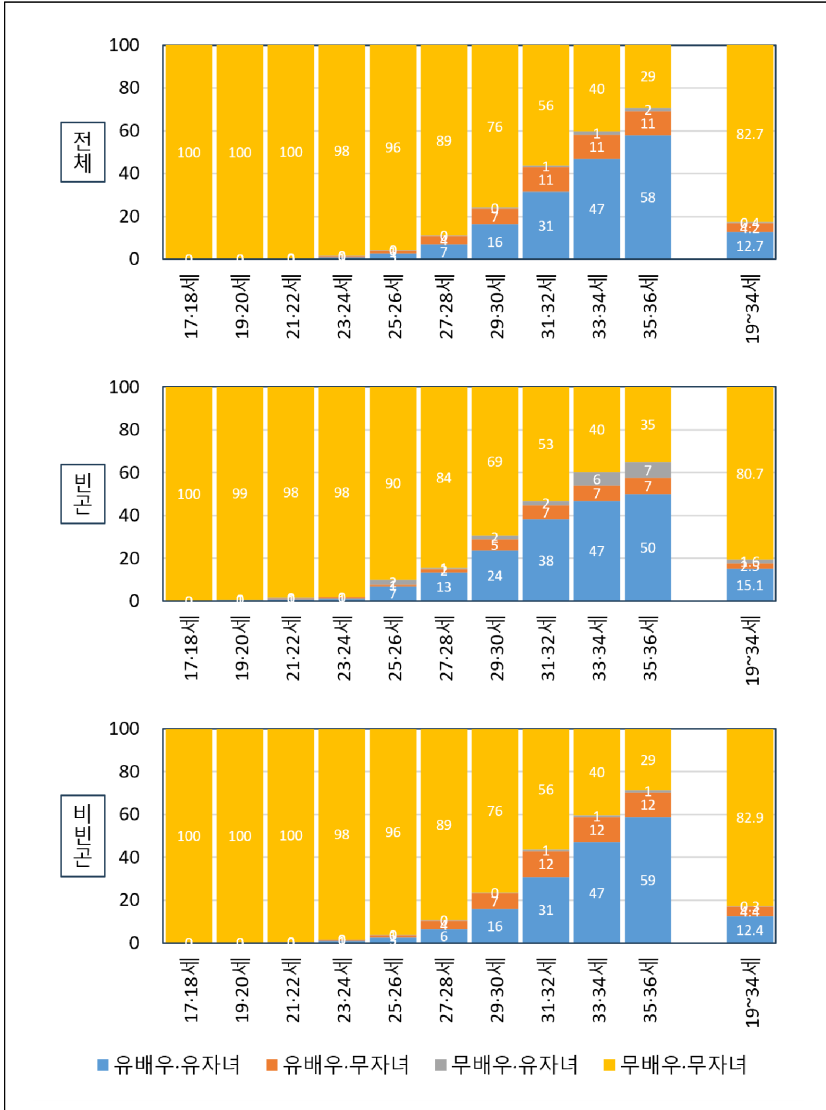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4] 청년의 연령별 가구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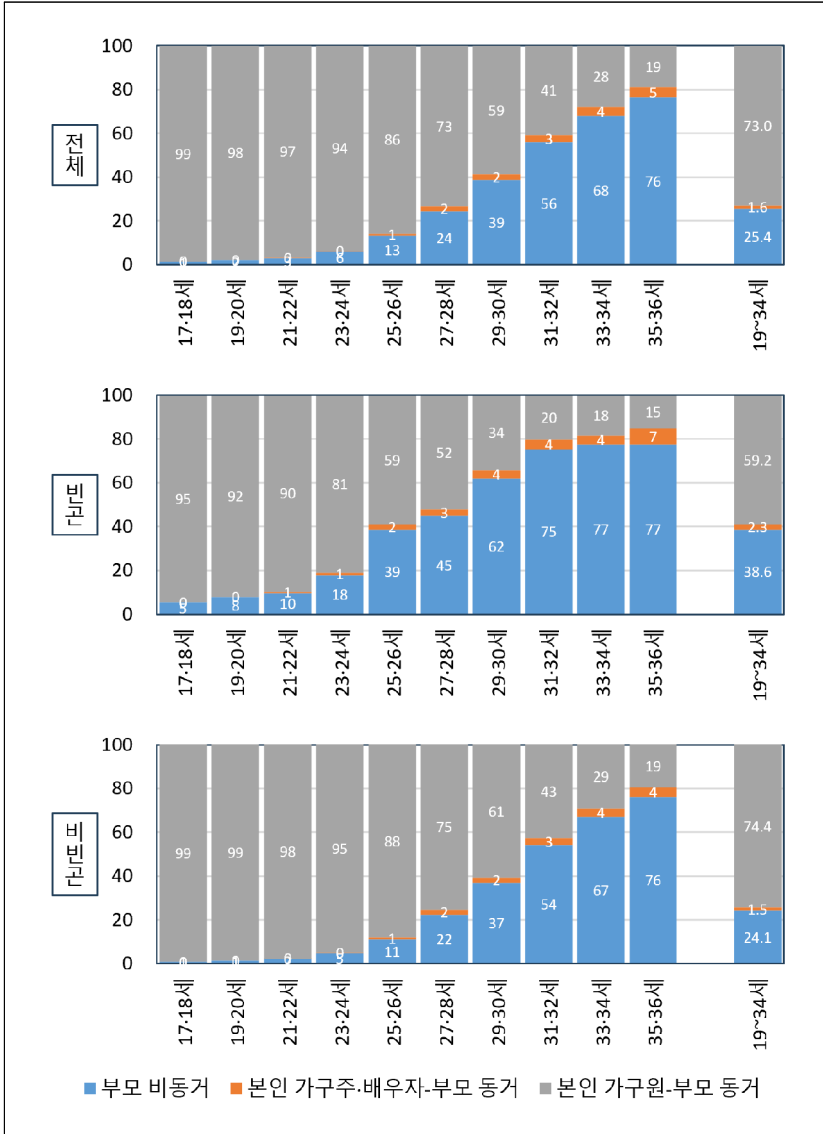
주: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 내 배우자 및 자녀 존재를 확인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4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그림 2-5] 청년의 연령별 부모 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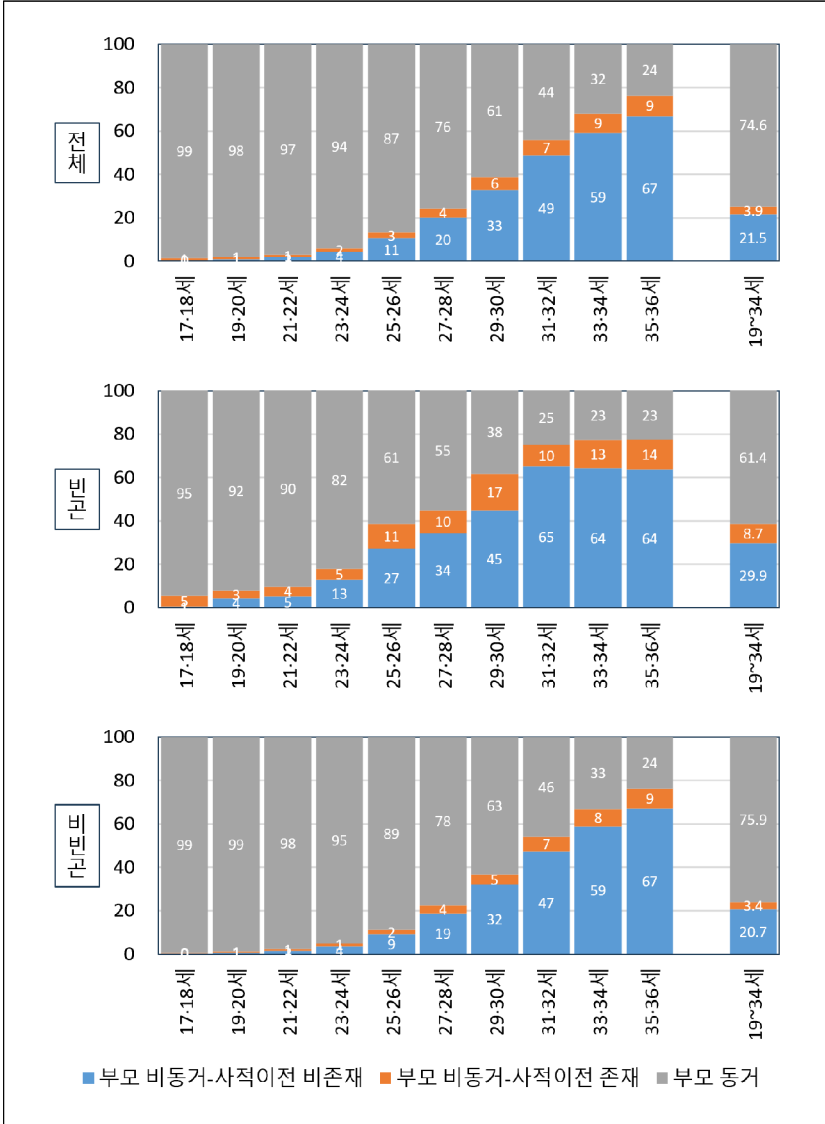
(단위: %)



주: 범주 정의는 <표 2-2>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6] 청년의 연령별 부모 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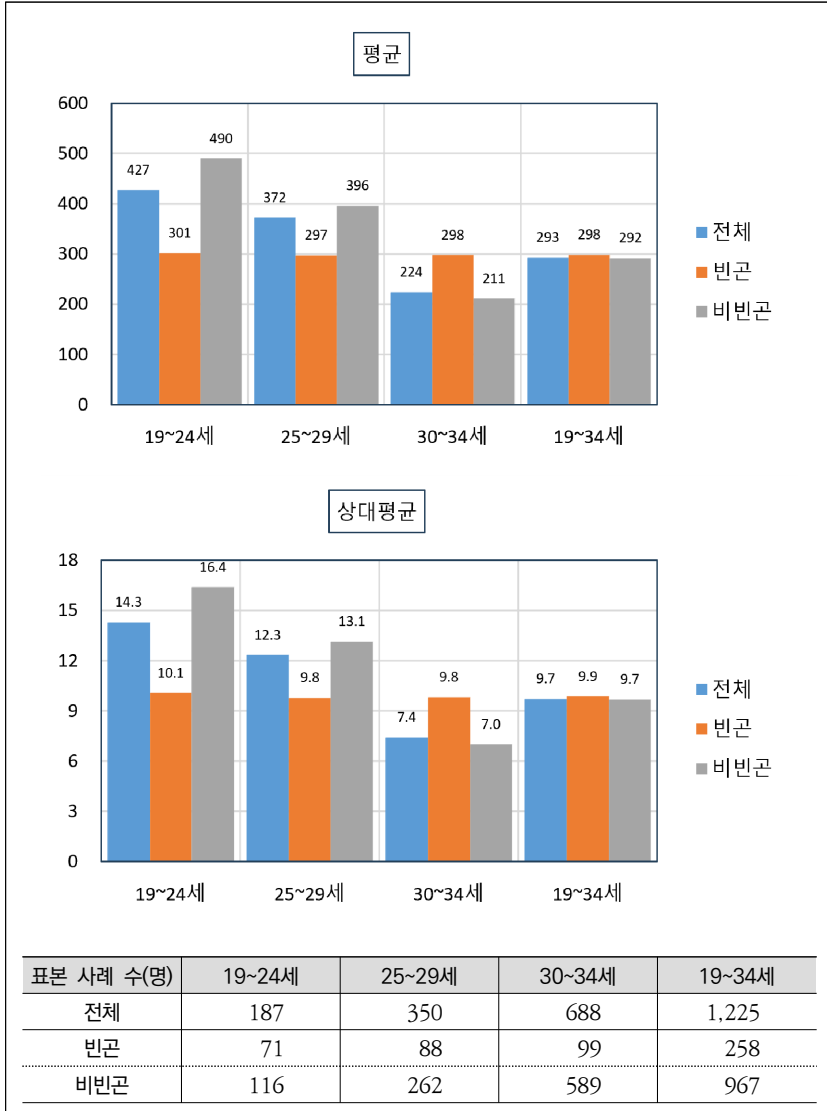


주: 범주 정의는 <표 2-3>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와 같은 청년의 이행기 학업, 경제활동, 결혼, 출산 변화는 부모 동거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에서 청년의 부모 동거 실태를 살펴보면,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하여 독립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교육-입직 이행과 결혼·출산이 청년의 부모 동거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가구원일 가능성보다 가구주 또는 배우자일 가능성이 훨씬 낮았는데, 이는 청년-부모 동거를 주로 부모가 청년을 부양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년이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의 부모 동거 비율 역시 조금씩 증가하였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보다 빈곤 청년의 독립이 빠르게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청년의 부모 비동거 비율은 21·22세의 2%에서 35·36세의 76%로 증가하였지만, 빈곤 청년의 부모 비동거 비율은 17·18세에 이미 5%였고 31·32세에 75%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모 동거가 청년의 빈곤지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일부는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을 받는다. [그림 2-6]을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가구사적이전소득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이 21·22세의 1%에서 33·34세의 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한 청년의 소수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19~34세 청년의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비율이 3.9%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가구를 달리 하는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을 받는 청년이 많지는 않았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사적이전이 빈곤 청년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7]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집단의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2021년 실질, %)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처분소득 증릿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7]에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가구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 청년이 가구사적이전소득을 얼마나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상이한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을 보고하였고,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으로 나눈 상대소득의 평균을 보고하였다. 전체 청년을 살펴보면,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이 19~24세의 427만 원/년에서 30~34세에는 224만 원/년으로 감소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행 초기의 사적이전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 청년은 연령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297~301만 원/년의 가구사적이전소득을 받았다. 즉, 대체로 빈곤 청년은 이행 초기에 부모로부터 정기적 지원을 받아야 할 때 충분한 사적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이행 후기에 충분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평균을 분석한 결과 역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8]~[그림 2-11]에서는 <표 2-4>의 소득 정의를 따라 청년의 연령별 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였다. 우선 [그림 2-8]에는 소득 평균을 보고하였다. 그림에서 파란색 실선은 본인의 개인취업소득이다. 저연령대에서는 0에 가깝다가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연간 3,500만 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검은색 실선은 균등화 가구소득이다. 이 파란색 실선과 남색 실선의 격차가 가구구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합산소득에 대한 균등화)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에서 빨강 막대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인 부모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7·18세의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평균은 26만 원/년에 불과하였지만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평균은 연간

4,547만 원/년으로 훨씬 높았다. 즉, 17·18세 청년은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지만, 동거 부모가 획득한 소득을 포함하면 취업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에서 남색 막대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인 사적이전 효과를 의미한다. 17·18세의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평균은 4,305만 원/년이었고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4,200만 원/년이었으므로, 사적이전 효과는 -105만 원/년이었다. 즉, 17·18세 청년이 속한 가구의 평균적인 사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지출이 커서 사적이전이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살펴보면, 1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으로 연령이 증가할 때 입직·결혼에 따라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취업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파랑 점선), 부모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부모의 소득 증가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결과, 대체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검정 실선). 이는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부모 동거의 관계가 대체적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청년은 이행 초기에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 동거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고, 이행 후기에 입직·결혼으로 자립 능력을 확보하면서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하여 독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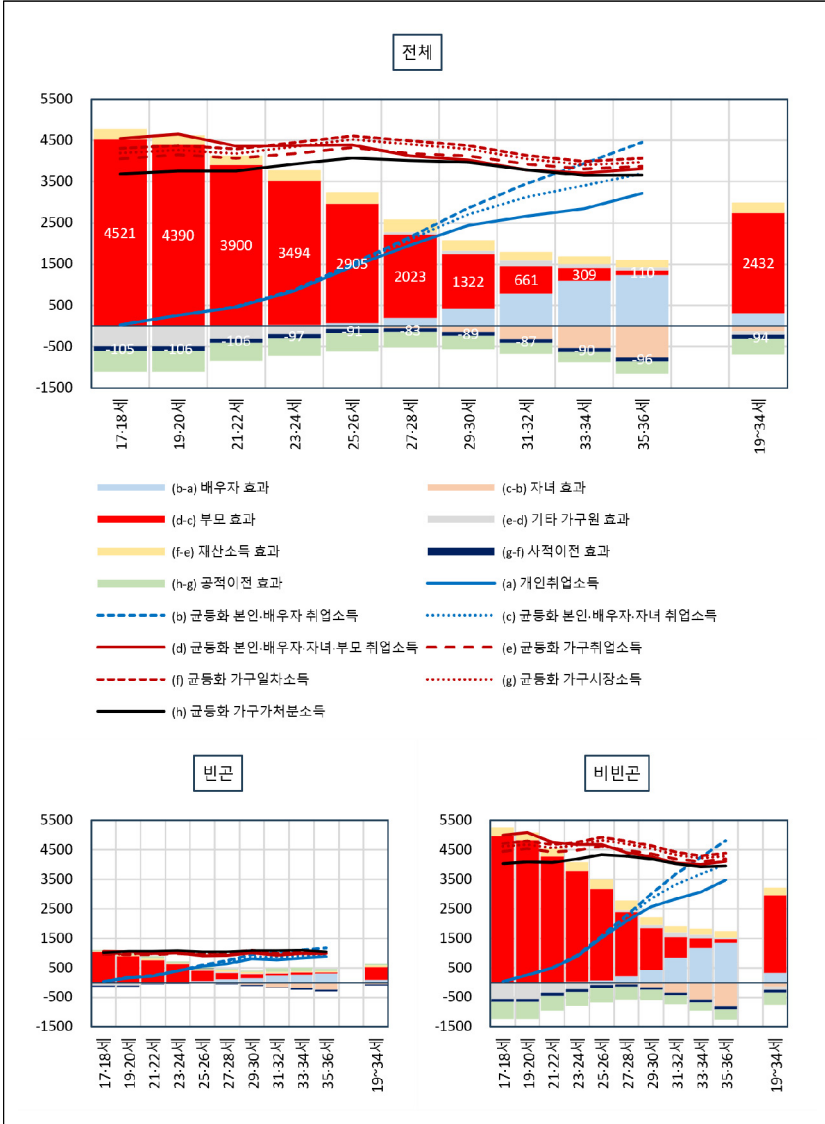
한편, 사적이전은 연령과 무관하게 이행기 청년의 소득을 소폭 감소시켰다. 이는 [그림 2-6]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적이전을 받는 청년의 비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청년의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은 본인과 배우자가 획득한 취업소득과 부모의 소득 증가 효과가 모두 훨씬 작았다. 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소득 증가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청년 본인과 배우자가 획득한 취업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은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2-9]에서

48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소득 상대평균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모 동거는 19~34세 청년의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평균을 2,432만 원/년 증가시켰고, 이는 대략 중위소득의 80.8%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사적이전은 19~34세 청년의 가구소득 평균을 94만 원/년 감소시켰고, 이는 대략 중위소득의 3.1%에 해당하였다.

[그림 2-8] 청년의 연령별 소득 평균과 동거 형태의 효과

(단위: 만 원/년, 2021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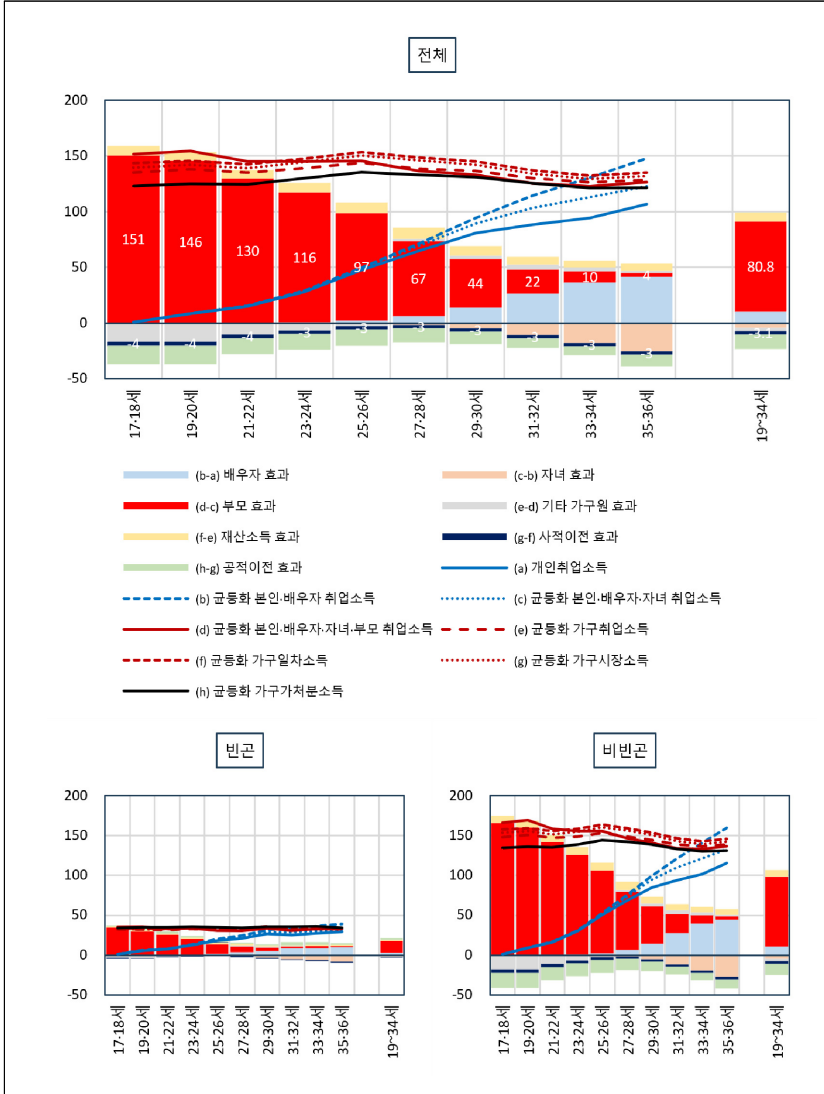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1>.

50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그림 2-9] 청년의 연령별 소득 상대평균과 동거 형태의 효과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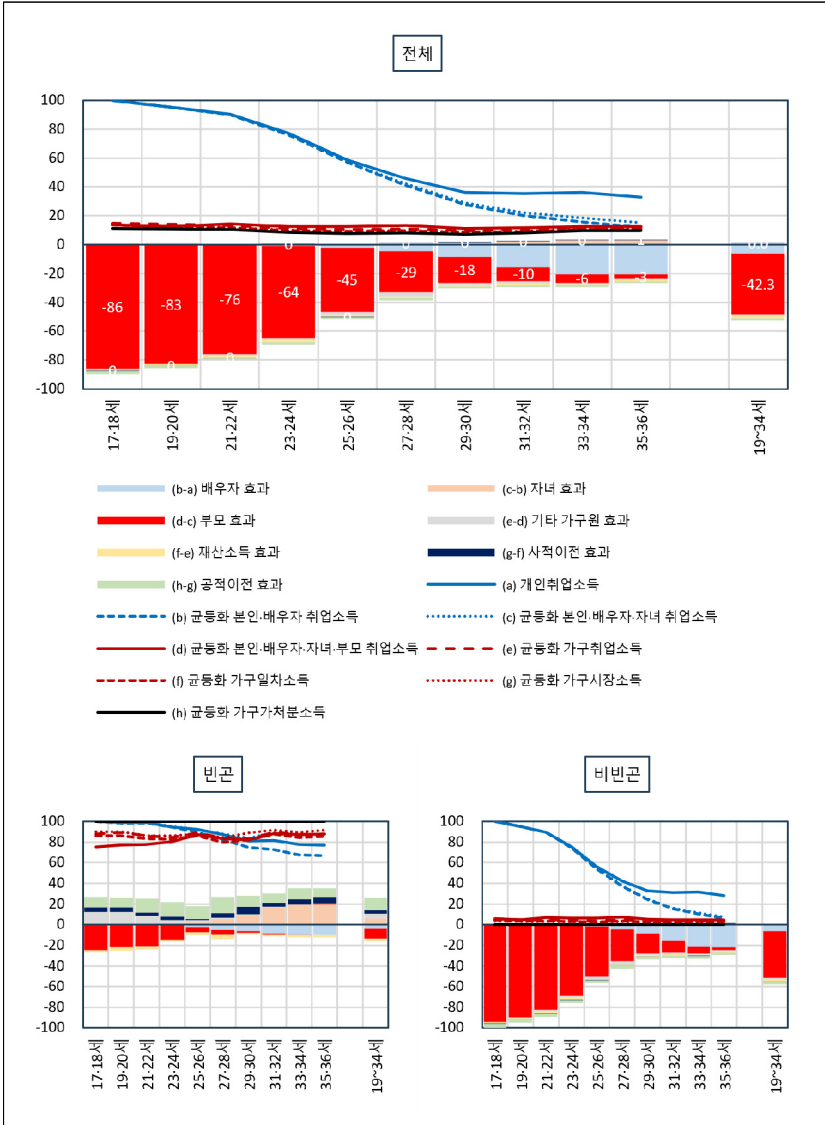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치분소득 증릿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2>.

[그림 2-10] 청년의 연령별 빈곤율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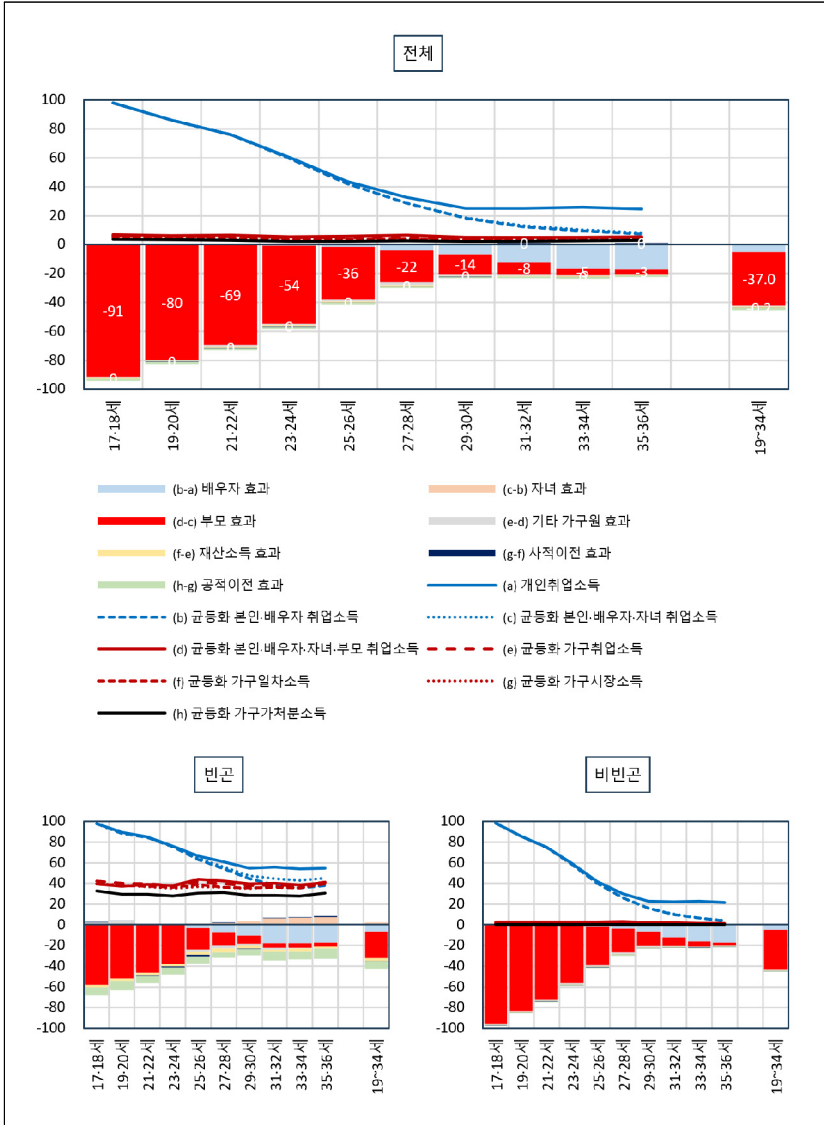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3>.

5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그림 2-11] 청년의 연령별 빈곤갭 비율

(단위: %, %포인트)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4>.

[그림 2-10]에는 청년의 연령별 빈곤율을 보고하였다. 17·18세 청년은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획득한 취업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비율이 100%였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직·결혼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증가하면서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빈곤율이 35·36세의 15%까지 감소하였다. 부모 동거는 이행 초기 청년의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입직·결혼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면서 부모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감소하였다. 단, 35·36세에도 여전히 부모가 청년의 빈곤율을 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35·36세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10%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작지 않았다. 반면, 사적이전은 이행기 청년의 빈곤율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의 이행 초기 부모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훨씬 작았고, 사적이전은 빈곤 청년의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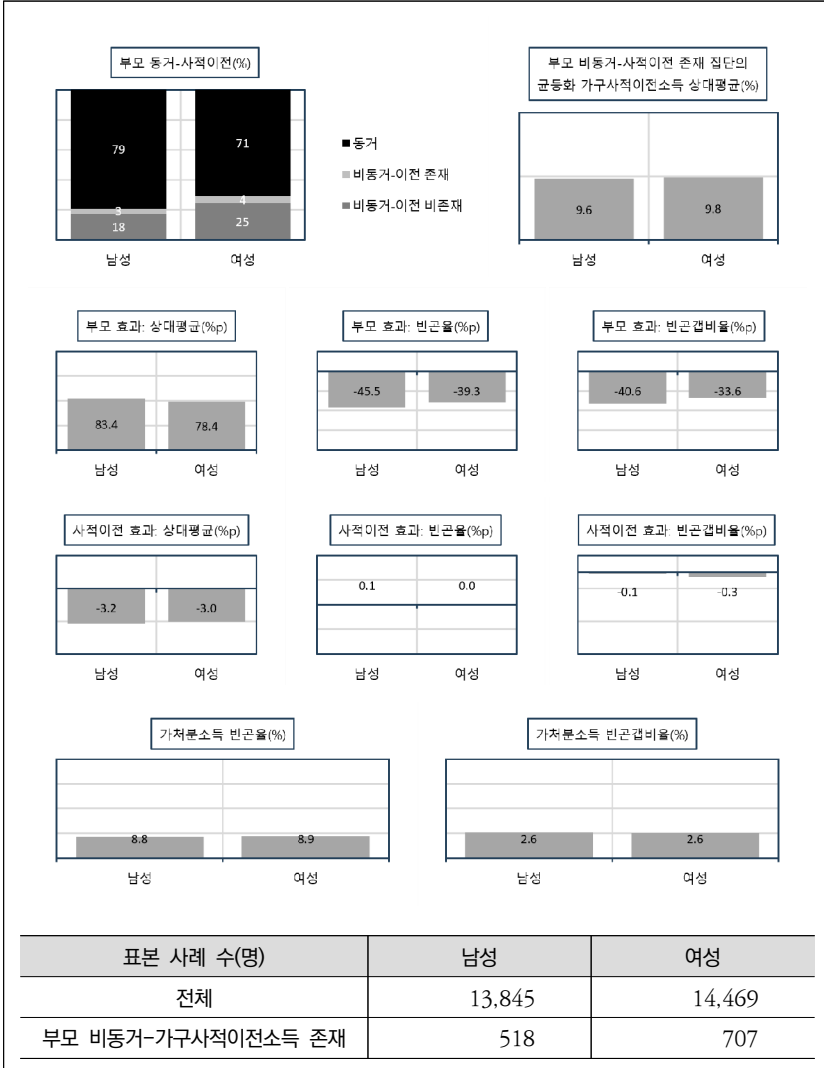
[그림 2-11]에는 청년의 연령별 빈곤갭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년의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빈곤갭 비율은 17·18세의 98%에서 35·36세에는 8%로 감소하였고, 부모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17·18세의 91%포인트에서 35·36세에는 3%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사적이전은 이행기 청년의 빈곤갭 비율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빈곤지위별로 살펴보면,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의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빈곤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대 초반 청년의 빈곤은 주로 부모와 동거하지 못하거나 동거 부모의 취업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30대 초중반 청년의 빈곤은 주로 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3절 청년의 특성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관계

제2절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규교육 완료, 입직, 결혼, 출산 같은 이행기 생애사건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소득·빈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탐색하였다. 제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성, 연령, 학업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 특성과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2-12]에는 이 절에서 분석한 주요 정보를 성별로 보고하였다. 부모 동거 비율은 남성이 79%로 여성의 71%보다 높았고,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비율은 3~4%로 유사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이 높은 것은 생애과정에서 남성의 입직·결혼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가구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성별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은 중위소득의 9.6~9.8%로 거의 유사하였다.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로 정의한 부모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남성의 소득을 조금 더 크게 증가시켰고 빈곤을 조금 더 크게 감소시켰지만, 부모 효과의 성별 차이가 상당히 작았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로 정의한 사적이전 효과를 살펴보면, 사적이전이 남성과 여성의 소득 상대평균을 3.0~3.2%포인트 감소시켰고, 사적이전이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이 각각 8.8~8.9%, 2.6%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여성 청년보다 남성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소득·빈곤의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2-12]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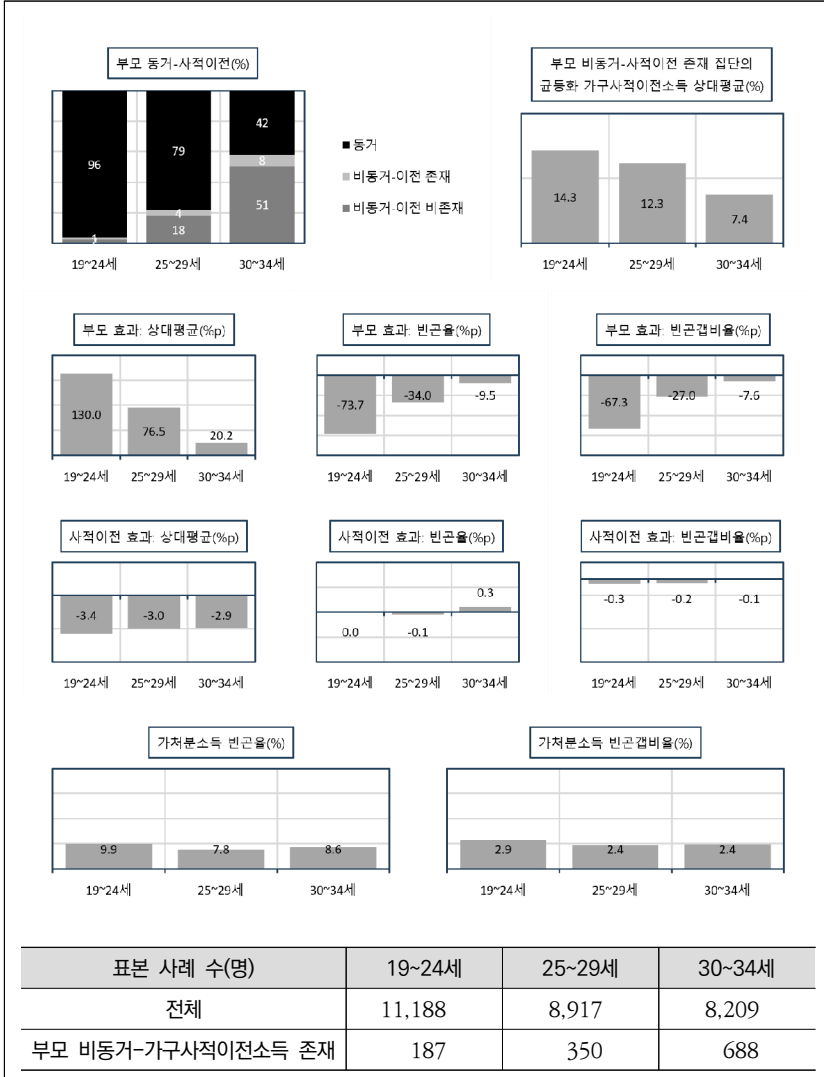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처분소득 증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부모 효과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적이전 효과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56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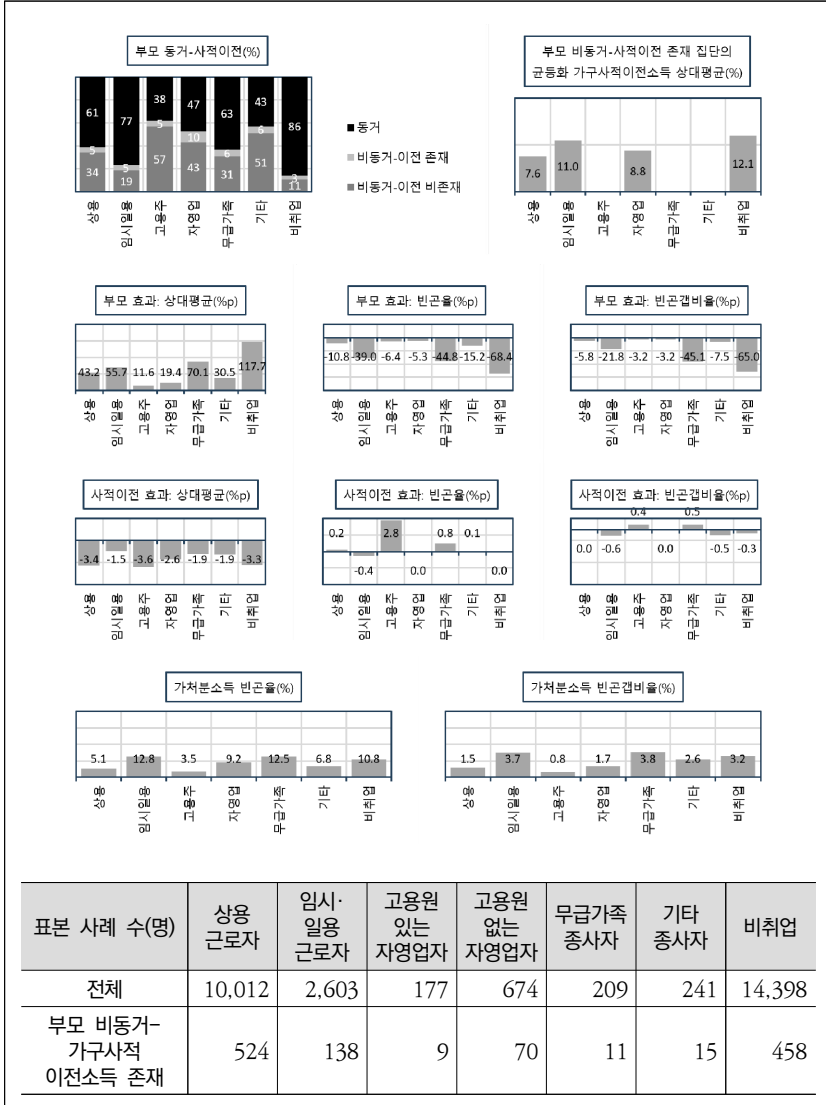
[그림 2-13]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연령별 비교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치분소득 증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부모 효과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적이전 효과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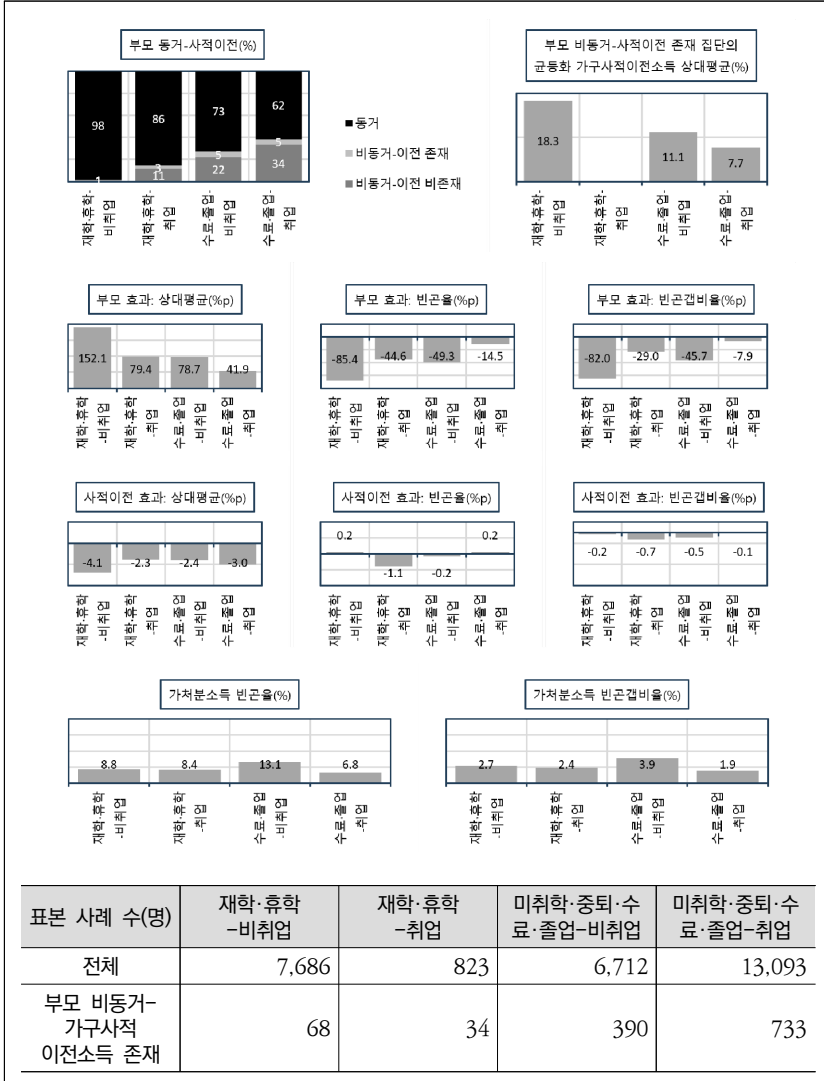
[그림 2-14]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종사상지위별 비교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치분소득 증릿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부모 효과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적이전 효과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본 사례 수가 50명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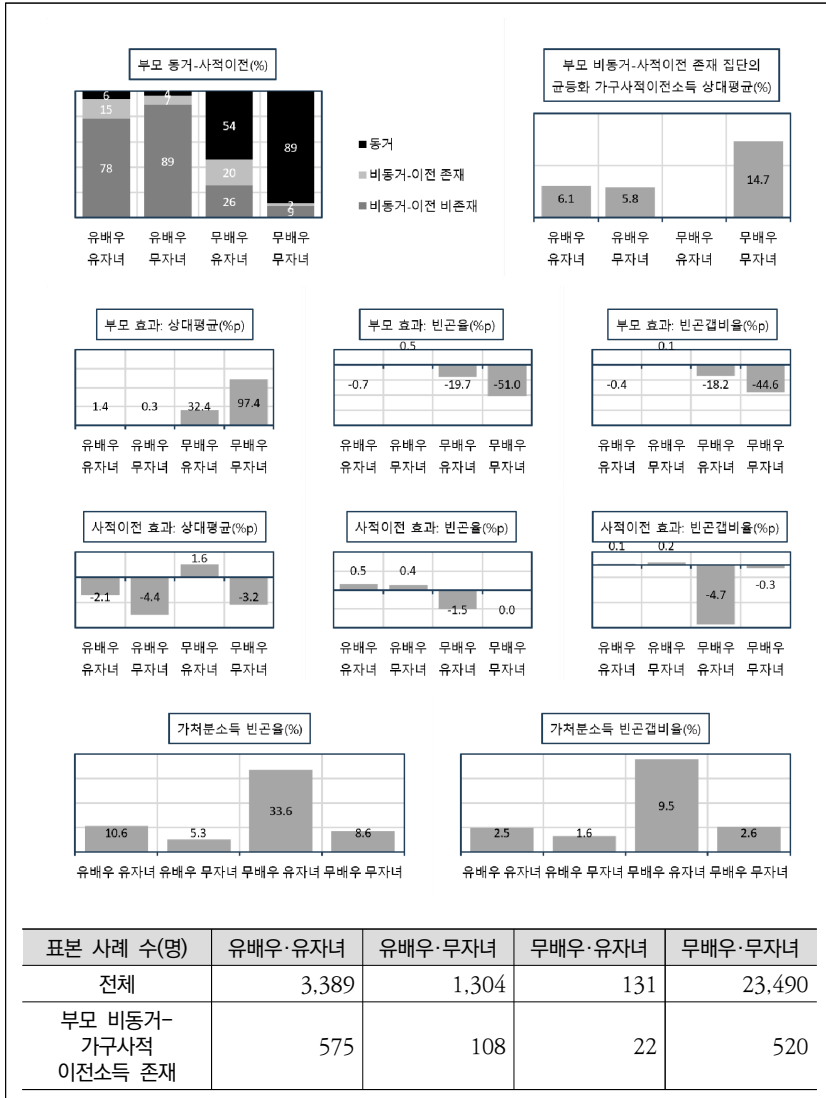
[그림 2-15] 19~34세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학업·경제활동상태별 비교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처분소득 증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부모 효과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적이전 효과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본 사례 수가 50명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16] 19~34세 청년의 가구유형별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처분소득 증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부모 효과는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과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적이전 효과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 가구일차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본 사례 수가 50명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13]에는 연령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선 성별 분석 결과와 달리,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실태가 연령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 청년의 연령이 19~24세에서 30~34세로 증가할 때 부모 동거 비율이 96%에서 42%로 감소하였고,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 소득 존재 집단의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이 중위소득의 14.3%에서 7.4%로 감소하였으며, 부모가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단, 사적이전의 소득·빈곤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가처분소득 빈곤의 연령 집단 간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림 2-14]에서 종사상지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 동거가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청년의 경제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비취업자의 부모 동거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부모 동거 비율이 각각 77%, 63%로 비교적 높았다. 부모는 비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 상대평균을 각각 117.7%포인트, 70.1%포인트, 55.7%포인트 증가시켰고, 빈곤율을 68.4%포인트, 44.8%포인트, 39.0%포인트 감소시켰으며, 빈곤갭 비율을 65.0%포인트, 45.1%포인트, 21.8%포인트 감소시켰다. 한편, 사적이전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빈곤을 소폭 증가시켰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을 소폭 감소시켰다. 전반적으로 사적이전과 종사상지위의 관계는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비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처분소득 빈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5]에는 학업·경제활동상태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은 청년의 학업상태-경제활동상태 조합이 부모 동거를 강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재학·휴학)보다 정규교육을 완료한 청년(미취학·중퇴·수료·졸업)의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았고, 비취업 청년보다 취업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학

업상태 효과와 경제활동상태 효과가 상호작용한 결과, 취업하지 않고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재학·휴학·비취업)의 부모 동거 비율은 98%였고,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취업한 청년(미취학·중퇴·수료·졸업·취업)의 부모 동거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집단의 균등화 가구사적이전소득 평균은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보한 미취학·중퇴·수료·졸업·취업 청년이 가장 작았다. 부모가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 역시 재학·휴학·비취업 청년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고 미취학·중퇴·수료·졸업·취업 청년에게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한편, 사적이전은 재학·휴학·취업 청년과 미취학·중퇴·수료·졸업·비취업 청년의 빈곤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최종적으로, 미취학·중퇴·수료·졸업·비취업 청년의 가처분소득 빈곤이 가장 높았고, 미취학·중퇴·수료·졸업·취업 청년의 가처분소득 빈곤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규교육을 완료하면서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아지는 이행 후기에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비취업 청년의 빈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16]에는 가구유형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배우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4~6%에 불과하였고, 무배우·유자녀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54%였으며, 무배우·무자녀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89%로 매우 높았다. 즉, 앞에서 살펴본 청년의 연령, 학업상태, 경제활동상태보다 결혼·출산이 부모와의 동거를 가장 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34세 청년의 0.4%를 차지하는([그림 2-4] 참조) 소수의 무배우·유자녀, 즉 한부모 청년의 54%는 부모와 동거하였고, 20%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사적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유자녀 청년의 부모 비동거-가구사적이전소득 존재 비율 역시 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자녀가 존재하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는 무배우·유자녀 청년과 무배우·무자녀 청년의 소득 상대평균을 각각 32.4%포인트, 97.4%포인트 증가시켰고, 빈곤율을 각각 19.7%포인트, 51.0%포인트 감소시켰으며, 빈곤갭 비율을 각각 18.2%포인트, 44.6%포인트 감소시켰다. 유배우 청년에게는 부모의 소득·빈곤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적이전은 무배우·유자녀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켰고,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각각 1.5%포인트, 4.7%포인트 감소시켰다. 이 절에서 구성한 다양한 청년 하위집단 중에서 사적이전이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된 집단은 무배우·유자녀 청년이 유일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사적이전이 한부모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무배우·유자녀 청년의 가처분소득 빈곤이 매우 높았고, 유배우·무자녀 청년의 가처분소득 빈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행기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규교육 완료, 입직, 결혼, 출산 같은 생애사건이 청년의 부모 동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34세 청년의 특성과 부모 동거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청년, 취업하지 않고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가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학·휴학-비취업 청년과 무배우·무자녀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각각 98%, 89%로 매우 높았고, 유배우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4~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행기 청년의 연령과 소득·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면,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연령이 증가할 때 한편으로 청년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획득한 취업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 동거 비율이 낮아지면서 부모가 청년의 가구 취업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결과, 청년의 가처분 소득과 빈곤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부모 동거의 관계가 대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이행 초기 청년은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구소득을 확보하고 빈곤을 방지하며, 30대의 이행 후기 청년은 입직, 결혼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보하면서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하여 독립한다.

이처럼 주로 부모 동거 덕분에 약 90%의 청년은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지만, 약 10%의 청년은 이행기에 빈곤을 경험한다. 비빈곤 청년에 비해 빈곤 청년은 대학(교) 진학률이 낮고 노동시장 지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더 빨리 독립하여 부모 동거 비율이 낮다. 빈곤 청년은 20대 초반의 이행 초기에는 주로 부모와 동거하지 못하거나 동거 부모의 취업소득 수준이 낮아서 빈곤하고, 30대 초중반의 이행 후기에는 주로 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소득 수준이 낮아서 빈곤하다. 청년의 특성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청년, 정규교육을 완료하였지만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빈곤 수준이 높았고, 특히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년의 빈곤 수준이 매우 높았다. 무배우·유자녀 청년은 54%가 부모와 동거하고 20%가 중위소득의 14.7%에 해당하는 수준의 사적이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33.6%, 빈곤갭 비율이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으로 부모 동거에 비해 사적이전은 청년의 소득·빈곤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은 평균적으로 사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지출이 커서 사적이전이 소득을 소폭 감소시켰고 빈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체로 청년의 연령, 학업상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사적이전 실태의 차이 역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정의와 사적이전소득 측정 방법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조사된 청년이 가구 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을 포착하지 않고, 결혼이나 주거독립 과정에서 부모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회성 대규모 이전을 조사하지 않는다. 단,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년은 이 장에서 살펴본 청년 하위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사적이전의 소득 증가 효과와 빈곤 감소 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사적이전은 무배우·유자녀 청년의 소득을 중위소득의 1.6%만큼 증가시켰고,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각각 1.5%포인트, 4.7%포인트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부모 청년의 사적이전 실태를 해석할 때 무배우·유자녀 집단이 19~34세 청년의 0.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과 부모의 지원

제1절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

제2절 대학교육과 부모역할의 연장

제3절 노동시장 진입 전략과 위험 대응

제4절 투자로서 성인이행기 부모 지원

제5절 소결



제 3 장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과 부모의 지원

제1절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

1. 연구 설계

제2장에서는 소득통계자료를 통해, 청년세대의 연령별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자립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이행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족이 이행기 청년 자녀의 생애과정 위험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제2장의 총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구체적인 세대 간 가족 경험을 통해 확증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이행기 청년의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 대응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2023년에 실시한 청년세대와 그들의 장년 부모세대 대상의 일대일 심층면접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인이행기의 실패와 가족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각각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청년과 부모 모두에게 성인이행기는 열린 가능성의 시기이자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보하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 참여자에게는 성인이행 과정에서 각 시기에 경험했던 생애과정의 위험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 위험을 감수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가족에 대한 기대의 형태와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모의 지원과 의존, 독립에 관한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

행되는지,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한다는 규범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부모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성인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지원한 내용과 방법, 자녀 지원의 의미는 무엇인지와 함께,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와 본인의 위험에 모두 대응하기 위한 비중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언제까지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큰 범위의 주제에 따라 미리 준비했지만, 연구자가 대화의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방식을 유동적으로 바꾸어가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Rosenthal, 2018).

2. 자료 수집 절차

대상자의 표집은 연구 목적에 ‘적절하며 충분한’(Morse and Field, 1995; 신경림 외, 2004: 50에서 재인용) 개별 심층면접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중 기준 표집(criterion sampl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청년세대의 경우 19~34세, 부모세대의 경우 19~34세 자녀를 둔 64세 이하로 각각 두었으나, 고등교육이 대체로 완료되는 시점과 취업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기 초기(19~23세)와 그 이후(24~34세)로 청년 참여자 및 부모의 자녀 연령대를 구분하였다. 또한 청년 참여자 및 부모 참여자 자녀의 취업 상태, 혼인 상태별 지원 현황과 이행기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 상태 및 혼인상태도 표집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취업한 청년 참여자의 경우 종사상지위 및 월평균 임금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며, 부모세대는 본인(부부)의 자산 및 자녀 증여 현황을 선정 기준에 포함하였

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생계 및 의존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동거 여부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기준 설정 및 주요 모집을 2회(전·후반기), 추가 모집을 1회,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반기 자료 수집은 2023년 8월 초에 진행하였으며, 이때 도출된 잠정적 결과(provisional result)를 토대로 하반기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진행하였다. 9월 초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분석을 진행하였고, 부모의 자녀 지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1월 기존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 1인과 신규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 1인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1월에 추가로 모집한 연구 참여자(P12)와 연구진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참여자(C10)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는 전문조사기관에 모집 및 장소제공을 의뢰하였다. 조사기관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 및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유선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피력한 청년과 청년세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3-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구분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청년세대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모집 (총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3세 - 24~34세 구직자 - 24~34세 부모 동거 미혼 취업자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대졸자 및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 1인 가구 미혼 취업자 - 30~34세 기혼 유자녀 정규직 취업 여성 • 2차 모집 (총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취업자 - 비수도권 출신 취업자 - 어학연수/교환학생/해외 유학 경험자 -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구분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부모세대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모집 (총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세 비취업 자녀와 동거 중인 여성 - 25~34세 취업한 자녀와 동거 중인 취업 여성(월평균 임금 250만 원 이하) - 25~34세 구직자 자녀와 동거 중인 남성 - 25~34세 미혼 자녀와 따로 사는 여성(취업자, 비취업자) - 기혼 자녀(딸)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자산 15억 원 이상 대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모집 (총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자산 증여(2억 이상)를 한 남성 및 여성 - 기혼 자녀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모집 (신규 참여자 1명, 추가 인터뷰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 참여자 중 기혼 자녀를 둔 여성 - 자녀가 최근 성인이행기의 주요 사건(취업 및 결혼)을 경험한 여성

자료: 저자 작성.

면접은 참여자당 1회씩(P07은 2회) 조사기관의 면접실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연구 설계 및 수행 절차에 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기준을 적용하고 승인을 거쳤으며, 실제 연구 수행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및 활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서면을 통해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를 거쳤다. 면접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면접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총 27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15명, 12명이었다.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9명, 6명이다. 청년 참여자의 연령대는 23세(2000년생)부터 34세(1989년생)까지 분포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참여자, 대학생, 구직자, 취업자,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자 등 성인이행기의 각 시기에 있는 참여자를 다양하게 모집하였다. 한 명을 제외한 14명의 참여자가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으며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연구 참여자 15명 중 7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8명은 부모와 주

거를 분리하여 생활하는데, 이 중 3명이 기혼자로 배우자(자녀 포함)와 동거 중이다.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미혼 참여자 5명 중 4명은 부모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을 계기로 서울로 이주하였다.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의 개별 특성은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번	성별	출생 연도 (나이)	혼인 상태	거주형태	최종 학력 (지역)	현재 직업 (종사상지위)	이행 상황				
							졸업	구직	입직	이직 (회)	안정 도달
C01	남	1996 (27)	미혼	1인 가구	대졸 (경기)	동영상편집 (프리랜서)	○	○	○	2	-
C02	남	2000 (23)	미혼	부모 동거	대학 재학 (서울)	대학생 (학생)	-	-	-	-	-
C03	남	1998 (24)	미혼	부모 동거	초대졸 (서울)	구직 중 (구직자)	○	○	○	2	-
C04	여	1989 (34)	미혼	부모 동거	초대졸 (서울)	사무직 (정규직)	○	○	○	3	○
C05	남	1992 (31)	미혼	1인 가구	대졸 (부산)	IT 개발자 (정규직)	○	○	○	2	○
C06	여	1995 (28)	미혼	부모 동거	대졸 (경기)	사무직 (정규직)	○	○	○	3	○
C07	여	1990 (33)	기혼	배우자 자녀동거	대졸 (서울)	간호사 (정규직)	○	○	○	1	○
C08	남	1991 (32)	기혼	배우자 자녀동거	대졸 (강원)	경찰 (공무원)	○	○	○	-	○
C09	남	1992 (31)	미혼	1인 가구	대졸 (강원)	사무직 (정규직)	○	○	○	2	○
C10	남	2000 (23)	미혼	부모 동거	고졸 (세종)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	○	○	1	-
C11	남	1997 (26)	미혼	1인 가구	대졸 (강원)	사무직 (계약직)	○	○	○	1	-
C12	여	1995 (27)	미혼	1인 가구	대졸 (경남)	IT 개발자 (정규직)	○	○	○	-	○
C13	남	1996 (26)	미혼	부모 동거	대졸 (서울)	공기업 준비 (구직자)	○	○	-	-	-

7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연번	성별	출생 연도 (나이)	혼인 상태	거주형태	최종 학력 (지역)	현재 직업 (종사상지위)	이행 상황				
							졸업	구직	입직	이직 (회)	안정 도달
C14	여	1992 (31)	기혼	배우자 동거	대졸 (서울)	사무직 (정규직)	○	○	○	3	○
C15	여	1997 (26)	미혼	부모 동거	초대졸 (경기)	카페 근무 (파트타임)	○	○	○	2	-

자료: 저자 작성.

청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는 12명이며 남성과 여성이 각각 3명, 9명이다. 부모세대 참여자의 연령은 50세(1970년생)부터 64세(1959년생)까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기혼자이며, 여성 연구 참여자 9명 중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전업주부로 남편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성 참여자 3명 중 2명의 아내가 전업주부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로 남성이 주 생계부양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의 평균 가구소득은 월 695만 원(응답자 추정, 세후)으로 50대 가구 평균소득 674만 원(세전⁸⁾)보다 상위에 있다(통계청 가계복지금융조사, 2022: 28). 12명의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 중 4명은 배우자 혹은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은퇴자인데, 이들 중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한 연구 참여자(P04, 월 700만 원)도 있는 반면, 공적 연금액(30만 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하여 은퇴 후 재취업한 사례(P07)도 있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P08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 동거 상황을 살펴보면, P10을 제외한 11명의 연구 참여자가 한 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 중 4명이 두 명의 자녀와 모두 동거하고 있다. 자녀의 학업 및 노동시장 이행 상황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과

8) 2021년 50대 가구주 가구소득 평균소득 8,086만 원(세전)을 12개월로 나눈 값. 통계청 (2022. 12. 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2053에서 2023.11.30. 인출.

관련되어 있으나,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자녀가 구직 중인 경우와 입직과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안정적인 지위에 도달한 경우로 다양하다.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의 개별 특성은 <표 3-3>에 정리하였다.

<표 3-3>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번	성별	출생 연도 (나이)	최종 학력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세후 가구 소득 (월)	자녀의 이행 현황						
							출생 연도	부모 동거	대학 졸업	구직	입직	안정 도달	결혼
P01	여	1965 (58)	초대졸	간호 조무사	공무원	700	1995	o	o	o	o	o	-
							1996	x	o	o	o	o	-
P02	여	1973 (50)	대졸	전업주부	사업 (IT관련)	1000	2001	o	-	-	o	-	-
							2005	o	-	-	-	-	-
P03	여	1959 (64)	대학원 졸	프린터 번역가	은퇴자 (대기업)	490	1988	o	o	o	o	o	-
							2007	o	-	-	-	-	-
P04	여	1961 (62)	대졸	은퇴자 (교사)	은퇴자 (대기업)	700	1987	x	o	o	o	-	o
							1989	o	o	o	o	o	-
P05	남	1968 (54)	대졸	사무직	요양 보호사 (시간제)	780	1995	o	o	o	o	-	-
							1997	o	-	-	-	-	-
P06	여	1970 (53)	고졸	전업주부	행정사	750	1996	x	o	o	o	o	-
							1997	o	o	-	-	-	-
P07	여	1964 (59)	고졸	전업주부	은퇴자 (운송업)	295	1990	x	o	o	o	o	o
							1992	o	o	o	o	-	-
P08	여	1968 (55)	고졸	전업주부	은퇴자 (공무원)	550	1999	o	-	-	-	-	-
P09	여	1969 (54)	대졸	유치원 특수교사	공무원	980	1996	x	o	o	o	o	-
							2000	o	o	o	-	-	-
P10	남	1963 (60)	대학원 졸	부동산 중개업	작가	850	1987	x	o	o	o	o	o
							1988	x	o	o	o	o	o
P11	남	1965 (58)	대졸	시설관리 팀장	전업 주부	500	1995	o	o	o	o	o	-
							1997	o	o	o	-	-	-
P12	여	1967 (56)	고졸	마트 계산원	회사원	650	1992	x	o	o	o	o	o
							1995	o	o	o	o	o	-

자료: 저자 작성.

3. 자료 분석 절차 및 분석틀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필사되어, 녹음파일의 음성과 녹취록을 대조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다. 검토가 완료된 녹취록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⁹⁾ 김인숙(2016)이 제시한 ‘귀납적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경험적 자료인 녹취록을 근거로 성인이행기 위험과 가족의 대응이라는 현상을 관통하는 ‘주제(theme)’를 찾고자 하였다. ‘귀납적 주제 분석’의 결과인 ‘주제’는 현상의 구조와 과정, 유형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개념이며, 자료 자체로부터 도출된다(김인숙, 2016: 264). 연구자들은 주제를 찾기 위해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각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동기, 경험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턴을 범주화하고 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료를 해체하고, 분류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분석을 정교하게 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패턴, 범주, 개별 사례 간 ‘지속적 비교하기(constant comparison, Glaser and Strauss, 1967)’와 ‘맥락으로 돌아가 다시 숙고하는(Coffey and Atkinson, 1996: 37, 김인숙, 2016: 351 재인용)’ 분석 전략을 채택했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며 성인이행기의 각 과정의 특성,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현상 중 눈에 띄는(emerging) 내용을 부호화(coding)하고 패턴과 범주를 임시적으로 명명하고, 각각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부호화 작업은 자료 관리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패키지인 ATLAS.ti(23 및 웹 버전) 소

9) 참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중 지시하는 바가 명확한 대명사, 단어의 단순 반복, 명백한 단어 실수, 과도한 추임새 등을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연구자가 윤문하였다. 다만, 언제든지 원자료의 맥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원자료인 녹취록은 연구 참여자가 말한 대로 전사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분석 패키지는 연구자들이 부호화의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웹 버전 활용), 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구(quotations)로 분리한 뒤 패턴과 범주별로 재배열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언제든지 원자료의 맥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그런데 초기 분석(부호화)의 결과로 생성된 부호와 인용구에서는 곧바로 '주제'를 도출할 수 없으며, 주제 도출을 위해서는 부호와 인용구를 범주화 등을 통해 2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셀다나, 2012, p. 33). 연구자들은 부호를 연구의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주제 도출을 위한 사고의 '수단'으로 보고(김인숙, 2016, p. 306) 초기 분석에서 도출한 인용구과 부호, 녹취록(문서)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각 인용구가 진술하는 사건의 패턴을 범주화하거나 패턴 간의 관계를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 패키지(ATLAS.ti 23)의 그룹 지정(grouping) 기능과 네트워크(networks) 기능을 활용하였다.¹⁰⁾ 분석 과정을 거친 후 총 853개의 인용구, 조작부호를 포함한 505개의 부호, 19개의 부호 그룹, 14개의 네트워크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심층면접 분석 결과 도출된 성인이행 과정의 주요 개념과 범주는 <표 3-4>에 정리하였다.

10) ATLAS.ti의 '네트워크'는 인용구, 부호, 부호 그룹, 문서 등 각 개체(entities)를 시각적으로 나열하고 도식화하여 패턴과 범주의 관계를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자적 도구(tool)이다(Friese, 2019: 192).

76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표 3-4〉 개별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대학교육과 부모역할의 연장	대학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일단 가야 하니까. 대학은 성적에 맞춰서,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음,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툼, 지원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마련하여 해결하기 •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사교육비를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움, 사교육은 아이가 따라 주어야 지원이 가능, 자녀의 진로를 조언하고 지원하기, 중산층 엄마의 교육열
	대학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브랜딩, 가능성의 시기, 자아를 탐색하기, 사회 경험과 태도 습득하기, 부모님은 길만 살짝 열어 주시는 분, 동기부여, 대외 활동, 교환학생, 어학연수, 감당 가능한 계획, 자기 관리, 허송 세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라도 했더라면
	부모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까지는 돈 걱정하지 않도록, 장학금은 아이들에게 줬음, 다 사줬죠, 식비는 내줄 수 있지만 술값은 내가 내라, 방청소는 스스로 • 스무 살까지만 지원, 예상치 못한 사건, 학자금 대출, 국립대 입학
	혼자 힘으로 대학 다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손벌리고 싶지 않아, 먹고는 살았어요, 학자금대출 • 부모님 나름 최선을 다해, 자립 능력을 길러, 아쉬움
노동시장이행 과정	불안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여주고 재워주는 가족,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 실현, 괜찮은 일자리, 사람 대접 받기, 타이밍이 중요, 취업을 위해 경험이 필수,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 소속감의 부재, 취업 준비 방법을 모름 • 예전에는 수월했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모름, 워낙 취업문이 좁으니까
	일단 나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 이후에는 독립해야, 언제까지 받고 살 수만은 없다, 성공으로 가는 다른 가능성 상상하기, 플랜 B 준비하기, 첫 번째 직장, 이직과 퇴사의 반복, 불안정한 저숙련 일자리, 재계약 불발, 불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음, 돈 벌며 스펙 쌓기
	전적으로 지원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부모 지원이 필수적임, 일자리 정책과 구직훈련 프로그램 개선 필요, 내일배움카드와 공적 취업지원 패키지 활용, 경쟁 부담,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 준비, 장기화된 구직, 장기 미취업 위험, 친구들도 안 만나고, 쥐 죽은 듯 알바만 하고, 어머니한테 빌붙어 산 거죠.
	투자로서 자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내가 잘되는 게 값은 길 • 졸업 전 취업 실패, 공기업, 공무원 시험, 일류기업, 아직은 기다려 줄 수 있어, 스펙을 쌓아, 압박감 • 다른 부모들은 더 지원함. 내가 조금 힘들면, 발판이 되어주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안정기 가족 동거 및 지원 변화	안착하여 완전한 어른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정시퇴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직장 내 강한 노동 조합, 취업이 되어야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음, 내 담당업무가 생김, 자율성, 직급상승, 자기가 벌어들인 자기가 쓰는 경험,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하기, 적금 통장 붓기와 가계부 쓰기
	자녀의 자산형성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이후 달라진 자녀의 발언권, 자녀의 경제적 독립 선언, 개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기, 대기업의 근무조건이 더 나음, 자산형성 방법 조언하기, 자동이체로 저축 유도,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기, 선호하는 지원 방법이 따로 있음, 자산형성 후 결혼, 자녀 결혼은 숙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와 육아 부담
	안정기 동거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생활비 부담, 무전 세입자, 독립하려고 노력함, 완전한 독립의 조건, 같이 사는 게 가장 큰 지원, 일찍 독립하면 손해, 부모와 동거하며 돈 모으기, 동거하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
	결혼 또는 독립을 위한 지원(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에게 돈 빌리기, 도와주시지 않을까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안 좋고, 애 낳아야 한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낳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과거 부모의 결혼비용 마련, 결혼퇴직, 결혼해도 일은 해야, 우리는 얼 만큼 해주어야 하나, 증여 계획 있음

자료: 직접 작성.

제2절 대학교육과 부모역할의 연장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이행기를 사회 적응과 원가족 극복이라는 ‘이중과제(double-task)’를 수행하는 시기로 바라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규교육 완료 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과 사회적 소속을 확보하여, ‘사회적 성인’이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부모에 대한 의존상태의 극복은 이행기 청년과 부모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이행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하의 절에서는 성인이행기를 자율성과 자립의 확보라는 과업을 달성해가는 시기로 간주하고, 이러한 과업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실천을 사회제도적 환경(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청년지원제도, 주거제도 등)과 그로 인한 위협, 위험인식, 전략 등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1. 대학 준비기와 성인이행기의 첫 관문으로서 대학 진학

청년세대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한 명(C10)을 제외한 14명의 참여자는 대학(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 이들은 다양한 계층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통해 성인이행 과정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 자녀 관계는 대학입시와 대학 진학이라는 제도화된 이행 절차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었다. 부모와 자녀는 “일단 대학은 가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여력과 자녀의 교육 의욕과 성적 등에 따라, 부모 지원의 형태는 고강도 교육투자와 사실상의 방임 등으로 분화되지만, 이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교육기관과 교육제도에 의해 거의 규정되는 양상이다. 특히 고교 졸업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4년의 교육기간이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은, 초기 성인기의 과업으로 거론되는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 등의 요구로부터 10대 후반 고등학교 재학 시기를 분리한다. 개인적인 생애 경로와 목표의 설정은 당장 고등학교 재학 중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로 미뤄야 할 질문이 된다.

고1이 되고 나서 당장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대학교는 일단 가야 되니까.** (...) 부모님과 상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도 딱히 딱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고, 부모님도 그냥 집 주변에 있는 곳을 가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딱히 어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C02, 2000년생, 대학 재학 중)

‘일단 대학은 가야 한다’는 데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청소년기(중고교 시기)의 이행 과업을 명료화하고 또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 지원의 내용과 성격도 ‘일단 대학’에 맞춰지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 중산층 가족에서는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집중 투자를 하고 부모의 높은 학력 자본이나 문화 자본을 활용하여 자녀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P02, P03, P06, P09, P11 등).

반면 사교육에 투여할 자원이 부족한 가족에서는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을 한 청년 참여자들은 부모가 사실상 방임한 상태에서 스스로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며 학교와 학과를 선택했다고 회고했다(C03, C08, C09, C10).

2. 대학 준비기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연구자들은 본격적으로 청년의 부모-자녀 지원 관계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로 부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 자녀 양육 경험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교육지원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부 고소득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작하여 대학입시 때는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입시 준비 사교육에 투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P01, P02, P06, P11). 그러나 대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과지도, 영어교육, 미술, 무용, 각종 스포츠, 악기 등의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등, 아동기 자녀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지원하다가 점차 지원 규모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중고교 이후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았고 본인이 알아서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말한 청년들도 초등학교 때는 이런 저런 학원을 다니거나 예체능 사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전적으로 부모의 주도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라면,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자녀의 사춘기를 분기점으로 자녀 자신의 특성과 의사도 부모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부모는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녀가 더 이상 따라 주지 않으면 실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에서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경기도 분당에서 20년 이상 거주 중인 P06은 첫째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과도했던 교육열이 결국 자녀의 한계와 거부라는 자녀 요인에 의해 꺾이게 되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특히 첫째 아이의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여하고 자녀를 강하게 압박했었다. 아이의 제한적인 능력치, 아이의 거부 등을 경험하면서, 초보 부모로서 아이에게 걸었던 기대를 서서히 내려놓았다고 진술했다. P02는 서울 서초구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집을 줄일지언정 필요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않았었다고 회고했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P02는 자녀를 극단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고, 그 덕분에 자녀가 그리 좋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는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첫째에 대한 기대는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대했죠. 그래서) 솔직히 첫째에 올인을 많이 했어요. 학원이나 그 아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첫째를 되게 무시한(압박한) 일이 많았어요. 뭐를 해도 무시무시하고. (...)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춘기가 왔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 그거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는 이 아이의 능력치 인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이를 너무 잡도리를 했다. (P06, 1970년생, 전업주부, 고졸)

저는 그냥 타이거맘처럼 그렇게 어쨌든 많이 시키긴 했지만 너무 처벌을 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저도 성격이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가 이 정도로 **좀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고 적당히 그렇게 했던 게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P02, 1973년생, 전업주부, 대졸)

경제적인 압박도 과도한 지원 동기를 억누르도록 만드는 힘 중의 하나였다. P02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고 했지만, P06, P11은 월급으로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P01은 남편의 경제적 실책으로 사교육 비용이 부족하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투잡을 하여 자녀교육비를 마련할 정도로 사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는 크게, 제가 더 가르치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 돈은 어떻게 당기면 집을 줄이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시켜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남편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제가 저 집에는 뭘 가르치는데 우리 애들 못 가르치고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비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소한도로 이 정도 가격 대비 성능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냥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P02, 1973년생, 전업주부, 대졸, 자녀 2명)

진짜 너무너무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남편의 수입으로는 남편이 그 사고를 내면서 큰 돈을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생활비를 못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이걸 내가 버텨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밤에 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을 계속 하다가, 둘째까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일을 하나만 하게 됐어요. (P01, 1965년생, 여, 간호조무사, 초대졸)

두 명의 딸을 둔 P07은 자녀 모두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했고, 고교 계열선택이나 대학 전공선택 등도 모두 자녀에게 일임했다. “엄마 때하곤 달라”라며 두 자녀는 부모의 조언 없이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P07은 본인이 당사자인 자녀들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며,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는 확신도 갖고 있지 않았다. “자기 일이 있어야 하고 결혼한 후에도 (엄마처럼)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자주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커리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없었다.

인문계를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실업계를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하니까 실업계 가서 대학 가는 게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때하곤 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대학 갈 때 이렇게 먼저 선택해서 가는 (연구자: 수시요?) 네. 수시에 지원하기가 더 편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머리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시험은 볼 건데 시험 보기 전에 자기는 이미 붙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대. 그래서 (...) 나는 이제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존중하는 자체.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잘 해라.** (P07, 57세, 전업주부, 고졸)

자녀의 청소년기는 부모의 노동생애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중장년층의 노동생애에서 이직, 실업, 사업실패, 재취업 등의 부침은 예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부모의 실직, 자영업 등 사업실패, 재취업, 그리고 이혼 등이 자녀의 10대 중반 이후와 겹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고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서는 특히 계층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양육기 동안 자녀돌봄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취업을 다시 재개하는 시기도 이 시기이다. 경제적인 긴급성 때문에 취업한 어머니들은 노동시간을 더 늘리기 때문에 중고교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 정서, 가사 및 돌봄 등의 지원을 축소한다.

P12도 자녀교육에 열성적인 엄마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을 지원할 수 없었다. 더욱이 결혼하면서 전업주부로 약 10년을 살다가 자녀의 중고교 시절부터 소득 별이를 위해 생산직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다. 전업주부 시절에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여행, 문화행사 관람, 운동 등에 자녀를 동반하여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양육관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주말에 자녀를 위한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기가 어려웠다.

부모 참여자의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 지원 경험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지원 열망을 갖고 있었으나, 자녀의 자발성과 능력, 부모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점차 지원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기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특성화고를 진학한 청년 연구 참여자(C15)나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 중 자녀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경우(P07, P08), 자녀가 먼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부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사례이다. 부모 역시 자녀의 사춘기에 갈등을 겪거나(P09),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P06),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원하는 바를 지원한다(P07, P08, P12).

이러한 측면은 자녀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일부 청년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진로(전공학과 선택)에 대해 이미 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수용해 주었다고 했다(C02, C06, C13). 그러나 더 많은 청년들은 고교 진학을 포함하여, 대학입시와 진로 선택에 대해 부모가 사실 잘 몰랐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방임적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C03, C08, C09, C10).

중고교 교육은 제도화된 영역이다. 제도화된 커리큘럼과 평가체계, 무상교육, EBS 인터넷 강의, 진학지도 등이 학교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 제도로 인해, 대학 진학 그 자체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으며, 이미 10대 중반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자녀세대가 부모의 직접적인 조언 없이도 성인이행기 첫 관문으로서 대학 진학을 실행할 수 있다.

3. 대학교육 기간과 부모 동거 기간의 연장

가.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1966~1970년생 남성의 53.3%와 여성의 63.6%가 고졸 이하 학력인 반면, 1986~1990년생의 고졸 이하 비율은 남성 32.0%, 여성 24.2%로 크게 감소하였다(최선영, 이지혜, 윤탈영, 2022, p. 46). 대학 진학 인구의 확대는 집합적 측면에서 성인이행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학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성인자녀는 부모와 동거하며,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각종 부가적인 교육비용 및 개인관리 비용 등의 지원을 받는다(최선영, 2022).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가족이 대학 진학을 추구하는 것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직면하게 될 유리함과 불리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진학을

상승 자체를 성인이행기 생애과정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 졸업장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학 진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있다. 대졸 학력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실패하고 오랜 실업기간을 보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위계서열에 따른 프리미엄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는 대학 학위 같은 제도적 보증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또는 ‘평판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만으로 높은 보상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전공 이수와 졸업장에 추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이 늘어날수록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대학에서는 신청, 선발, 비용 보조 등의 방식으로 정규 전공과목 이외의 취업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과 강의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개별적으로 획득한 정보와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시간적, 경제적 자원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진다.

C02는 이제 막 군대에서 복학했으며, ‘마케팅 서포터즈’ 등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들자,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했다. 그에게 사회 진입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를 ‘브랜딩’(branding)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취업 면접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자신의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미래 자소서의 내용을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복학 후 대학생활의 목표가 되었다.

C02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기 브랜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해외체류 경험과 영어 실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학기에는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 생각이다. 부모로부터 큰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처럼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는데, 집중적인 소득 벌이를 위해서는 휴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데 성공한 연구 참여자들은 활발한 대외 활동과 인턴 경험 등 대학생활 동안 이루어졌던 적극적인 '취업준비'('취준')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외국계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C14는 외국대학 교환학생 경험이 가장 중요했고, 그 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C09도 세 번째 직장인 현재 직장에서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역시 군 제대 이후 '각성'하고 적극 참여했던 각종 대외활동 경험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다.

교환학생 갔다 온 경험이 크게 도움 됐고, 대학교에서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엑셀 같은 거 직장에서 많이 쓰는 거 특강도 있었고, 방학 인턴도 면접을 대학에서 따로 봐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사람들 기업에 보내는 것도 잘 돼 있는 편이어서.** (C14, 1992년생, 31세, 여, 외국계 기업 사무직)

어느 정도 좀 **성숙을 했다 보니까, 일도 좀 하고 싶었고, 나도 뭔가를 해내고 싶었고** 그런 시기였어요. (...) **대외 활동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덕분에 **취직도 빨리 할 수 있었고,** 전역하고 나서 후반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제일 운이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C09, 1992년생, 31세, 남, 사무직)

그러나 C14와 C09도 나름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이력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은 계약직이고 임금수준도 낮았었다. 스스로도 말하듯이 현재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취를 대학생활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온 투자

에 대한 수익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거울상의 이면으로서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즉 “허송세월”로서 대학 시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은 취업실패 경험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란 단지 ‘전공 공부’만 하면서 허송세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비 사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읽고, 그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신과 대학생활을 탓한다.

C05는 자신의 대학생활을 ‘허송세월’이라고 평가한다. 경남권의 국립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한 이후 하향 취업한 계약직 일자리(에어컨 설치기사)에 불만족하여 퇴사했다. 이후 정부의 민간위탁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거쳐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의 현재 직업은 대학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그는 해외 경험도 없고 대외활동 이력도 없다. 그의 말대로 그는 대학생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처럼 해외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 인턴 경험, 대외활동 등 입사원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사실상 취업준비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모든 대학생활은 이 기준에 따라 넘치거나 모자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불만족스러운 처우의 현 직장, 또는 계속되는 구직실패 등의 경험이 추가되면,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한계가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원인으로 부상하게 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어쨌든 학교라는 틀 안에서 강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 자율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자율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해이해져서 학업이나 따로 개인적인 계발 같은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C05, 1992년생, 31세, 남, IT 개발자)

C03도 자신의 대학생활이 전문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첫 직장이었던 요양시설에서 실망하고 퇴사한 다

음 노동시장에 나오기 전에 자신이 너무 “무사태평”했고, “안일했다”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

공부만 잘하고 취업 자격증만 따도 바로 취업해서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무사태평했던 게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 그냥 너무 후회 되었고.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적당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격증 같은 거 엑셀이나 워드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기 산업 관련 산업기사 기능사 그런 거 위주로 그런 걸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C03, 1998년생, 초대졸, 남, 구직 중)

서울 소재 명문사립대를 졸업한 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다. 졸업 후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C13은 “전역 이후의 학기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다른 쪽으로 마음을 잡았더라면, 혹은 조금 더 빨리 이런 멘탈 수습이나 혹은 본격적인 어떤 장래 준비에 들어갔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어진 이야기에서 그 당시로 돌아가도 쉽지는 않았을 것임을 인정한다. 그는 민간 기업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신,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철학과 복수전공을 한 것이 그러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는 “대학생활 동안 한 게 없으니까 거기 적을 내용이 없는”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주로 선택하는 ‘시험’ 준비(공기업 입사 준비)에 들어갔다.

더 어려운 거는 그 시기마다 해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되게 모호하게 요구, **요구되는 방식이 되게 모호해서**, 그 당시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지나친 것에 대해, 지나고 왔더니 ‘너 이거 했어야 됐어’라고 따져 묻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걸 다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었구나. 필수 사항이었지'라고 인정하게 돼요.

(C05)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매일의 일과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수업 이외의 시간을 어떤 활동에 써야 할 것인가에서 청년 본인이 갖는 재량권은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 '자율성'은 개인의 선택 가능성의 확대보다는 노동 안정성(취업)에 도달해야 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알아서 해(do it yourself)'에 가깝다(Beck, 1992; 김영, 황정미, 2013).

C02처럼 사전에 준비를 하든, C03이나 C13처럼 뒤늦게 깨닫게 되든, 성인이행기로서 대학생들의 성공은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2~3년제 전문대를 나온 참여자들은 4년제 대학 진학자가 누리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자신들은 거의 누릴 수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대는 교육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수업 과목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어진 '시간표'와 '분반'을 따라가야 한다. 대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적다. 취업에 관해서도 전공을 살리려면 한정적인 분야의 중숙련 이하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대 출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대학생활에 대하여 '기대 이하', '고등학교의 연장'(C04)이라고 평가한다. 전문대 유아 특수교육과에 진학하여 졸업하자마자 20대 중반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건강 문제로 퇴직하고 현재는 카페에서 주 2회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전직을 고민하고 있는 C15는 대학생활에서 했어야 할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중간중간에 휴학을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휴학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휴학을 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고 보는 시야를 넓

‘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만이 길이 아니라, 다른 곳도 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C15, 1997년생, 26세, 여, 전문대 졸업)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대신, 스스로 동기 부여하여 자기 삶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구한다. 성인이행기, 그중에서도 대학생활은 그러한 자기경영의 현장이 되었다. 대학 진학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늦추고 그에 따라 부모와의 계속 동거 및 경제적 의존의 지속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학위와 진로 탐색, 그리고 해외 경험,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 선후배 비공식 네트워크 등 성인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탐색과 자기계발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떠밀리듯 노동시장에 나가는 비진학자 고졸 청년이나, 2년제 전문대졸 청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 기간은 대학 진학 이전의 미성년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면, 미성년기와 다르지 않다. 청년 참여자 C15는 대학이 필수적이라면 대학교육 비용도 부모가 부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가 사회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 등록금까지인 것 같아요. (...) 제 친구의 경우는 가정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계속 알바를 하고 그랬는데. (...)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부모님이 날 놓아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서. (C15, 1997년생, 26세, 여, 카페 아르바이트)

실제로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사례(C08)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적어도 첫 학기 대학 등록금과 동거 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았다. 대학을 타지역으로 진학하여 물리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자녀는 부모와 동거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주거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고 기숙사 혹은 대학생 대상 사회주택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대학 진학을 계기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기숙사나 자취 형태로 주거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부모는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용과 용돈까지 지원했다.

부모 참여자들은 “등록금까지는”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대학생 자녀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자녀 참여자들 다수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는 부모들은 대학생활 동안에는 근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소모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에 시간을 쓰지 말고, 대학생활을 즐기거나 학업, 취업준비 등 자기 인적 자본에 투자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취직을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 때까지가 제일 즐길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간까지 우리 부부가 능력이 없으면 또 좀 그렇긴 한데,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 시간을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P04, 1961년생, 62세, 여, 교사 은퇴자)

P07은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부담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을 자녀에게 돌려주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등록금을 모두 지원한 것

이다. P07은 부모의 지원책임과 관련하여 대학교육 기간과 그 이후 취업 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즉 자녀가 교육받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까지는 전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이후까지 책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장학금까지 자녀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경제적 부양 몫을 최대한 부담한 것이다.

그 장학금 탄 거 그대로 애들한테 다 줬어요. (...) 이미 등록금을 준비해 놓았
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나온 거는 '네가 노력해서 탄 거니까 그냥 저금을 하든
쓰든 알아서 해'라고 했죠. 모아놨다가 대학교 가서 해외여행을 가든, 노는
물도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하면서. (P07, 1964년생, 59세, 여, 전업주부)

반면,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 대학생화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여부는 개별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자녀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경제적 동기도 작용하였지만, 자녀에게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동기도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가 주는 용돈의 한계를 넘어 소비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완전한 성인은 아니더라도 '준' 성인 정도의 책임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 소득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앞의 C05처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든지, C06처럼 해외여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휴학을 하고 소득 벌이에 나서는 사례가 있었다.

휴대폰 교체하는 거, 옷 사 입고 화장품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사줬죠. 용돈은
카페 가거나, 모아갖고 여행갈 때도 '엄마 나 여행 갈 때 이만큼이 부족한데
나중에 갔다 와서 줄게요. 빌려주세요'. 딸 같은 경우는 '빌려주세요'. 그래서
돈 주면 입 싹 닫고. 그 부분이 안 좋아서 '빌린 거는 빌린 거니 내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 빌린다는 표현을 썼으니 빌린 거는 꼭 줘'.
(P06, 1970년생, 53세, 여, 전업주부)

생활 지원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협상에 따라 미성년 시기와 동일하게 부모가 모든 가사 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성인자녀의 개인 공간을 스스로 청소하게 하거나(P06) 분리수거 등을 분담하게(P05) 한다. 부모 세대 연구 참여자는 이를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한 전략이라 본다.

대학에 진학한 연구 참여자는 전공 과목 이수와 더불어 교환학생, 학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외활동 등을 대학 내 공고 및 선후배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원을 통해 접하고 실천하게 된다. 부모는 학비와 주거 등을 여전히 지원하지만, 자녀가 성인이행기에 진입하면 ‘길만 살짝 열어주는’(C06) 보조적인 위치로 물러나고, 고등교육 이수 및 사회 경험의 습득과 같이 적응을 담당하는 기능은 대학과 자녀의 사적 네트워크가 넘겨받는다.

그렇다고 해도 점차 자녀의 각종 활동과 경험은 부모의 후원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교환학생, 어학연수, 여행 등으로 해외체류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학력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애 경험과 정보를 동원하여 대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도 적극 조언하고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영어유치원부터 고액 입시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자녀의 성인이행기를 지원했던 P02는 사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의 부모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C14도 어머니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과 대기업 관리직 아버지의 취업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며, 성인이행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다만 그것은 전통적인 부모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자신의 살아온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요즘 시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 성인이행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로 재규정된다.

스무 살 넘어서 자기가 딱 정한 그 길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10대 때는 학교(대학)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좀 최대한 좋은 학교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지원했었지만, 지금 이제 애가 스물두 살이 돼보니까. (P02)

정보력에 있어서 부모가 조금 빠삭하고 세련돼야만 자녀한테 **요즘 시대에 맞는 솔루션을 줄 수 있지**, ‘내가 아는 사람 은행장인데 말해줘?’ 이런 게 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자기만 자수성가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C14, 1992년생, 31세, 여. 외국계 기업 사무직)

3.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기

미성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거나(C08, C09, C10), 지원하지 못했다는(P01, P07, P12)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10은 어린 시절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청소년기 때부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옷이나 신발 등 사고 싶은 것을 스스로 구입해왔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체육학과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고민했으나,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지 못하여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부모님께서 돈 얘기로 조금 좀 이런 다투시거나 그런 걸 좀 많이 봤었어요. (...) 그런 거를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내가 봐오면서 (...) 계속 돈에 대해 집착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갖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C10, 2000년생, 23세, 남, 헬스 트레이너)

그러나 당장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 C08은 부모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부모의 지원 없이 스스로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떡고는 살았어요”). 그러나 부모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좌절이나 상처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안정적인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 부모님은 **나를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 9만 원을 저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 엄마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나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 근데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9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을 줬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자립할 의지나 능력이 과연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 결혼을 아직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직업도 조금 어중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C08, 1991년생, 32세, 남, 경찰 공무원, 결혼 후 정규직 맞벌이, 자녀 양육 중)

부모세대 참여자들 역시 사업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사회적 지위 하락을 경험한 사례(P01, P07, P12)가 있었으며, 이 시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P01은 두 자녀가 청소년기 시절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남편이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동안, 아내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투잡(two-job)으로 생계와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P01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보다, 자녀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실내화를 어떻게 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빨더라고 엄마 힘들다고. 중학교 때도 여름 하복을 지가 빨아 입고. 아이가 중학교 때 제가 투잡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엄마 잠잘 시간도 없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 빨리 철이 드는 게 속상했었어요. (P01, 1965년생, 58세, 여, 간호조무사)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여력이 없는 경우, 성인자녀들은 미리 그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성인이행기의 의사결정을 한다. 부모가 자녀 용돈 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성인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용돈을 조달할 수 있고(P07, P12), 학업을 중단하는 대신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대학 등록금을 조달한 뒤, 본인이 취업한 이후에 스스로 갚는 선택지도 활용한다. 특히 학자금 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 등은 공적인 자원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4. 성인이행기로서 대학교육 기간의 의미

대학 진학자들의 비율은 크게 늘어났지만, 대학 간의 차이, 대학 안에서의 차이 등 이질성은 더욱 커졌다. 입학과 졸업,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집단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 진학 이후의 경로에서 그러한 집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인이 대학 제도 내에서 스스로 휴학, 복수전공, 편입, 교환학생 등의 옵션을 탐색하고 선택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대학과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대학은 성인이행기의 일반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대학교육 방식의 자율성과 근로의 무로부터의 면제라는 대학생활의 고유한 특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어야 하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개인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사적인 가족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재학 중에 외식업체 서빙, 편의점과 택배, 음식점 도우미, 사무보조, 스포츠강사, 기업 인턴 등 각종 ‘아르바이트 노동’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였다(C01, C02, C04, C06, C07, C08, C10, C11, C12, C13, C14, C15). 어떤 참여자는 ‘아르바이트’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했으며, ‘아르바이트라도 할걸’이라며 후회하고 있었다(C03, C05, C09).¹¹⁾ “주위 친구들도 다 그렇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곧 막연함,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바뀐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시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가 너무 모호하다는 느낌(C13), “나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C06), “이대로 시간 끌면 안 되는데”(C03)라는 조바심을 경험한다.

11) 교수신문의 칼럼에서 한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대학 강의실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금 우리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무엇일까? 아침 첫 시간부터 강의 중에 깊은 잠에 빠진 학생들을 보는 일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깨어 있어도 강의에 대한 반응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도 쉽게 느낄 수 있다. 또 출석만 부르고 나면 교수 눈을 피해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아니 그런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뚜렷이 늘고 있다. 반대로 학생들의 보고서에는 그들의 진심이 나타나 있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보다 알바 노동자로 일하는 시간이 더 보람차고 즐거우며 배우는 바가 많다고 당당히 말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강의실에 끌려 나와 있는 것이다(노종기,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글로벌 대학, 교수신문 2023.12.12.일자).

제3절 노동시장 진입 전략과 위험 대응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여파로 청년실업이 10%를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이래 여전히 10대와 20대의 실업률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실업상태는 아니더라도 정규 교육 종료 이후 노동시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준비, 대기, 탐색 기간을 갖는 사례는 더 이상 낮설지 않다. 실제로 청년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안정된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긴 이탈기간을 갖거나 현재 이탈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개인과 가족은 거시적인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중등교육 시기부터 대학교육 시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진입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자하고 경쟁했지만, 1차 노동시장이나 2차 노동시장 모두에서 신규 진입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이 절에서는 구직 과정에서 이러한 취업난의 어려움에 처할 때, 개인과 가족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나는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다. 고용조건보다는 취업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일단 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일단 취업한 경우에는 다시 나와서,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전략(대응 방식)에 개인이 생각하는 성인 됨의 의미와 부모의 지원과 그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응 전략 1: 일단 취업하기

'취업'은 당사자인 청년들 자신의 가장 큰 욕구이다. 일자리는 소득, 소속, 정체성 등 한 사람에게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

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한 14명의 참여자 중 현재 재학 중인 C02를 제외한 C01, C03, C04, C05, C06, C07, C09, C10, C11, C14, C15 11명의 참여자가 졸업 직후 또는 1년 이내에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단 없이 취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졸업 직후 청년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일단 노동시장에 나가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06(28세, 여)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보여준다. 그녀는 졸업 후 입사 면접을 본 모든 회사에서 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졸업 이후 5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5개월 만에 연락이 온 회사는 재학 중에 계약직으로 일했던 회사였다. 이 직장은 C06이 기대했던 직장은 아니었다. 이미 일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뭘가를 보여 줘야” 했기 때문에 취업 기회가 오자 정규직이라는 것만 보고 바로 입사를 결정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녀는 나중에 취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컴퓨터공학’을 부전공하기도 했고, 인턴과 계약직 등으로 회사생활 경력도 채워 놓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계속 실패하자, 일단 취업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계약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다시 정규직을 제안해서 취업이 됐던 거거든요. **그전까지 면접 봤던 건 다 떨어지고, 그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러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네,’ 이라고 바로 알겠다고 응하고 했던 것 같아요. (...) 그때 당시에 취업을 바로 선택했던 이유는 너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게 그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서. 그냥 취업을 했어요(C06).

실제로 졸업 이후 최대 1년 이내에 취업한 청년들이 ‘선택한’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 파견직 등이고 임금수준도 높지 않았다. 괜찮은 직장의

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은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4년제 국립종합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C05의 첫 일자리는 에어컨 설치기사로 파견직이었고, 서울 사립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았고 각종 인턴 경험과 미국 교환학생 경험도 있는 C14는 중소기업의 대체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다.

C06은 구직기간 동안 심각하게 위축과 고립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청년들에게 있어, 동년배 친구들의 성인이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특히 성인이행의 결정적 국면인 ‘졸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실패의 반복은 동년배들의 이행 대열에서 이탈하여 소외감을 갖도록 한다.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그때 취업 준비할 때 친구들 만나서 딱히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자기의 분야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엄청 심했었고요.** 진로 확정을 못 지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C06).

가족도 유사한 기능을 한다. C06은 대학 졸업 이후 구직기간 중에도 원가족과의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다. 동거가족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떡여주고 재워주고”)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동거가족이 있는 것이 빨리 취업하도록 만든 동기로 작용했다. 가족관계 내에서의 ‘어른으로 인정받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C06이 생각하는 가족의 지원과 부양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한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필수적인(정당한) 의존 기간이 끝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한 단계 성숙한 상태에서 그다음의 지원을 둘러싸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취업만으로 완전한 자립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기적인 소득과 안정된 소속을 부여하는 취업은 가족관계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C06은 가족에게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나눠 가짐으로써 당당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취업 그 자체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어쨌든 취업은 해야 하고. 집이 막 부채가 많고 이런 편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거를 다 물려주거나 저한테 경제적 지원을 강하게 해주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아니라서. 저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C06)

나 그래도 취업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C06)

C06이 바라는 일은 일반사무직이고 정규직과 준수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정규 대학교육을 마쳤으며, 추가적인 자격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사실 C06은 몇 차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인적 자본 투자를 생각해 볼 유인이 별로 없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직 커리어라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인적 자본 투자(어학능력, 세무경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가 취업 당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임금 등 보상 수준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학 중에 컴퓨터공학과 부전공을 한 것이나, 졸업 즈음 세무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한 것은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이미 어디든 취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그 선택지가 바로 (나를) 잡아버린 상황이었어요”).

일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또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른다 해도 (보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맨날 그 분야 일을 해도, 그래서 뭐 무역 잘하는 무역 전문가처럼 잘 한다고 해도, 무역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C06)

입사 지원을 했는데 **다 장벽에 거의 다 막혔었던 거고.** 어 그때 당시가 코로나 확 터질 때여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자꾸 시험 자체가 취소되고 이래서,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길을 파보자 해서, 이제 세무 쪽으로 찾아봤던 거고요. 솔직히 인문계로서 메리트가 없고 취업의 길이 너무 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전공을 컴퓨터공학과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서, 다른 길을 찾다 보니 컴퓨터도 했다가 세무도 했다가 이렇게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시기만 잘 버텼, 그 시기를 잘 버텼던 것 같아요.** (C06)

그리고 ‘당장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제 손 안에 **여러 선택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선택지가 바로 잡아버린 상황이었어요.** (C06)

‘졸업에서 취업으로(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정상적 이행 규범은 여전히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때가 되면 ‘돈을 벌어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인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감안하면, 일단 스스로 돈을 벌어 어른으로 대접받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의 동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졸업 후 구직 시장에 나온 청년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일단 취업하고,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C01은 졸업 후 식당과 카페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을 해왔다.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소방공무원 시

험을 준비했지만, 몸을 다쳐서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10개월 동안 시험 준비를 위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던 경험을 그는 “쪽팔렸다”라고 회고했다. 현재 직업은 동영상편집 프리랜서로 여전히 안정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시험 준비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데 대해 수치심을 느껴왔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양할 책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정규 교육을 마친 시점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의 C06과 마찬가지로, C01은 스스로 돈을 버는 데에서 나오는 인정과 자율성을 중요시하였다.

원래도 부모님이 졸업하면 안 준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 왔어요. 오히려 지원을 받으면 일도 안 하게 되고.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고 싶어서 나갔던 거예요.** (C01, 1996년생, 27세, 남, 졸업 직후 독립)

C09와 C10도 정규교육을 마친 후 지체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이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열악한 근로 조건도 감수하면서 일을 시작했다. 다만 이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남들과 달리 경제 관념과 생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C10), 남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C08), ‘지원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지원이 되었다’(C09)고 생각한다.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 능력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부모의 도움만큼이나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들 봤을 때 돈을 흥청망청 쓰고 경제 관념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잦아요. 근데 저는 그에 맞지 않게 반대로 경제 관념이 조금 박혀 있고 어느
 정도 철은 들어 있어서 제 인생에서 좀 그런 소비나 이런 거를 진짜 흥청
 망청 허무하게 돈을 쓴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제
 습관이나 이런 성격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해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C10)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찍 자립
 의지를 갖도록 하여 노동시장에 (자발적) 지체 없이 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의 결핍만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바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다. 최근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직무
 급제와 계약직,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첫 번째 직장은 더 나은 일자
 리로 이동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바뀌는 추세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C14(1992년생, 31세, 여)는 대학 시절 단기 인턴으로 시작해 세
 번의 이직 끝에 현재는 외국계 대기업의 중간관리자로 근무 중이다. 취업
 준비생에게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100만 원을 주든 얼마 주든 **그냥 인턴
 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기회를 보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조언한다.

C14처럼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입직 이후의 경력이동을 통해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청년들도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이처럼 대학 진학이 확대되면서, 대
 졸자들 사이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족의 영향도 있다. 청년실업과 장기 미취업의 위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단 노동시장 내에서 기회를 보
 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취업이 장기화되어 가족 전체의 부담으

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모 참여자들은 청년 자녀에게 ‘대학까지’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들이 무엇보다 ‘독립’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청년 세대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C11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서울로 이주했다. 공공기관 인턴과 멘토링 활동을 거쳐 여러 대기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원하는 직장은 대기업이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구직 과정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취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C11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의 계약직 일자리를 수용했다. 현재는 대기업 계열사 중 한 곳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는 배움에 있어서의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외에는 저도 성인이나까 자립심을 기르길 원하셔서, 제가 다 책임을 졌던 것 같아요. (C11, 1997년생, 26세, 남, 대기업 계약직)

3. 대응 전략 2: 전적으로 지원받기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노동시장 내 경력상승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 일자리가 제공하는 복지와 안정성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일단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감수했던 열악한 고용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 현 직장에서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 경력상승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버티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영어 시험을 비롯 한 각종 자격증 준비 등 구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직장에 안착할 수도 없고,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갈 만한 경쟁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구직이나 실업과는 구분되는 의미에서) ‘취업준비’라는 절차에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취업준비 기간이 졸업과 입직 과정을 생략하고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이후 입직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규직 전환에 유리한 어학수업’(C11)이나, ‘커피 관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용’(C01)을 부모의 지원 없이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추가적인 근로를 통해 소득을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노동 안정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불안정성에 고착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수 청년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지원받기’를 통해 장기간 취업 준비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한다.

성인자녀는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에 부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C13은 바로 취업하여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주거독립을 지연하고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회사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사회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 ‘사회생활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라고 해도, 내 직장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장인의 사회생활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C13, 1996년생, 26세, 남, 서울 주요대 졸업 후 공기업 시험준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취업이 고정수입 확보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 루틴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안정된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 성인이행의 과제 중 하나인 사회 적응의 최종 목표가 되며, 사회 적응을 통해 다른 과제인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도 완수할 수 있다. 청년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시절 부모세대로부터 받아왔던 동거 지원과 가사 지원, 취업 준비 비용을 계속하여 지원받거나(C03, C05), 대학 시절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던 연구 참여자들도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부모에게 이전보다 강하게 지원받거나(C12),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C08, C13) 하였다. 또한, 취업 준비를 위해 몇 개월 동안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비를 절약하거나(C09, C11), 실직이나 이직 준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부모의 동거자원을 활용했던(C04, C15) 사례를 볼 때, 취업 준비 국면에서 기간과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C12는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4년제 대학 중국학과를 졸업한 뒤 2년 6개월간 서울에서 공무원(외사 경찰)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결혼식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생 때도 중국어 과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용돈을 조달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2년 반의 수험기간 동안 총 7,000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았다.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처럼 따로 저축을 해 주신 돈이 있었는데, 제가 **2년 반 정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그 돈을 제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부모님이 현금 자산이 크게 많지 않다고 듣고. (C12, 1995년생, 27세, 여, 2년 반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

C08 역시 13개월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였다. 청소년기에 휴대폰 요금을 스스로 내고,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용돈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조달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가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거든요. (...) 이모부가 지원을 해주셔서 600만 원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일을 빨리 그만두고 수험가에 뛰어들었는데 (...) **이 돈이 끝나면 나는 다시 수험가를 떠나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모아가지고 또다시 수험가에 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고** (...) 돈을 다 쓰기 전에 겨우겨우 붙었죠.
(C08, 1991년생, 32세, 남, 경찰 공무원)

그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첫 6개월간은 집에서 지하철 찻차를 타고 노량진에 있는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집 근처 독서실에서 시험을 준비하였다. 이 기간에 어머니로부터 ‘찻차 타기 전 매일 아침식사’를 비롯해 청소와 빨래 등 모든 생활 지원을 받았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부모의 동거 지원은 주거비와 식비 등의 경제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식사, 빨래,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부모(대부분 어머니)에게 지원받을 수 있어 시간 사용상의 이점 또한 있다. C08 이외에도 대학 시절 타지역에서 자취를 하다 취업 준비를 위해 본가로 들어가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집에 있는 것 먹고 집에서 생활’(C13)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빌붙어 살며’(C05) 생계와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부모 동거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계속 얹혀사는 느낌으로 인한 눈치를 보는’(C13) 상황은 피할 수 없다. 20대 중반인 C03은 수도권 전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2년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졸업 직후 요양시설에 취업하였으나, 채용 공고에 명시된 조건과 달라 1개월 만에 퇴사하였고, 그 후 공공부문 공무원직에 채용되었으나 과도한 업

무로 인한 상해를 입어 1개월 만에 다시 퇴사하였다. 그는 2개월간의 짧은 전일제 근로 경험을 제외한 2년 동안 간헐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생동성 알바'(생물학적 동등성 임상 실험 참여)를 통해 용돈을 마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구직 훈련과정을 이수 중이다.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지역 고용센터와 공공 취업 지원 홈페이지(워크넷),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구직 훈련 프로그램도 이수하였으나, 별도의 훈련수당을 받지 못해 구직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집에서 자고 밥만 해준다면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월 10만 원 내에서도, 대용량 과자 같은 거로 때우면서 살 수 있어서. 워크넷만 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누가 해주겠지'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그때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자격증이라도 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입들도 오고 이렇게 1년이나 고작 몇 개월 가지고 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C03, 1998년생, 24세, 남, 구직 중)

그는 무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일단은 뭐라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무조건 취업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버지와 '스펙 같은 걸 더 쌓아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하라'라는 어머니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두 가지 요구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나,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과 노동시장 내 지위 상승을 위한 스펙 쌓기가 모두 필요함을 절박하게 보여준다. 그의 가족 5명은 모두 성인이지만, 보육교사인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건강, 군복무, 학업을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어, 어머니가 유일한 생계 부양자이자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

심층면접에서 그는 반복적인 입직-퇴사와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일 경험을 바탕으로 '월 200만 원 중반대 소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근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중숙련 이하 일자리조차도 진입하기 쉽지 않으며, 취업 준비로 인한 이력의 공백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보여준다. 취업 준비 시기에 그가 느꼈던 조급함과 시간적 압박은 청년 본인의 노동시장 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장 퇴장 시점과도 관련된다.

부모님도 정년퇴직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 이제 좀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너무 심하게 받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보고 잘 살라 이거니까. (C03, 1998년생, 24세, 남, 구직 중)

그는 ‘나중에 독립하고 애 낳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요구를 규범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월 200만 원 중반 정도를 벌 수 있는 일 자리에서 얻은 소득으로 독립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부모님에 얹혀 사는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때 독립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C03의 사례는 졸업 직후 취업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미취업-부모 의존을 회피하려고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역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관계 없이 자녀가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거와 취업 준비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모 동거는 취업 준비 시기뿐만 아니라 첫 직장을 퇴사한 다음 행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이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사적 안전망의 기능을 한다.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급여의 수급 기간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만으로는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적

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직과 퇴사를 경험한 청년 참여자들이나 부모 참여자들의 자녀는 실업급여를 구직 기간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받되, 주거비나 식비는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

제가 퇴사를 한 시점에서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식비,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지원인 것 같아요. (C15, 1997년생, 26세, 여, 건강 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퇴사)

부모세대 역시 노동시장에 있는 자녀가 계약직 저임금 일자리에 일단 진입하였다가 ‘숙련 형성이나 경력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P04, P05, P07, P09),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P06),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인턴 자리에 채용되었으나,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갑자기 채용 계획이 무산되는’(P12) 경험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간 동안 부모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자기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종인 것 같다’고 그러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 나이가 뭐 서른도 안 됐고, 그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둬. 그리고 또 찾아봐**’라고 그랬죠. (P07, 1964년생, 59세, 여, 전업주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졸업하여 1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들 둔 P11도 취업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들의 취업 준비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초기 단계고 아직은, 어느 정도는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고.** (P11, 1965년생, 58세, 남, 건물 시설관리팀장)

P07과 P11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독립’을 목표이자 지원의 원칙으로 삼더라도, 자녀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될 경우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P11)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부모 역시 노후를 대비하여 ‘나 살 궁리도 해야 될’(P07) 필요성과 함께, 일정 기간만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준비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P05) 더 낫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취업 준비가 장기화 될 경우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 기간을 ‘준비기’가 아니라 ‘공백기’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정규교육, 고용, 직업훈련 중 어떤 상태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음을 C14는 지적한다.

남편의 대학교 동기가 00대(서울 소재 주요대)예요. (...) 지금 몇 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3수를 해서 대학을 왔어요. 이미 30대 중반이 돼버린 거죠. (...) 대기업 못 가고, 외국계 가기에는 영어도 못하고, **스펙 쌓은 거 없으니까 못 가고, 중소기업 가자니 눈이 높고** ‘내가 그래도 00대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아파트 헬스장에서 카운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한대요. 근데 **그 공부가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C14, 1992년생, 31세, 여. 외국계 기업 사무직)

C13은 4년제 대학을 수료한 후 졸업을 유예하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처럼 아직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중 종종 ‘신분증 검사’를 당한다며 자랑을 하자, 어려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친구의 말에 씁쓸해졌던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게 신체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결

함 때문일 것이라는 친구의 해석은 대학교육을 다 받고도 대학 문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당사자들에게 큰 문제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랑 비슷하게 구직 중인 친구가 '이제는 우리가 신분증 검사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왜 신분증 검사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가 나가지고** 그게 묘하게 어려 보여가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이상한 동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13, 1996년생, 26세, 남, 공기업시험 준비)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함을 감수하면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당장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은, 취준 기간을 두 번째 기회, 가능성에 대한 투자의 시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경력상승의 가능성을 가진 중숙련 이상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괜찮은 일자리' 혹은 '체대로 된 일자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시간(기회)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 참여자들 중 해당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외사경찰', '경찰공무원', '공기업' 등 (자소서 없이) 시험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얻고자 긴 '취준 기간'을 보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 기간 동안 '알아서 해'(do it yourself)의 처방이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당수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몇 번의 구직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취업 준비'에 나서며, 취업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지체 없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 경험이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취준의 전제 조건인 노동시장 이

탈에 따른 생계 문제를 가족이 떠맡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부모세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녀의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체험했다. 대부분의 성인자녀가 이행 기간에 부모와 동거하기 때문에 이 체험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적합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속 방황”하다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으로 취업하거나 (P07) “비정규직의 서러움”(P09) 느끼거나, “2년 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P06) 등 “노력했는데 안 되는”(P11)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의식주 등의 생활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했던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취업 준비기에 부모가 자녀세대를 지원하여 취업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소득 지원)은 한계가 있음을 P04는 지적한다.

딸 표현에 의하면 자기네는 사다리가 별로 없대요. 우리 세대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곧 좋은 곳에 취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랬는데, 요새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 그럴 때마다 사실은 도움을 주고 싶긴 한데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P04, 1961년생, 62세, 여, 교사 은퇴자)

제4절 투자로서 성인이행기 부모 지원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 지원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 지원의 성격이 뜻하지 않은 불행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의 의미보다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돕는 ‘발판’으로서의 지원임을 보여주며, 한국의 부모-성인자녀 사이의 지원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대학 시절 부모로부터 주거비, 용돈, 학비 등을 전적으로 지원받았던 C05는 이러한 부모의 지원이 ‘성인이행기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 없이는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은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것이다. 부모의 지원은 자녀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대신 미래를 위한 교육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도록 해주는 의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다 대학교 진학을 하잖아요? 지원이 없이는 대학 가기도 힘들 것 같고, 지원을 받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지원이 오히려 더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남들 다 하는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니까 그 시간 아껴서 더 좋은 데 진학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은 그렇게 해서 부모의 지원을 갚는 것 같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같아요. (C05)

부모와의 동거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줌으로써 성인자녀가 노동시장에 끌려나가지 않고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용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자녀는 취업 준비에 더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주거비용까지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 중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모든 청년이 부모나 친척의 경제적 후원을 받았다.

P11이 말하듯이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는 자녀가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여 의존적인 구직기간 없이 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등교육

완료 후 노동시장 내 안정된 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 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1~2년의 기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와 부모가 기대하는 직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P11(남)은 회사원(월소득 약 500만 원)이고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의 가장이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두 살 터울의 두 자녀가 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지출했었고, 대학 진학 이후에는 학비와 용돈, 해외 교환학생 비용 등을 지원했다. 자녀 자신도 단기 알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지만,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첫째 자녀는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또한 대학생생활을 통해 다양한 취업 자격을 취득해 놓은 상태라서,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기업 입사를 희망했던 자녀는 1년 여 동안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안착했다. 구직에 번번이 실패하는 자녀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미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경제적 자립 시기를 더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더 이상 뭘 또 공부를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라면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직장이 최종직장이 아니라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경력직으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졸업 전에 취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순리인 것 같았고. 근데 그게 요즘 잘 안 되니까 워낙 취업문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1차적인 바람은 저도 제 나름대로는 그

이상이 있었죠. 그래도 일류 기업. 일류 기업이나 아니면은 공사, 이쪽에 들어가기를 바랐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될 줄 믿었고. (...) 좀 시일이 걸리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P11)

P11의 둘째 자녀는 졸업 후 1년여의 기간 동안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 자녀도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었는데, 둘째 자녀의 취업 준비 기간도 1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에 졸업했지만 현재 1년 넘도록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돈벌이 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한다. 여전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시간을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계속 돈벌이 해야 될 나이에 계속 취업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장기간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나가서 뭐라도 해라, 그런 말이 나오겠죠. 솔직히, 저도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이니깐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고, 아직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당장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은. (P11)

현재 구직 중인 C03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족의 사례를 보여준다. 전문대를 졸업한 C03은 첫 번째 직장의 근무조건에 실망하여 곧 퇴사했지만, 경제적 압박 때문에 떠밀리듯 시작한 두 번째 일은 더 심각하여 신체적 질병만 얻고 한 달만에 그만두었다. 지금은 일을 찾아보고 있는데,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본인이 취득한 적 없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훈련과 자격증 취득에 맞추어져 있어, 어떤 자격증을 따라 취업이 잘 될까를 매일 매일 찾아보고 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몸을 다쳐 현

재 일을 쉬고 있는 아버지는 C03에게 일단 무슨 일이든 경력이 될 만한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 그러나 집안의 유일한 소득 별이자인 어머니는 아들이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당분간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계의 긴급성이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만 자녀가 긴 구직기간을 갖는 것은 아니다. C03은 몸을 혹사해야 하는 교대제 일자리,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 그는 그런 시간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자 역할을 대신 해주는 부모와 주거비가 들지 않는 동거 형태, 그리고 극도로 사회생활을 줄이는 전략(“취직은 듯이 살면”)을 통해 이 시기를 버티고 있다.

엄마는 (...) 제 모습 보고 ‘그냥 스펙 같은 걸 더 쌓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데서 앉아서 근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스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나 엑셀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하고요, 아빠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경력을 쌓은 뭐든 일단은 뭐 좀 하면서라도 좀 경력 쌓아봐라. 너도 나중에 독립하고 애 낳아야 되지 않겠냐. (C03)

P06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인이행기까지 지원을 한 부모이다. “주변에서 보면 이것도 많이 해준 거는 아니더라고요. 말씀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솔직히 많이 해준 건 아니지만 제 능력 한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고교 사교육 당시와 유사하게 성인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부모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의식이 부모 본인의 재정적 역량의 한계를 넘어 자녀를 지원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P07은 성인자녀의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 것을 요구해온 분리지향성

의 부모이다. 이러한 P07도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2년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였을 정도로 교육 책임감이 강했다. 그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부모들은 일부러 해외여행도 보내고 그러는데, 난 능력이 없으니까. 제때에는 여행으로 해외에 1년 동안 체류하면 돈이 더 많이 들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니 나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득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았죠. 힘은 들었지만, 더한 부모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막 1억씩 막 들어가는 부모들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뭐 집 파는 거 아니고 내가 조금 힘들고 못 나가고 못 즐기고 참으면 되니까 그냥 그러자. (P07)

이처럼 부모는 성인자녀의 긴 구직 또는 취업 준비 기간을 단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녀가 사회경제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로 이해한다. 이는 결국 ‘투자’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자녀들은 낮은 입직이나 낮은 이직 등을 통해 자기 생애과정에서 도구적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들은 자녀가 인적 자본을 쌓고 경쟁력을 갖추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은 모호해진다. ‘발판’을 제공하는 의미의 지원은 자립이라는 이상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립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Swartz, et. al., 2011).

그러나 투자는 수익을 요구한다. 수익에 대한 압박과 조바심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세대는 의존의 장기화에 따른 수치심보다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부모세대는 기대하는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P12는 성인자녀의 해외 유학을 지원했고, 자녀가 귀국한 뒤에도 2년여 동안의 구직 생활을 지원했다.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 다 그냥 개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카드는 내 거로 쓰고 아빠가 용돈 주고 오빠가 용돈 주고 그래갖고 해쳐나간 거죠. 또 특별히 애가 뭐 알바한 것도 없고, 잠깐 잠깐 나라에서 3개월씩 인턴 한 번 하고. (P12, 1967년생, 56세, 여, 마트계산원)

부모 동거는 단지 주거를 무상으로 해결하게 해주고 용돈을 제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모는 조바심이 나고 성취라는 대가를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취업 공고가 나오고 원서를 쓰면 바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게으른 편이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되든 안 되든 그냥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덜 하니깐 많이 속상하고 그랬죠. (P12)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한 후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C13은 그러한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는 자립하지 못한 의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은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C13은 취업을 하더라도 집을 떠날 생각은 없는데 쾌적한 생활상의 편의를 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되게 양가적인 느낌인데요. 하나는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제가 하는 거에 엄청 참견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으시거든요, 전혀. 그건 되게 좋은 부분인데 또 안 좋은 면은 뭐냐면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한테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렇게 되게 좋으면서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스트레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저한테는 되게 큰 지지자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서 느끼는 압박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C13).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취업 준비 기간까지 부모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녀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자녀가 사회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지 않을 때, 부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자녀에 대한 투자적 지원은 부모와 자녀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클쎄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한 65세까지는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에 자녀들이 완전하게 독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안 되면 취업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노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 그 안에 이제 뭐 둘째까지 취업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더 좋고. 아니면 취업이라도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해주면. **나름대로는 좀 사이클이 그 정도까지만 가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P11)

모든 취업 준비가 청년과 부모에게 정상적인 성인이행 단계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개월간의 공무원 시험을 접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C01은 시험을 포기하여 오히려 후련하다고 했다. 부유한 자영업자인 부모는 C01에게 자취 공간을 마련해주고 매월 용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전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는 상당 부분 부모가 주도한 것이었다. 그는 부모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러한 지원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립한 주변 친구들 틈에서, 홀로 용돈 받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쪽팔렸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기로 했었지만, 그것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여타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

제5절 소결

대학 진학의 확대로 정규교육의 완료 시점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졸업으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 교육 및 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도 연장된다.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게 취했던 ‘보호자’, ‘양육자’의 역할은 자녀가 법적 성인 연령이 된 이후에는 보조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주된 성인이행기 지원 역할은 제도적으로 대학이 넘겨받게 된다. 청년 자녀가 대학 후반기나 졸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수행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스스로 부담하려는 경향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노동시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이 정규교육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을 완료하는 시점 역시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 청년층과 가족은 ‘장기 미취업’이라는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 위험은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모호하고 노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갖출 수 있는지를 개인이 미리 판단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해외 체류 경험, 외국어 실력, 대외활동, 인턴십 경험, 각종 자격증 등 대학생활에서 획득해야 할 ‘경험’이 점차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도 매우 개인화되고 있다.

청년층과 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일단(일터로) 나가기’(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략은 장기 미취업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원가족 극복이라는 초기 성인기 과업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지원받기’라는 위험 감수 전

략이다. 청년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빠르게 입직하는 ‘위험 회피’ 전략은 충분한 준비 없이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으로 입직할 경우 저임금,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환경에 취약하게 되어 노동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에 빠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 미취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시기의 주거와 생계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전략은 시간적 지연을 통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의존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 지원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성취의 지원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은 뜻하지 않은 불행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지원보다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지원하는 ‘발판’으로서의 지원이 한국의 부모-성인자녀 지원 관계를 더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의존을 늘리고 가족의 책임을 강화한다.





제4장

주거독립 과정과 부모의 지원

- 제1절 취업 이후 부모 동거와 지원관계의 변화
- 제2절 주거독립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비지원
- 제3절 부모 지원의 생애주기와 이상적 부모역할의 변화
- 제4절 소결



제4장 주거독립 과정과 부모의 지원

제1절 취업 이후 부모 동거와 지원관계의 변화

1. 고용안정 청년의 부모 동거 지속과 의존 완화 전략

통계자료의 집계 분석(제2장)에서 확인했듯이, 부모 동거율은 취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이고, 20대 중반 이후 연령이 상승하면서 소득의 증가 추세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장에서는 최초 취업 이후 안정기에 진입한 청년들의 부모-자녀 지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어도 30대 초반이 되면,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조직 내 지위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 취업률, 개인소득 등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된다(제2장 참조).¹²⁾ C09, C14 등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안정기를 임금과 고용계약 등에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그리고 조직 내·외부에서 업무와 생활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경험으로 묘사하였다(C09, C14). 이러한 노동안정기 경험은

12) 개인 노동생애는 서로 다르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후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장 또는 직업 등에 정착하여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가 등 청년의 초기 노동이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질성과 격차 등을 강조해왔다(변금선, 2018; 이희정, 2019; 남재욱, 2021; 최선영 외, 2022, 제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 즈음 노동시장 지위를 수용하고 조직 내 경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노동생애에서 그러한 '노동 정착기'가 있는지의 여부, 정착기의 시점 등은 다양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략 30대 초반의 시점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착을 시도하는 가장 늦은 연령으로 간주하였다.

막상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었던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험과 대조를 이룬다.

대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4학년인 것처럼 취직한 뒤 몇 년 동안은 그냥 연장선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정할 수 없고 '그냥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담당이 생겼다. 내가 뭔가를 담당할 수, 내가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뭔가를 하나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C09, 1992년생, 31세, 남, 사무직)

청년세대는 이러한 노동 안정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주거를 개선하거나 (C08, C09, C14),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C04, C07, C08), 주거독립이나 결혼 등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벗어날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나름의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청년세대의 성인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월급 탔던 걸로 모아서 그때 일본 오키나와 여행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때 여행, 정말로 여행 갔던 게 그때 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아 그래도 나한테 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조금, 조금씩은 모아서 매년에 해외여행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가야지' 해서 지금 되게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C07, 1990년생, 32세, 여, 대학병원 간호사)

노동시장에 정착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과 소득만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행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취업한 이후에도 부모와 계속하여 동거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행 과정을 경과하면서 성인자녀의 경제적 역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소극적인 기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현상 유지’)이다. 이 경우는 취업 이전의 경제적 의존 상태와 사실상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와 달리 부모와 계속 주거를 공유하면서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등 경제적 기여의 수준을 높이는 형태도 있다(‘생계 분담’).

C04는 수도권 전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 계약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두 곳을 거쳐 현재는 물류 관련 국내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대학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지원받았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대 초반부터 독립을 계획하였다. 20대 초반에 세운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C04는 결혼을 앞둔 지금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자취를 하게 된 친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면 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손해구나. 어떻게든 여기서 약착같이 돈 모아갖고 나중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지웠던 것 같아요.
(C04, 1992년생, 31세, 여, 부모와 동거 중)

그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동안 공과금 등의 고정비와 생활비를 분담한 적이 없다. 현재까지도 그의 민간 의료 보험 및 종신 보험료는 따로 사는 어머니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12년 동안의 노동경력을 통해서 그는 현금 2억 원을 모았지만, 개인적인 소비(고급 차량 구매)에 충당했을 뿐 부모 동거에 따르는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 않았고 그럴 의사가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C04는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세세한 점을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동거하는 전략을 통해 개인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적 소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 동거를 지속하고자 한다.

C04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자립하지는 않은 사례로, 그녀에게 부모와의 동거는 '임시적'이고 '도구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현재의 가구 역시 외형상으로는 과거의 생활형태가 단절없이 지속되고 있는 안정성을 보이지만, 미래의 주거 및 경제 분리와 자녀의 자립을 위해 임시적으로 동거하는 도구적인 결합에 가깝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지속되는 유형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성인기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를 재정적인 자립 능력 결핍으로 인한 불가피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하는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감수하도록 만들고 생활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재정적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월소득과 대출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독립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굳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동거형태 결정에서 경제적 실리(지출의 최소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부모의 요구가 없는 한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부담할 유인도 낮아진다. 동거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 주거형태에 따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적 저축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세대 입장에서 이러한 성인자녀의 도구적인 전략을 쉽게 수용한다는 점이다. P07의 사례를 통해 취업한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정기적인 소득을 벌고

있는 성인자녀가 부모 가구에서 계속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러한 관대한 부양실천은 자녀가 결혼할 때(주거 독립을 할 때) 목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결혼 시기에 목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부모인 자신은 자녀의 일상적 재생산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첫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나 이제 생활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자: 첫째가 그랬나요?) 네. 첫째가 그랬어요. (...) 내가 되받아쳐서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으니까 생활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차곡 차곡 모아서 결혼 자금 준비하라고.’** 그때 아예 공표를 해가지고. (...) 아버가 몇 년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니까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어 이제부터는 너네 버는 거는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생활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라. (P07, 1964년생, 59세, 여, 전업주부).

C04나 P07의 사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상태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처럼 자녀의 경제적인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와 동거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생활 일체에 대해 부양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곧 닥칠 자녀의 결혼에 결혼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결혼을 지원할 만한 자산을 갖지 못한 부모들은 자산을 증여하지 못하는 대신 결혼 전까지 일상적인 생계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자산 임금노동자 부모세대가 취하는 전략과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고자산 중산층 부모세대도 동거를 지속하고 자녀의 임금소득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일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자녀의 주거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역할(기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자녀

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자녀가 소득을 개인적 소비로 소모해 버리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저축을 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동이체로 저축이 다 들어가게, **아빠가 설계를 해주더라고요.** 개는 그 나머지 돈 안에서 쓰고 가끔 가다가, 연말에 성과급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모아 놨다가, 여행할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P04, 1961년생, 62세, 여, 교사 은퇴자)

싼 거라도 깎으로 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뭐 아니면 '네가 혼자 살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여유가, 그렇게 쪼들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P02, 1973년생, 50세, 여, 전업주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성인자녀와 동거하면서 일상적 부양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부모들은 이를 통해 미래 자녀의 독립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동기가 또 다른 종류의 지원과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모-성인자녀의 동거에는 자녀의 식생활을 포함한 가사 전반을 지원하고자 하거나 (P04), 자녀와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선호(P03, P04)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취업 이후 자립의 비중 늘리기: 생활비 부담 또는 주거분리

자녀가 취업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벌게 되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는 일정 정도 생활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청년 참여자들은 부모와 동거 중 취업하게 되었을 때 생활비 부담을 요구 받았으며(C06, C08, C10, C14, C15), 부모 참여자들도 자녀에게 명시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요구(P01, P12)했다.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비 부담' 명목의 지원을 따로 받지 않으나, 자녀가 취업한 직후 대부분 자녀 몫의 휴대폰 요금(C05, C07, C09, C12)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C09) 등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

(전에는) 공과금 같은 걸 다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된 후에** 제가 먼저 선언했어요. **'통신비랑 보험비랑 다 그냥 내 앞으로 돌릴게.'** **하니까** 이제 엄마 첫 반응이 '그래, 이제 가져가네.' [웃으며]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 힘들겠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월급으로 살 만한 것 같아'하고 끊었던 기억이 나요. (C07, 1990년생, 32세, 여, 간호사)

자녀의 소득과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녀는 대체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부담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의 액수는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취 비용과 대비하여 저렴한 수준이다.

엄마가 '딱 정하자' 이래가지고 '너도 이제 돈 버니까 용돈 줘야지 집에 살면서 **공짜로 살 거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엄마는 엄마는 50(만 원)이고 저는 20(만 원)이고 이렇게 봐서 이제 협상된 게 30(만 원)이었어요. (연구자: 어떠셨어요?) **'그냥 뭐 줄 만하다** 어차피 나도 대학교 때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살았으니까.' (C14, 1992년생, 31세, 여, 외국계 기업 사무직)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담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P12는 두 자녀가 모두 취업을 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랑 하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고, 그 경제활동을 안 하면 부모한테 의존해서 사는 거죠.” 취업을 하자마자 자녀를 설득해서 ‘내보낸 사례’와 달리 P12는 “서른이 됐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동안은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대신에 P12는 주위 동료나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한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를 받았는데, P12는 정기적인 생활비를 요구함으로써 자녀를 과거와 같이 완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다소 겸연쩍어했다.

한 6개월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6개월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막 “야 너 돈 내” 이렇게는 안 하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생각도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랬지. 그래 “**네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내라.**”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25만 원 줄게” 그러더라구요. 주위에서도 보통 20~30만 원씩 받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나같이 사는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월급을 옛날처럼 통장이나 월급을 다 맡기는 건 아니니까. 그걸 맡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P12)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생활비 부담이 가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에 요긴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이 부족한 임금소득자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큰돈이 필요할 때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P01, P06, P12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동거하는 성인자녀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받고는 있지만 부모들은 이러한 행위가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처럼 냉정한 거래관계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게 주었던 지원과 헌신에 대한 인정을 확인하고, 이제는 경제력을 갖춘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그 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충분한 나이와 충분한 자립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자녀가 부모와 곧바로 주거를 분리하지는 않는다. 향후 ‘완전한’ 주거자립 시기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 동거’가 용인되며, 매월 정액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완적 수단을 통해, 동거에 따르는 ‘경제적 의존’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모아 둔 저축과 대출을 통해 독립적 주거지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C09, C11). 그러나 사회 초년생이나 첫 취업 시 주거가 분리될 때는 P09의 사례처럼 부모가 자금을 자녀에게 주거나(P01) 빌려주는(P06, C05, C12) 사례도 있다. P06은 이처럼 부모가 지원해서 주거를 분리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독립이라고 말한다. 주거 및 생계 분리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자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독립의 과정이라 이야기한다.

자기가 자기 집도 마련을 해야지 그게 완전한 독립이라고 봐요. 근데 보증금은 제가 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독립은 완전하지가 않는데. 거의 그래도 한 애는 90%. 왜냐하면 이 아이 세대에서 완전한 독립을 하려면, 주거가 솔직히 더 안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죠. (P06, 1970년생, 53세, 여, 전업주부)

청년 자녀세대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하여 정기적인 소득과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부모와 분리된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

인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는 일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시간적 지연을 거쳐 주거 자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계속 동거 여부,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 여부, 주거독립자금 부모 지원여부 등은 모두 부모에 대한 의존인가, 아니면 부모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의 형태인가라는 틀에서 명확하게 해석되는 현상이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모-성인자녀의 지원관계가 초기 성인기에 한정된 단기적인 관심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2절 주거독립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비지원

1. 주거독립으로서 결혼과 부모 지원/비지원의 다양성

연구에 참여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원 가족과 주거를 분리하는(분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는 부모세대 자신의 경험과는 거리가 있다. 부모들은 결혼 직후 일정 기간 (시)부모와 함께 살다 분리한 경험이 있다(P01, 03, 04, 05, 07).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된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난 20세기의 경험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신혼의 주거 방식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최선영, 오신휘, 박종서, 2020). 전자가 새로운 거처 마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거처 마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의 방식은 결혼을 ‘주거 문제’ 그리고 주거자금 조달의 문제로 전환하였다.

중산층 부모 참여자들은 “최소한 전세금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P02)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다양하지만, 월세의 비중은 상대

적으로 낮고 자가와 전세의 비중이 높다(최선영 외, 2020).¹³⁾ “최소한 전세”라는 것은 향후 자가 소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소득을 저축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노동경력이 짧은 청년 자녀들이 그러한 최소조건을 자력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새로운 거처 마련, 최소한 전세의 점유 형태, 그리고 결혼 전 생활수준과의 격차 최소화 등의 요구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상당한 자산 수준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만혼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은 결혼 당사자들의 경제적 자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지만, 실제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모아놓은 저축의 수준은 높지 않다.

부모 참여자들의 자녀 결혼 경험과 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결혼 주거자금 마련 방식을 보면, 자녀 스스로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사례(P07, P10, P12), 배우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주택 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거나(P04), 일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P01, P02, P06, P11)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참여자들은 C08과 같이 당사자들의 저축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사례와 C14처럼 부모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례, 그리고 부모로부터 ‘빌린 후 상환’하거나 그것을 계획하는 사례(C05, C0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자녀의 결혼과 주거 마련에 대한 가족(부모와 당사자 자녀)의 대응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부의 대물림,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 부모의 경제적 부담, 성인자녀의 주도성 등등 여러 측면에서 각 방식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일단 개인과 가족이 처

13)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가 30.2%, 전세가 44.9%, 월세가 20.1%, 무상이 4.7%였다(최선영 외, 2020, p. 76).

한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 동일한 상황이라도 무엇을 더 우선하는 가치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은 대학준비, 대학교육 기간, 노동시장 이행 기간 등 여러 국면에서 드러났던 부모 지원의 다양한 특성들과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성인이행기의 초기 지원이 부모의 일상적 가구 경제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과 달리, 자녀의 주거독립을 위한 자금은 부모의 일상적인 소비수준을 능가하며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 등을 끌어와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부모세대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고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행기의 최종국면인 주거독립에 대한 지원은 부모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 범위 바깥의 문제가 된다.

2. 결혼 주거자금의 지원 (계획) 사례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고, 실제 경험 또는 향후 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성인자녀의 결혼 시점에 이루어지는 주거지원을 ‘지원’, ‘부분 지원’, ‘비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부모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중산층 또는 고소득 집단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때 부모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운용하여 자녀를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자녀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도움’의 의미라기 보다는 부를 기반으로 하여 자녀에게 계층적 지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동기가 큰 것으로 보인다. P03은 주거비용이 사회 초년생이 자력으로 마련하기 힘든 큰 액수라서 지원이 불가피하고, 본인이 결혼 초기에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 등을 지원의 동기로 거론하지만, “씨앗”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결혼 초기의 주거자금은 단순한 주거비용이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자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부모가 증여한 재산

을 기반으로 주택을 매수한 이후, 자녀의 노동소득과 부모의 추가적인 증여 재산을 합하여 주택의 규모나 수를 늘려가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가정을 이룰 때, 아이들에게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데, 내 자녀들까지도 없이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는 내가. (P03, 1959년생, 64세, 여, 프리랜서 번역가)

P02는 본인이 자신의 부모세대로부터 부를 증여받아 재산을 늘려 왔듯이, 자녀도 증여받은 주택을 기반으로 충분한 재산과 생활상의 여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동거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의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고, 자녀 본인의 취업 소득은 전액 저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규모 증여에 따른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식이며, 성인자녀가 자신의 일상적 소비를 모두 부모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P11은 거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여 아들인 둘째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3. 결혼 주거자금의 비지원 (계획) 사례

이와 달리 전혀 지원하지 않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계획인 부모 참여자들도 있다(P07, P10, P12 등). 사실 부모세대의 노후생활을 고려했을 때, 부모에게 주택 이외의 자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녀에게 일시에 증여하는 지원 형태는 결코 일반적일 수 없다. 부모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주거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부모의 현재 생활과 노후준비에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P01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산 중 일부를 자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고민한다.

사실 현재 우리 딸이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예요. 지금 살고 있는 ○○ 아파트에도 대출이 좀 끼어 있어서,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빚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딸을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 이야. (P01, 1965년생, 58세, 여, 간호조무사)

P12는 최근 첫째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자녀와 그 배우자가 저축과 은행 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 보증금의 총액이나 대출금 등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지원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할 책임 역시 절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미래의 ‘자녀를 위해’ 그 마음을 절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해주고 싶고 이것도 없어서 다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부모 입장에서 돈을 많이 해주면 개가 기가 살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근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줘서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없으면 애가 또 너무 부모가 그렇게 있으면 힘들어하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공핍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는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P12, 1967년생, 56세, 여, 마트계산원)

4. 부분적 지원과 대출/상환의 사례

자녀세대에게는 큰 금액의 자산이 필요하고 부모세대에게는 자산의 유

동화가 필요하여, 특정한 방식의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린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C05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출로도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가 모아놓은 예금을 빌려 써도 될지를 타진하고 있다. 빌릴 수 있다면, ‘용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고자 한다.

결혼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대출로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 **‘예금을 빌려서, 용돈 드리는 식으로 하고 써도 되겠냐’고 여쭙봤던 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C05, 1992년생, 31세, 남, IT 개발자)

C07은 결혼하면서 주택을 매수했다. 남편이 카드회사에 근무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신용을 끌어올 수 있었지만, 자금의 약 90%를 대출로 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때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상환해 나가고 있다.

일단 친정 부모님들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있고 제가 이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한테 지금 채무가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때 2021년도에 **집 살 때 돈이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빌렸고 이거는 제가 월 상환을 하고 있어요.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하고 있어요.** (C07, 1990년생, 32세, 여, 대학병원 간호사)

C07의 부모는 주택 이외의 여유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부조 요청에 응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부모에게 여유 자산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 않는다(C04, C08). 장기간의 성인이행 과정에서 보증금 지원, 각종 시험준비 기간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이미 결혼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혼 주택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부모에게 여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C12).

자녀세대 역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결혼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라 답하였다. 현재 결혼을 하였거나(C07, C08, C14),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 중인(C04, C05, C12) 연구 참여자들 중 결혼 시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는 참여자(C05)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사례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였다(C04, C07, C08, C12, C14). 그중 C08은 부모의 지원 없이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 때 주택담보대출과 공무원 대출, 아내의 일반 직장인 대출 등을 총동원하였다.

공무원 대출은 이지만 내면 상환을 거의 무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직장인 대출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3천만 원을 빌려도, 이걸 5년 안에 다 갚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갚고, 이자도 써서 빨리 갚았죠. (C08, 1991년생, 32세, 남, 경찰 공무원)

결혼을 계기로 성인자녀는 부모와 주거뿐만 아니라 생계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원가족을 방문하거나, 자녀에게 반찬이나 선물을 보내기도 하지만, 금전 거래의 경우 ‘빌려주고 돌려받는(C07, C14)’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결혼한 자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결혼한 자녀는 부부와 자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과 자원을 재구성함을 보여준다.

솔직히 지금도 많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결혼을 시키고 공부나 학업을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선 저도 인컴(income)이. 지금 그래서 저도 대학병원에 다니는 거기는 해요. 아이들도 자립을 할 때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으고 있는 건데 갑자기 시댁까지 여기 겹치면 균형이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C07, 1990년생, 32세, 여, 간호사)

손자녀 양육의 경우에도, 자녀의 필요에 따라 부모가 댓가를 받지 않고 돌봐주는 경우가 있지만(P04), 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대신, 각자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본인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라면,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세대가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두 분 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아기를 돌봐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두 분 다 오래 사실 거고,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마음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합니다.** (C08, 1991년생, 32세, 남, 경찰 공무원)

제3절 부모 지원의 생애주기와 이상적 부모역할의 변화

지금까지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성인이행기에 대한 가족의 다양한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례를 통해,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성인자녀 관계가 무엇인지, 왜 이상적인 부모상과 실제 실천의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전형적 사례를 각각 살펴보면서, 부모세대가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전략, 그리고 이 괴리를 조절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떤 과정을 통해 성인이행기의 끝자락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의 ‘분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부모-성인자녀 사이의 ‘미분리’를 이상으로 삼았던 전통적 문화로부터 어떻게 이탈해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타주의적 부모상과 비지원 전략

P12는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56세 여성이다. 1967년에 태어나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만난 박OO 씨와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만 32세, P12는 만 25세였다.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3년 터울로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는 1992년생으로 아들이며, 재수를 거쳐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진학했고, 재학 중 군대 휴학과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으로 27세에 졸업을 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31세가 된 올해 결혼을 하면서 분가했다.

둘째 자녀는 1995년생(27세)이며 올해 첫 취업을 했다. 둘째 자녀는 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업성적도 좋고 '욕심'도 있었다. 일반고등학교를 나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에 진학했으나, 전공이 맞지 않아서, 1년을 마친 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어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년, 학부교육 과정을 위한 4년, 이렇게 5년간 독일에 체류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매달 집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귀국 후 2년여의 구직기간에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 용돈,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받았다. 얼마 전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주 주말을 부모 집에서 보내고 있다. 부모인 P12는 자녀가 아직 완전하게 자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P12의 자녀 지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된 주제는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함'과 그에 대한 미안함, 그러나 '(노후에 자녀나 국가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었다. P12는 '다 해주고 싶음'과 '지원욕구의 억제'라는 두

가지 충돌하는 태도를 모두 견지하면서, 성인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애쓰고 있다.

P12는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의 자신에 대해,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 중의 하나였다고 소개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모두에게 사교육을 시켰고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었다. “큰애는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큰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차츰 사교육의 비중을 줄였고 일반고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평범한 진학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달리 둘째 자녀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기를 원했었다. 중학교 교사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가라고 추천을 해주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비가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단념했다. 이러한 ‘절제’는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기도 했다. 당시 P12는 40세 이후 다시 생계부양자가 되어 일터에 나온 상황이었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리고 얼버무려 설명했지만) 당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벌어들이는 커녕 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P12는 경기도 소재 반도체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하며 유일한 생계부양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보낼 모험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 사립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한 학기 만에 독일 유학을 가겠다고 하자, 부모 입장에서 ‘절제’만 할 수는 없었다. P12는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 유학 등으로 교육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 그러한 경제력이 자녀의 유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더욱이 그사이 남편도 재취업을 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P12는 ‘하고자 하는 자녀’는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유럽 선진국 유학 경

힘이 자녀의 인적 자본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자신에게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자녀가 유학한 국가는 학비가 들지는 않았지만, 부담스러운 규모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했다. 현지 준비기간과 재학기간 5년 동안 주거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P12 부부 입장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상당한 투자였다.

그러나 자녀가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건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이라며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자녀는 어머니인 P12의 말대로 공부를 접고 한국에 정착하여 취업하기로 했다. P12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후원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P12가 생각하는 지원 또는 투자는 ‘시한’이 있는 투자였다. P12는 첫 번째의 비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두 번째의 비지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부모의 몫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은 부모의 정상적인 책임의 범위 내에 있지만, 이러한 책임이 자녀 나이 20대 중반 이후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사이 P12와 남편의 나이도 들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녀는 부모로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나이 등 두 생애과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이다.

P12는 최근 첫째 자녀가 결혼할 때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들려 오는 ‘누구는 1억을 해줬대’ 등과 같이 불편하면서도 부러운 이야기는 흘러들었다.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돈을 보태주지 못한 P12는 소요된 자금의 규모, 대출 금액이나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둘째 자녀의 대학원 진학 지원 요구를 거

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할 책임 역시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12는 자녀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 경제적 지원이 자녀들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녀는 “무조건 무한정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냉정한 행동이 마음의 표현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녀는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매우 이성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은 부모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 적금의 월 납입금액을 늘렸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P12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알아서 해라’라며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을 실질적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P12의 자녀는 자력으로 주거독립을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P12는 자녀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매월 정기적인 용돈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앞의 선언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그녀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 매월 자식들로부터 20~30만 원의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가급적’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목돈으로 돌려주고 싶다고 한다. 자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라도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받은 돈을 자녀에게 되돌려주고 주고 싶은 마음 역시 그때 가 봐야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만약 P12 자신에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 목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주고 본인이 모은 이 자금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그녀가 자녀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기적인 용돈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납입금인 셈이다. 그러나 보험금의 수령자는 부모와 자녀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최종적인 부양관계로 얽혀 있는 부모와 자녀라는 한 쌍, 한 집단이다.

P12에게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생활공동체의 윤리가 작동하고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자녀의 소득과 자산은 각각 분리되어 개인화되어 있지만, 그러한 경제적 자원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때로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때로는 부모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의 하나로서 경제생활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자녀 스스로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은퇴한 이후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지원은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어요, 그 돈을 내가 잘 관리를 하고 다 해서 나중에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해요. 사실 짝금이지만 그래도 20~30만 원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 내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도 받을 거예요, 아마. (P12)

(연구자: 쓰지도 않을 거면서 받고 싶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 만족감이요. 그때 상황에서 개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위를 봐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내가 안 쓰는데 그냥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내 본인으로 인해서(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목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냥 개네들이 경제생활을 여유 있게 할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P12)

P12의 사례는 일정한 연령이 되었거나 경제적인 자립을 시작한 성인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평범한’ 부모들의 복잡한 가치관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분리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성인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반드시 부모와 성인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분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P12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지원하는 대신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지키는 것이 ‘자녀의 부담을 덜어 주는’ 행동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매월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역시, 자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미래의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P12는 초기 성인이행기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후에는 일정한 이행기를 거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전통적인 부양관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P12가 중년 이후 맞벌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 점, 그리고 정작 노동소득의 저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대안 없음이 이러한 세대 간 유대에 대한 의존 관계를 연장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세대 간 분리 규범과 불안한 비지원 전략

‘절제된 지원’의 또 다른 사례가 P07이다. P07은 1964년생이고 1959년생인 남편과 두 딸이 있다. 첫째 자녀는 1990년생으로 전문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졸업하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결혼하여 독립한 상태이다. 둘째 자녀는 수도권 4년제 대학 중국어과를 나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현재는 퇴사하고 구직 중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

다.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까지는 비교적 ‘잘 살았다’. 자녀의 교육적 성취(‘성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소양을 길러서 품위 있게 살기를 바랐다. 두 자녀를 모두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동기가 이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줄여 이사를 했고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자녀교육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다.

P07이 표방하는 가치관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전통적 모성 또는 가족 연대주의적 부모상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P07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역할 규범은 자녀와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리를 유지하는 분리적 세대 관계에 가깝다.

애들을 낳아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이제 끝났다. 개네들은 이미 동지를 떠났기 때문에 개네들과의 연결고리가 아주 끊어진 거는 아니겠지만 개네들로 인한 즐거움은 끝난 거다. **우리는 (아이들이) 동지를 잘 틀어서 새둥지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그 둥지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P07)

P07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알아서 해”, “나중에 손 벌리면 안 돼”, “애는 키워줄 수 없어” 등과 같이, 성인이행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주지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자 했다.

예전부터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애들한테 용돈이든 뭐 이런 거 일체 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에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시절까지 화장품 뭐 저거 다 사줬어요. (...)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을 모았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화장품, 속옷, 너네들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알아서 써라. 이제부터 엄마가 안 사줄 거야. (...) 지금부터 결혼 비용 이런 것도 너네들이 알아서 모아라’라고 했어요. (P07)

실제로 첫째 딸이 결혼할 때, P07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평소의 생각과 일치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신랑 측에서도 당장 경제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결혼을 앞둔 둘째 딸의 경우는 신랑 측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형편대로 해야 할지, 무리해서라도 신랑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한다. 앞의 P12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평수를 줄여서 2억 원 정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자녀 각각에게 1억 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녀들에게 “막 줘서” “내가 타격을 입으면” 뒷일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생각했을 때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줘서 애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렇게 집이랑 아니면 그 돈이랑 남편이 지금 건강해서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니. 둘은 뭐 여하튼 저도 이렇게 이제 일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건강하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살지 않을까. 70 넘어서까지 이렇게 살다가 정 안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은 늘 해요, 2억에서 더 줄여서 1억짜리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 되면 복지가 더 좋아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애들 도움 없이 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냅두리처럼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무슨 여건이 어떻게 돼서라든가, 뭐 해줘야 될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다시 말해, 두 딸에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막상 결혼하는 자녀에게 조금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한 자녀들의 새로운 등지에 포함될 생각이 없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제도가 위험을 흡수해 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들이 보살펴 줄 여건에 있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이) 누가 봐도 잘 사는데 전혀 나한테 도움을 안 준다면 엄청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진짜 모자라게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넘치면 서도 나한테 계속 모자라게 신경을 안 쓰면 ‘저거 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앞의 P12가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과 절제된 지원 사이의 간극을 유지하고 있듯이, P07에게도 불일치와 모순은 발견된다. 한편으로는 자신과 자녀의 경제와 생활 모두의 분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활을 살펴주고 최종적으로 책임져 줄 존재가 자식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다만,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규범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지원 능력 부족을 자녀들의 독립심과 자립역량으로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3. 물질적 지원을 넘어 ‘독립’을 주는 부모

P09는 지금까지 살펴본 P12와 P07 사례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그녀는 취업한 후에도 부모 집에 남아 있고자 하는 자녀를 설득해서 독립을 시켰다는 점이 여타 부모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행동의 목표는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독립적인 성인이란 무엇보다 부모의 의지, 부모의 자원 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고, 부모가 적극적인 기획과 자원을 투입하여 자녀를 독립시킨, 즉 자녀에게 ‘독립이라는 상태와 능력’을 선물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이다.

P09는 현재 50대 중반으로 유치원 특수교사인 여성이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월소득 수준도 높고 자산도 있는 중산층이다. 두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사교육에도 적극 투자했고,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부부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공선택, 진로, 취업 등에도 적극 조언했다. P09는 첫째 자녀가 취업을 하자 곧바로 ‘보증금을 지원해줄 테니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자녀를 떠밀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P09의 자녀도 독립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약 3개월 동안 설득해서 자녀를 독립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P09가 자녀를 독립시킨 동기는 경제적 부담 때문은 아니다. 실제로 자녀의 주택임대료(전세 보증금)를 지원했으며,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주거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09는 부모의 자산 규모를 실제보다 적은 수준으로 자녀에게 알리며, 보증금도 사실과 달리 대출받아서 준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가 경제적인 자립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P09가 생각하는 올바른 성인은 ‘독립적인’ 성인이다. 취업을 통해 소득을 버는 것만으로는 독립적인 성인이 될 수 없으며, 매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고 집 관리, 공과금 납부, 소득과 지출의 조정 등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와 계속해서 함께 산다면 부모가 대신해 주는 일들이다. P09 부부는 ‘주거독립’을 하지 않고는 그러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가 다 해준다면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애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분리 계획을 세우고,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등의 준비를 한 사람은 정작 자녀 본인이 아니라 부모였다. P09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해했고 현재 독립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생활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기간과 취업 준비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성인이행 트랙과 나란히,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주거 성인이행 트랙이 모두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취업 트랙과 독립 트랙이 서로 기능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 동거 성인자녀와 그 가족의 현실이라면, P09는 부모의 역할을 확장하여, 이 두 트랙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성인이행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안 나간다고 한 3개월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 너는 결혼하면 또 여자를 얻고 애들을 낳을 거 아니니. 처음부터 조금 고생이지만은 힘든 생활도 한번 해보고, 자취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전기세도 안 내봐서 좀 밀려도 보고. 다이소 가서 이런 거 사면서 잘못 샀네. (...) 또 수리공 아저씨를 어떻게 부르면 얼마데 그 돈 아까워서 네가 한번 한번 망쳐보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해보고. 그걸 해보라는 거야. (P09)

P09는 “결국 또 돈이 결부된”다고 말한다. 본인은 자녀의 결혼 자금을 미리 끌어서 지출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등을 떠밀어 ‘독립’을 시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자녀의 독립을 종용하고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녀 자신의 독립생계 유지 역량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적 역량이 자녀의 이른 독립의 실질적 기반이 된 셈이다. P09는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부모의 자산이 아니라 자녀 자신이 갚아야 할 대출이라고 속임으로써, 자녀에게 채무상환의 부담을 허위로 부과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P09의 전략은 성인 됨이 단순히 졸업, 취업, 독립주거 등의 형

식을 갖춘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립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은 점점 더 위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인 됨의 이상에서 봤을 때, 자녀의 이행기 과업을 부모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P09가 직면한 모순이 보여 주듯이, 그러한 ‘혼자 힘으로’라는 이상과 실현가능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은 또 돈이 결부돼요. 돈이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지원이 없이 **금전적 지원 없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근데 저는 대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출상환 명목으로 아이에게 돈을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내가 그걸 받아서 쓴다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 결혼 자금으로 아들 결혼 자금으로 제가 세이브 자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이 돈을 내가 진짜 갚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얼마나 큰 돈인데. 이게 결국은 집값이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공부가 되는 거고. (P09)

(자녀) 본인이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요즘 기본 아무리 변동리 간다 하더라도 최하가 몇 천만 원 정도에다가, 마음에 드는 동네 가면은 **억 단위의 전세값이 필요한데.** 그건(부모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 베이스가 없으면은 쉽지는 않아요. (P09)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힘들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 정말 만약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전세니까. 처음에 집을 못 사니까. 그럴 때 조금 조금씩. 아주 조금 조금씩. 한 번에 일확천금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 정도 부족하네. 아까 지 대출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지. **한 번에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P09)

이상에서 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세대간 의존을 통해 성인이행기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는 긴장이 있다. 부모의 재정적 역량에 따른 지원의 격차 또는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부모의 노년기 이행이라는 생애주기 제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계층적 격차와 생애주기 제약은 서로 결합되어,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간 이하 계층에서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지원 정도 및 지원의 결과를 계층화할 수 있다. 3장에서 청년세대의 의존과 자립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하게, 이 절에서 다룬 장년 부모세대의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헌신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세대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례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 또는 독립적 세대관계의 이상은 그것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관계를 특징짓는 새로운 요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성인이행기의 두 번째 과제인 '주거독립'을 둘러싼 성인자녀와 부모의 지원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독립, 즉 부모 집을 떠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가구 경제를 구축하는 과업은 청년 참여자와 부모 참여자 모두에게 성인 됨을 구성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인이행 과정에서 주거독립은 출발점이기보다는 종착점으로서, 취업과 경제적 안정 등이 모두 성취된 다음의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분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험적으로 주거독립은 주로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거독립이 이처럼 성인이행 과정의 끝에 위치하고, 그것도 결혼 이행의 일부가 되는 것은 청년들의 주거자립을 지연시키고 의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청년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소득을 벌고 있더라도 동거하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것이상으로 가구 경제에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는 소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가 부모의 소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소득 능력은 갖추었으나 주거자립할 자산은 갖추지 못한 청년이 개인소득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즉 의존하기 위해 동거를 하므로 이러한 동거 상태를 청년들은 ‘의존’으로 이해하고, 부모들은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동거 지원은 성인자녀의 주거자립 자원을 마련하는 책임이 사적인 가족에 있고, 특히 부모에게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자녀가 주거를 분리할 때, 부모들은 재정적 자원을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지원에 따르는 도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주거자립에 대한 부모 지원 방식은 개별 가구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 대규모 자산 증여를 실천할 수 있는 부모 참여자들은 주택 이외의 여유 자산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자산가들이었다. 이와 달리 거주하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임금소득자 부모들은 자녀의 주거 자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계획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에 임금소득자 부모들은 자녀의 긴 성인이행기(불완전한 성인기)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교육비와 용돈을 지원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아동에 대한 부양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결혼 전까지 지속함으로써, 성인자녀가 부모의 지원 없이 주거분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동거를 통한 지원’은 가장 경제적이고 부담이 덜한 지

원 형태이며, 임금소득의 공유와 개인적 소비의 제한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지원이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긴 부모-성인자녀 동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 지원에 대한 이상과 성인자녀의 부족한 경제적 능력 사이의 타협적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생애과정 이행이 이처럼 부모의 지원 여부와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이행기를 개인 생애과정의 측면에서만만 아니라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청년세대가 점차 자립 능력을 갖추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는 장년세대가 노년으로 이행하면서 점차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잃어가는 시기와 맞붙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성인자녀 지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세대는 노후의 소득 부족과 돌봄 필요의 문제를 자녀세대에 대한 의존을 통해 해결하기를 꺼린다. 노후 부양에 대한 세대 분리적 태도(개인주의적 대응)가 역으로 부모세대의 성인자녀 지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산이 충분치 않은 임금소득자 부모세대는 노년기 부모의 자립이라는 과업과 자녀의 성인이행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자립이 자녀의 성인이행보다 더 우선하는 과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지원 욕구와 책임의식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생활자원 확보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라는 더 중요한 요구에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부모세대들이 자녀의 성인이행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성인자녀의 복지에 대한 이타주의적인 기여 동기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화적 가치에 기대어 가족 세대관계가 성인이행에 대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부모세대가 높은 수준의 자녀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과정은 최종적으로 개인 단위의 이행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역시 세대 간 관계가 의존적인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기에 자립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개인이 이루어낸 성취의 표현이다. 단지 과도기적으로 자립을 지연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와 함의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와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성인이행기에 직면하는 생애과정 위험을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인식하고 흡수 또는 대응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장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9~2022년 통합)를 활용하여 성인이행기 청년의 부모 동거 및 사적이전과 소득·빈곤 실태를 살펴보았다. 19~34세 청년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36.2%이고, 비취업 비율은 49.9%로, 성인이행기 청년의 절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취업 소득 기준 빈곤율이 60.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34세 청년의 73%가 부모와 동거하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동거로 간주), 부모와의 동거와 소득 공유가 청년의 빈곤위험을 48.8%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부모 포함 균등화 가구소득과 부모 제외 균등화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를 통해 계산). 그 결과 청년의 약 90%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고 성인이행기를 경과한다. 반면 전체 청년의 10%를 차지하는 빈곤 청년은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행기 초기의 사적이전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전체의 연령별 패턴을 보면, 20대 후반 이후에는 점차 상용직 취업 비율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동거 비율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부모 동거 비율이 낮은 상용직 취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

에서 19~34세 한국 청년은 그 절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낮은 경제활동 집단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0%의 청년이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득활동을 하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성인이행기에서 사적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개별 청년 자녀세대와 장년 부모세대의 '성인이행기' 경험과 대응 방식에 관해 질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3장에서는 성인이행기를 대학준비-대학교육-구직-취업의 시간적 흐름과 가족의 대응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도화 정도가 강한 중·고교 대학 준비기와 달리, 대학교육 기간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하기까지의 초기 성인기는 요구되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 자원의 부담 방식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화된 생애단계이다. 개인과 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능동성을 발휘하지만, 경제적 제약, 부모-자녀 관계의 질, 가용 지식과 정보의 질 등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자산과 노동소득을 자녀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위험 대응 방법이자 지원 형태이다. 부모세대는 이를 의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청년 자녀세대는 그 정도가 약했다. 의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양측 모두에서 의존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에 의존하는 상태가 '부모 의존 극복'(성인이행의 과제)의 실패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교육, 훈련, 시험준비 등 자녀의 자기계발과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일 때, 이러한 지원-의존 관계는 가족을 단위로 수행되는 정상적인 투자로 해석되었다. 즉 성인이행기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세대 간 지원과 의존의 지속은 성인이 되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모에

대한 의존 극복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안정된 삶과 사회경제적 성취라는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제4장은 주거자립 과정에 대한 부모의 지원/비지원 경험과 청년 및 청년 세대 각각의 태도를 다루었다. 청년이 점차 재정적 자립 능력을 갖추어감에 따라 부모 집을 떠날 가능성은 커지지만, 일반적인 주거분리 시점이 여전히 '결혼'에 맞추어질 경우, 자립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상태에서 부모 동거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기적인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녀가 부모와 계속해서 동거하는 것은 단지 관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립을 위한 준비의 수단으로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가 부모-성인자녀 동거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동거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자녀가 부모와 분리된 독립된 주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는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사적 자원의 한계를 보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은퇴기는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만들며, 가족에 의존하는 방식의 성인이행기 대응은 최종적인 주거독립 국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2. 이론적 함의

지난 20세기 후반 이래로 가족 내 세대 관계는 점차 세대 간 자립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노인세대의 동거와 부양은 점차 사적인 세대 관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책임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와 비교하여, 성인이행기는 시간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의존의 종류와 강도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인이행기의 세대관계적 특성이 여타 생애단계와 어떻게 다른가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지 의존과 자립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성인이행기 또는 청년기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세대관계의 특성은 부양 또는 자원이전의 방향을 토대로 개념화되었으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길어진 성인이행기를 규정하였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세대간의 지원/의존관계와 나란히,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성인이행기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교육부터 시작하여 취업준비, 결혼자금 등에 이르는 성인이행 자원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은 자녀의 의존성이라는 문제로만 이해될 수 없다. 부모 지원에 대한 의존은 청년 자녀세대에게 수치심을 동반하였고 부모세대에게는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녀의 성취 실패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고 자립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부모 동거 특성을 의존 현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기의 장기화를 전통적인 세대 간 지원과 의존의 의무와 당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거나 의존적인 아동기와 다를바 없이 의존적이고 순응적이라는 의미에서 '아동화'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고교 졸업에서 시작하여 안정된 직업 확보(그에 따른 가족형성)에 이르는 여정은 제도적 구심점과 안정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화된 생애단계이다. 형식적으로 대학제도, 직업훈련제도, 고용 관련 제도와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제도들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에 대한 안정된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은 다양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모순적인 생애단계로서 성인이행기(또는 청년기)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사회적 실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새로운 생애단계는 부모-성인자녀 사이의 '투자적 의존' 관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생애에서 성인이행기는 이제 필수적인 생애단계로 부상하였다. 성장과 성숙을 통한 자율적인 성인 되기라는 목표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 종속될수록, 성인이행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방식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능력과 자격을 획득하는 일에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세대 간의 자립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적 가족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도록 만든다.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1. 정책적 함의

이미 20세기 말부터 서구에서는 생애과정의 탈정형화, 특히 성인이행기의 탈정형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왔다(Giddens, 1994; Esping-Anderson, 1999; 2002; Settersten, 2004). 변화한 가족형태와 생애과정 특성에 주목한 접근들은 생애과정의 탈정형화(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제, 인구, 문화 변동)를 근거로, 표준적 생애과정에 준거를 둔 전통적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국의 가족 역시 변화하는 환경과 욕구에 대응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역할을 확대하고, 비전형적 생애과정에 대해 늘어난 허용

성을 활용하여 경쟁과 투자를 적극 수용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대응 방식은 자녀세대의 의존을 장기화하고 부모세대의 부담과 복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누적되는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생애과정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모 지원이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맥락을 강조하였다. 단순히 일자리 부족문제나 빈곤문제로 청년문제 또는 이행과정의 문제를 한정할 수 없다.

청년정책은 이행기 지원정책으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연령 범위의 청년대상의 정책은 상위의 이행기 지원정책 아래에 놓여야 한다. 무엇보다 성인이행기라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제도화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대학교육, 진로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일자리정책 등 일련의 정책프로그램을 이러한 이행기 관점에서 재배열하고 각 정책들의 정책효과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생애과정 위험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작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성인이행과정이 탈제도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위험 발생 구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흡수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위험회피의 방식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위험감수(투자로서의 부모지원) 측면을 구분하였으며, 후자의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대응방식은 위험발생구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특정한 인식과 기대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범위의 공유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험대응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청년정책 계획을 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성인이행기에 대한 상이한 부모 지원이 실제로 자녀의 성인이행이라는 객관적 성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대학 진학 시기부터, 입직, 이직, 주거변동 등을 포괄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성인이행 패턴의 여러 유형과 사적 가족의 지원과 의존 유형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사적 가족 지원의 사회적 결과를 더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이행기 위협의 개인화는 개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녀세대의 성인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만듦으로써, 성인이행의 계층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행기에 대한 사적 지원이 초래하는 불평등한 결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성인이행기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는 주로 질적 자료에 의존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양적 조사를 통해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지원 형태와 부모의 특성 및 자녀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고병진, 김리나. (2018). 규범으로서 독립의 실천과 갈등: 서울 거주 20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1), 69-100.
-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 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 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8).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파주: 집문당.
- 김혜은, 정소현, 이강민, 황윤서, 이현정. (2021). 부모의존동거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의 경험과 인식.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 김진영, 이현정. (2020). 청년의 독립주거 마련과 거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17-1034.
- 남재욱. (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 노중기. (2023).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글로컬 대학. 교수신문.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에서 2023.12.12. 인출
- 박경숙, 김미선. (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221-253.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주영, 유소이. (2018). 부모의존 독신성인 자녀를 둔 비은퇴자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평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57-77.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샐다나, 조니. (2012). 질적연구자를 위한 부호화 지침서. 서울: 신정.
-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조명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에스핑-앤더슨, G. (2006).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박시종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봉조. (2022). 상품화·금융화된 주택시장에서의 의존적 독립과 주거선택전략: 서울 거주 30대 청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80(0), 248-288.
- 이상직. (2022). 한국 청년의 성인기 역할 구조 변화, 1998-2018: 젠더와 계층 차이. 한국인구학, 45(1), 33-72.
- 이상직, 민보경, 이채정, 김동규, 김미선, ...조소연. (2022). 전환기 청년의 미래 -4장. 성인 이행 체제 유형. 서울: 국회 미래연구원.
- 이순미. (2017). 노동경력과 가족경로 분석을 통해 본 청년기 연장(Long Youth)의 젠더 차이. 한국여성학, 33(2), 181-244.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서울, 세종: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정. (2019).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해 유형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인구학, 42(4), 27-63.
- 장경섭. (2018). 가족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사회재생산 위기의 미시정치경제적 해석. 사회와 이론, 32, 189-218.
- 최선영, 오신휘, 박종서. (2020).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2022).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2-06, 77-92.
-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남궁은하, 이다미, 이원진, 최인선. (2022). 사회보장제도 연령주의 사례 발굴. 서울,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22. 12. 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2053 에서 2023.11.30. 인출.
-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21). 2021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선유, 이원진, 하은솔. (2023, 발간 예정).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 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 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quilino, W. S. (2005).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 economic support of adult children over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6, 143-167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M. Ritter (trans.). Sage Publication.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e, S.(2019). *Qualitative Data Analysis with ATLAS.ti*. London: SAGE Publications.
- Fry, R. (2016). For first time in modern era, living with parents edges out other living arrangements for 18-34 years old. Pew Research Center.
- Furstenberg, F.F., R.G. Rumbaut, R.A. Settersten Jr.(2004).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Settersten, Jr. R.A., Furstenberg, F.F., R.G. Rumbaut, R.A. (ed.).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25.

- Giddens, A.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Glaser, B.,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Goldscheider, F.K. (1997). Recent Changes in U. S. Young Adult Living Arrang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8:708-724.
- Goldscheider, F. K., Thornton, A., & Yang, L. S. (2001). Helping out the kids: Expectations abou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727-740.
- Iacovou, M. (2002). Regional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 40-69.
- Kaplan, G. (2012). Moving back home: Insurance against labor market risk.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0(3), 446-512.
- Kerckhoff, A.C. (1996). Building Conceptual and Empirical Bridges between Studies of Educational and Labor Force Careers. A. C. Kerckhoff ed.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Westview Press. pp. 37-56.
- Ku, Inhoe, Lee, Wonjin, & Lee, Seoyun. (2021). Declining family support, changing income sources, and older people poverty: Lessons from South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7(4), 965-996.
- Milan, A. (2016). "Diversity of young adults living with their parents." *Insights on Canadian Society*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75-006-X), June, 1-14.
- Mulder, C. H., & Clark, W. A. (2000). Leaving home and leaving the stat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6, 423-437

- O'Rand, A. M. (2003). The Future of the Life Course: Late Modernity and Life Course Risks. In J. T. Mortimer &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Springer, pp. 693-701.
- Mazurik, K., Knudson, S., & Tanaka, Y. (2020). Stuck in the Nest?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oresidenc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56(6), 491-512.
- Morse, J. M. & Field, P.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SAGE Publications, London.
- Renn, O. (2008). Concepts of Risk: An Interdisciplinary Review. *CAIA*, 17(1), 50-66.
- Rosenthal, G. (2018). *Interpretive Social Research: An Introduction*. Göttingen: Universitätverlag Göttingen.
- Settersten Jr., R. (2004). Social Polic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ettersten, Jr. R.A., Furstenberg, F.F., R.G. Rumbaut, R.A. (ed.).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534-560.
- Swartz, T. T., Kim, M., Uno, M., Mortimer, J., & O'Brien, K. B. (2011). Safety Nets and Scaffolds: Parental Suppor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2), 414-429.
- Zinn, J. O. (2010). Risk as discours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Critical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across disciplines*, 4(2), 106-124.
- Zinn, J. O. (2013). Risk, Social Inclusion and the Life Course: Review of Developments in Policy and Research. *Social Policy and Society*, 12(2), 319-333.
- van Stee, E. G. (2022a). Parenting young adults across social class: A review and synthesis. *Sociology Compass*, 16(9), 1-16.
- van Stee, E. G. (2022b). Privileged dependence, precarious autonomy:

Parent/young adult relationships through the lens of COVID-19.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5(1), 215-232.



[부록 1] 부표

〈부표 1〉 연령별 청년의 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전 체	(a) 개인취업소득	26	256	461	854	1442	1960	2441	2665	2849	3216	1579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26	258	467	883	1506	2156	2856	3453	3943	4458	1888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26	258	467	878	1484	2099	2707	3126	3405	3700	1757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4547	4648	4367	4372	4390	4122	4029	3788	3713	3811	4190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4050	4149	4063	4182	4336	4184	4125	3925	3810	3870	4102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4305	4378	4294	4444	4616	4486	4378	4136	3992	4066	4346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4200	4272	4188	4347	4525	4403	4289	4049	3902	3970	4253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695	3765	3755	3921	4078	4017	3965	3788	3658	3666	3871	
	(b-a) 배우자 효과	0	2	6	30	64	196	415	788	1095	1242	310	
	(c-b) 자녀 효과	0	0	-1	-6	-22	-57	-148	-327	-539	-758	-131	
	(d-c) 부모 효과	4521	4390	3900	3494	2905	2023	1322	661	309	110	2432	
	(e-d) 기타 가구원 효과	-496	-498	-304	-191	-54	62	96	137	97	60	-88	
	(f-e) 재산소득 효과	254	229	230	263	280	301	253	211	182	196	245	
	(g-f) 사적이전 효과	-105	-106	-106	-97	-91	-83	-89	-87	-90	-96	-94	
	(h-g) 공적이전 효과	-505	-507	-433	-426	-447	-385	-324	-261	-245	-305	-382	
	빈곤	(a) 개인취업소득	30	164	223	388	545	632	809	768	823	872	512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30	176	232	396	601	750	954	1023	1097	1172	613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30	174	230	394	570	707	864	868	912	931	554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1058	1060	989	1010	917	916	1010	931	979	983	980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957	955	945	984	932	953	1035	951	981	980	965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1008	996	991	1029	987	1023	1087	985	1027	1022	1013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971	969	981	1028	997	994	1046	959	981	974	993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012	1059	1060	1079	1048	1037	1077	1081	1087	1038	1066	
(b-a) 배우자 효과		0	12	9	8	56	117	146	255	274	300	101	
(c-b) 자녀 효과		0	-2	-2	-2	-31	-42	-90	-155	-185	-241	-59	
(d-c) 부모 효과		1028	886	759	616	346	208	146	63	67	52	426	
(e-d) 기타 가구원 효과		-101	-105	-44	-25	15	37	25	20	2	-3	-15	
(f-e) 재산소득 효과		51	41	47	44	54	70	52	34	46	42	48	
(g-f) 사적이전 효과		-37	-27	-10	0	11	-28	-41	-26	-46	-48	-20	
(h-g) 공적이전 효과		41	90	79	50	51	43	31	122	106	63	73	

178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비 빈 곤	(a) 개인취업소득	26	267	489	896	1517	2078	2569	2832	3063	3466	1682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26	268	495	928	1582	2282	3005	3668	4244	4808	2012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26	268	495	922	1561	2223	2852	3326	3668	3995	1874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4993	5087	4765	4678	4680	4408	4266	4040	4002	4112	4501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4446	4540	4431	4473	4620	4472	4368	4187	4109	4178	4406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4726	4792	4683	4755	4919	4794	4636	4414	4305	4390	4670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4612	4676	4566	4649	4820	4706	4543	4322	4211	4290	4569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4038	4097	4073	4180	4331	4283	4192	4027	3929	3946	4143
	(b-a) 배우자 효과	0	1	6	32	65	203	436	836	1181	1343	330
	(c-b) 자녀 효과	0	0	-1	-6	-21	-58	-153	-342	-576	-813	-138
	(d-c) 부모 효과	4967	4819	4270	3757	3119	2185	1414	714	335	116	2627
	(e-d) 기타 가구원 효과	-547	-547	-334	-206	-60	64	102	147	107	66	-95
	(f-e) 재산소득 효과	281	252	252	282	299	322	269	227	196	212	264
	(g-f) 사적이전 효과	-114	-116	-117	-106	-100	-88	-93	-92	-94	-101	-101
	(h-g) 공적이전 효과	-575	-580	-493	-469	-489	-424	-351	-294	-282	-344	-426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 연령별 청년의 소득 상대평균

(단위: %, %포인트)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전체	(a) 개인취업소득	1	9	15	28	48	65	81	88	94	107	52.3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	9	16	29	50	71	95	114	131	148	62.6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	9	16	29	49	70	90	104	113	123	58.2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152	155	145	145	146	137	133	125	123	127	139.1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35	138	135	139	144	139	137	130	126	129	136.1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143	146	143	148	153	149	145	137	132	135	144.2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140	142	139	145	150	146	142	134	129	132	141.1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23	125	125	130	135	133	131	125	121	122	128.4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7	14	26	36	41	10.3	
	(c-b) 자녀 효과	0	0	0	0	-1	-2	-5	-11	-18	-25	-4.4	
	(d-c) 부모 효과	151	146	130	116	97	67	44	22	10	4	80.8	
	(e-d) 기타 가구원 효과	-17	-17	-10	-6	-2	2	3	5	3	2	-2.9	
	(f-e) 재산소득 효과	8	8	8	9	9	10	8	7	6	7	8.1	
	(g-f) 사적이전 효과	-4	-4	-4	-3	-3	-3	-3	-3	-3	-3	-3.1	
	(h-g) 공적이전 효과	-17	-17	-14	-14	-15	-13	-11	-9	-8	-10	-12.7	
	빈곤	(a) 개인취업소득	1	6	7	13	18	21	27	25	27	29	17.0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	6	8	13	20	25	32	34	36	39	20.3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	6	8	13	19	23	29	29	30	31	18.4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36	35	33	34	30	30	33	31	33	33	32.6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32	32	31	33	31	32	34	32	33	33	32.1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34	33	33	34	33	34	36	33	34	34	33.7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33	32	33	34	33	33	35	32	33	33	33.0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4	35	35	36	35	34	36	36	36	35	35.4	
(b-a) 배우자 효과		0	0	0	0	2	4	5	9	9	10	3.4	
(c-b) 자녀 효과		0	0	0	0	-1	-1	-3	-5	-6	-8	-2.0	
(d-c) 부모 효과		35	30	25	21	12	7	5	2	2	2	14.2	
(e-d) 기타 가구원 효과		-3	-4	-1	-1	1	1	1	1	0	0	-0.5	
(f-e) 재산소득 효과		2	1	2	1	2	2	2	1	2	1	1.6	
(g-f) 사적이전 효과		-1	-1	0	0	0	-1	-1	-1	-2	-2	-0.7	
(h-g) 공적이전 효과		1	3	3	2	2	1	1	4	3	2	2.4	

180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비 빈 곤	(a) 개인취업소득	1	9	16	30	50	69	85	94	101	115	55.7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	9	16	31	52	76	100	122	141	160	66.7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	9	16	31	52	74	94	110	122	133	62.1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166	169	158	156	156	146	141	134	133	137	149.4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48	151	147	149	154	148	145	139	136	139	146.2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157	159	155	158	164	159	153	146	143	146	155.0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154	156	152	155	160	156	150	143	139	142	151.6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34	136	135	139	144	142	139	133	130	131	137.4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7	14	28	39	45	11.0
	(c-b) 자녀 효과	0	0	0	0	-1	-2	-5	-11	-19	-27	-4.6
	(d-c) 부모 효과	165	160	142	125	104	73	47	24	11	4	87.3
	(e-d) 기타 가구원 효과	-18	-18	-11	-7	-2	2	3	5	4	2	-3.2
	(f-e) 재산소득 효과	9	8	8	9	10	11	9	7	6	7	8.7
	(g-f) 사적이전 효과	-4	-4	-4	-4	-3	-3	-3	-3	-3	-3	-3.4
(h-g) 공적이전 효과	-19	-19	-16	-16	-16	-14	-12	-10	-9	-11	-14.2	

주: 상대평균은 소득을 균등화 가치분소득 증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3〉 연령별 청년의 빈곤율

(단위: %, %포인트)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전 체	(a) 개인취업소득	100	95	90	77	59	46	36	35	36	33	60.2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00	95	90	76	57	41	28	20	16	12	54.0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00	95	90	76	57	42	29	22	18	15	54.9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14	13	14	13	13	13	11	12	12	12	12.6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5	14	13	11	10	11	10	10	12	11	11.4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14	13	12	10	9	10	8	9	11	10	10.1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14	13	12	10	9	10	9	9	11	11	10.2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1	11	11	8	8	8	7	8	10	10	8.8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5	-8	-15	-21	-21	-6.3	
	(c-b) 자녀 효과	0	0	0	0	0	1	1	2	3	3	1.0	
	(d-c) 부모 효과	-86	-83	-76	-64	-45	-29	-18	-10	-6	-3	-42.3	
	(e-d) 기타 가구원 효과	1	1	-1	-1	-2	-3	-1	-2	-1	-1	-1.2	
	(f-e) 재산소득 효과	-1	-1	-2	-2	-1	-1	-1	-1	-1	-1	-1.3	
	(g-f) 사적이전 효과	0	0	0	0	0	0	0	0	0	1	0.0	
	(h-g) 공적이전 효과	-2	-2	-1	-2	-1	-1	-1	-1	-1	-1	-1.3	
	빈 곤	(a) 개인취업소득	100	99	99	95	92	87	81	81	77	77	89.8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00	98	99	95	89	82	75	73	68	67	85.9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00	98	99	95	92	88	84	89	87	87	92.2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75	77	78	80	87	83	82	88	87	88	82.4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88	89	86	84	89	84	83	89	87	88	86.6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86	86	83	82	86	80	82	88	85	86	84.0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90	90	86	86	88	84	89	91	89	92	88.0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b-a) 배우자 효과		0	-1	0	0	-2	-5	-6	-9	-10	-10	-3.8	
(c-b) 자녀 효과		0	0	0	0	3	6	9	17	19	20	6.2	
(d-c) 부모 효과		-25	-21	-21	-15	-5	-5	-2	-1	0	1	-9.8	
(e-d) 기타 가구원 효과		12	12	8	4	2	1	1	1	0	0	4.2	
(f-e) 재산소득 효과		-2	-3	-3	-2	-3	-4	-1	-2	-3	-2	-2.6	
(g-f) 사적이전 효과		4	4	3	4	1	5	7	4	5	6	4.0	
(h-g) 공적이전 효과		10	10	14	14	12	16	11	9	11	8	12.0	

182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비 빈 곤	(a) 개인취업소득	100	95	89	76	56	42	33	31	32	28	57.4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100	95	89	74	54	37	24	15	10	6	50.9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100	95	89	75	54	38	25	16	11	7	51.3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6	5	7	6	6	7	5	5	4	4	5.9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5	5	5	5	4	4	4	3	4	3	4.2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4	4	3	3	3	3	3	2	3	2	3.0
	(g)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4	3	3	3	2	3	2	2	3	2	2.6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	0	0	0	0	0	0	0	0	0	0.0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5	-9	-16	-22	-22	-6.5
	(c-b) 자녀 효과	0	0	0	0	0	1	1	1	1	1	0.4
	(d-c) 부모 효과	-94	-90	-82	-68	-48	-31	-19	-11	-7	-3	-45.5
	(e-d) 기타 가구원 효과	0	0	-2	-2	-3	-3	-2	-2	-1	-1	-1.7
	(f-e) 재산소득 효과	-1	-1	-1	-2	-1	-1	-1	-1	-1	-1	-1.2
	(g-f) 사적이전 효과	-1	-1	0	0	-1	0	0	0	0	0	-0.3
	(h-g) 공적이전 효과	-4	-3	-3	-3	-2	-3	-2	-2	-3	-2	-2.6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4〉 연령별 청년의 빈곤갭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전 체	(a) 개인취업소득	98	86	76	60	44	33	25	25	26	25	47.6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98	86	76	60	42	29	18	12	9	7	42.5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98	86	76	60	42	29	19	13	10	8	42.8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7	6	7	5	6	6	5	5	5	5	5.7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6	6	6	4	4	5	4	4	5	5	4.7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6	5	5	4	4	4	3	3	4	4	4.1	
	(g) 균등화 가구시정소득	5	5	4	4	3	4	3	3	4	4	3.9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4	3	3	2	2	3	2	2	3	3	2.6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4	-7	-13	-16	-17	-5.1	
	(c-b) 자녀 효과	0	0	0	0	0	0	0	1	1	1	0.3	
	(d-c) 부모 효과	-91	-80	-69	-54	-36	-22	-14	-8	-5	-3	-37.0	
	(e-d) 기타 가구원 효과	-1	0	-1	-1	-1	-2	-1	-1	0	0	-1.0	
	(f-e) 재산소득 효과	-1	-1	-1	-1	-1	-1	-1	-1	-1	-1	-0.7	
	(g-f) 사적이전 효과	0	0	0	0	0	0	0	0	0	0	-0.2	
	(h-g) 공적이전 효과	-2	-2	-1	-1	-1	-1	-1	-1	-1	-1	-1.3	
	빈 곤	(a) 개인취업소득	98	89	85	76	67	61	55	56	54	55	69.7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98	89	85	75	63	54	44	38	36	38	63.0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98	89	85	76	65	56	48	44	43	45	65.2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40	37	39	38	44	42	40	40	38	41	39.6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42	40	40	38	42	40	38	38	38	41	39.3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40	38	37	36	39	36	36	36	36	39	36.8	
(g) 균등화 가구시정소득		40	39	37	35	37	36	35	37	36	41	36.6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3	30	29	28	31	31	29	28	28	31	29.3	
(b-a) 배우자 효과		0	-1	-1	-1	-3	-7	-11	-18	-18	-17	-6.7	
(c-b) 자녀 효과		0	0	0	0	1	2	3	6	7	7	2.2	
(d-c) 부모 효과		-58	-52	-46	-37	-21	-13	-8	-4	-4	-4	-25.5	
(e-d) 기타 가구원 효과		3	3	1	0	-2	-3	-2	-2	0	0	-0.3	
(f-e) 재산소득 효과		-3	-2	-2	-2	-3	-3	-3	-2	-3	-2	-2.5	
(g-f) 사적이전 효과		0	0	0	-1	-2	0	-1	1	0	1	-0.2	
(h-g) 공적이전 효과		-7	-9	-7	-7	-7	-5	-6	-9	-8	-10	-7.3	

184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구분	17·18세	19·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32세	33·34세	35·36세	19~34세
(a) 개인취업소득	98	86	75	59	42	30	23	22	23	21	45.5
(b) 균등화 본인·배우자 취업소득	98	86	75	58	40	26	16	10	7	4	40.5
(c)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 취업소득	98	86	75	58	40	26	16	10	7	4	40.6
(d) 균등화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취업소득	3	2	3	3	3	3	2	2	2	1	2.5
(e)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2	2	2	1	1	2	1	1	1	1	1.4
(f) 균등화 가구일차소득	1	1	1	1	1	1	1	1	1	1	0.9
(g) 균등화 가구시정소득	1	1	1	1	1	1	1	0	1	0	0.7
(h)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	0	0	0	0	0	0	0	0	0	0.0
비 빈 곤											
(b-a) 배우자 효과	0	0	0	-1	-2	-4	-7	-12	-16	-18	-5.0
(c-b) 자녀 효과	0	0	0	0	0	0	0	0	0	0	0.1
(d-c) 부모 효과	-96	-83	-72	-56	-38	-23	-14	-8	-5	-3	-38.1
(e-d) 기타 가구원 효과	-1	-1	-1	-1	-1	-2	-1	-1	0	0	-1.1
(f-e) 재산소득 효과	0	0	-1	-1	0	-1	0	0	0	0	-0.5
(g-f) 사적이전 효과	0	0	0	0	0	0	0	0	0	0	-0.2
(h-g) 공적이전 효과	-1	-1	-1	-1	-1	-1	-1	0	-1	0	-0.7

주: 소득 정의는 <표 2-4>와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록 2] 일대일 심층면접 질문 목록

1. 청년세대

가. 자기소개

1. 안녕하세요. ○○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본인과 가족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2.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3.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 부모 동거 자녀의 일상생활

4. 용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나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나요?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 부담 현황)
5.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비일상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6.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나요? 얼마나, 언제부터 부담하기 시작하였나요?
7. 청소, 빨래, 음식준비,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가족이 어떻게 분담하나요? ○○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8.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9. 대학 진학(또는 취업)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대학생 또는 성인이 된 이후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는지 확인)

10. 취업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인가요? (부모 동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

다. 진로 및 전망

11. 현재 ○○님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혹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2. 전공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취업경로가 있나요?
13. 대학교육(강의와 학점, 졸업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취업을 위해 (남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4. ○○님은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투자)을 할 의향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추가적인 노력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휴학, 졸업 유예,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을 투여할 계획이 있나요?
16. 부모님의 지원과 대학이나 정부의 지원 중 어떤 부분을 기대하나요?
17. 진로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요? 진로를 설정하게 된 계기, 자기에 대한 인식(자신의 성향, 적성, 꿈), 친구, 선배, 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언 등이 있었나요?

라. 부모-자녀 관계

18. 부모님은 평소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19.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가요?
20. 부모님은 대학생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네 일은 네가 스스로 하라고 말하시나요?

21. 부모님의 지원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만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22. 부모님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요?
23.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 생애과정 전반

24. ○○님의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25. 현재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기, 선택, 사건은 무엇인가요?
26. 어린 시절 부모님, 형제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27. 학업 과정에서 받은 부모님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
28. 성인기 이후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혹은 지원이 필요했는데 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29. 대학생활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0. 취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 성인 됨-의존과 독립

31.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2. 부모와 자녀는 언제까지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할까요?
33.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4. 본인이 성인(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5. 성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 결혼 지원, 손자녀 돌봄 기대

- 36. 형제 혹은 본인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있나요? 혹은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37. 결혼 혹은 독립할 때, 부모님이 주택 마련 등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 38. 결혼 후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실 계획인가요? (출산 휴가/육아휴직 사용, 양가 부모님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

아. 부모 노후준비-부모 부양

- 39. 현재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 40. 부모님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 41. 부모님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부모님의 노후준비와, 자녀(참여자)를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배분하시나요?
- 42.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자녀로서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시나요(이상),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자. 사회적 지원 요구

- 43. 성인이행기에 사회와 정부가 청년과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2. 부모세대

가. 자기소개, 여는 질문

1. 안녕하세요. ○○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본인과 가족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2.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3. 자녀가 현재 혹은 앞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부모 동거 자녀의 일상생활

4. 자녀는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선생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나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나요?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 부담 현황)
5. 자녀가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비일상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6. 자녀가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나요? 얼마나, 언제부터 부담하기 시작하였나요?
7. 청소, 빨래, 음식준비,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가족이 어떻게 분담하나요? ○○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8. 자녀는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9. 자녀가 대학 진학(또는 취업)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대학생 또는 성인이 된 이후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는지 확인)
10. 자녀가 취업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녀의 부모 동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

다. 자녀 양육 과정

11.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현재 상황에서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12. 자녀에게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였나요?
1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성별, 학업성적, 특기와 적성에서 자녀 사이에 차이가 있었나요? 그에 따라 지원 수준이나 내용이 달랐나요?
14. 자녀를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시기에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의 지원은 보조적인 것이고, 자녀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길러야 한다.)

라. 성인기 자녀 지원 내용

15. 자녀가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교우관계, 연애 관계, 사회생활, 정신적 어려움)
16. 자녀와는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나요? (여가시간, 대화, 가족식사 등)
17. 현재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18. 자녀와 미래(독립,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19. 자녀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나요?

마. 부모의 역할

20.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1. 자녀를 양육하시거나 지원하실 때, 부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시나요?

22. 자녀를 언제까지 지원하셨나요?
23.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4. 실제로 지원을 줄이고 자녀의 독립을 요구한 경험이 있나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5. 현재 자녀를 지원하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가요?
26.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했어야 했거나,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있었나요?

바. 결혼 및 손자녀 돌봄 지원

27.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어떤 지원을 하셨나요?
(아들/딸 차이, 연령, 직업별 차이)
28. (기혼 자녀가 없는 경우)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들/딸 차이, 연령, 직업별 차이)
29.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0. 선생님 본인이 결혼하실 때 주택 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31. 부모님의 지원(혹은 지원 없음은) 이후 결혼생활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셨나요? 어떠셨나요?
32. 과거와 현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혹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3. 주위 친구분들이 자녀의 주거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4. 기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34. 손자녀를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손자녀인가요, 외손자녀인가요?
- 35. 자녀의 직장에서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사용이 어떤지 자녀에게 들은 내용 있으신지요?
- 36. 손자녀를 돌보시거나 돌보시지 않으려는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사. 노후준비 및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 37. 선생님 본인/부부의 노후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 고령 일자리, 임대소득, 자녀로부터의 지원)
- 38.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본인 노후준비와 자녀 지원으로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셨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실 건가요?
- 39. 노후에 자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기대하시나요?

아. 사회적 지원 요구

- 40. 성인이행기에 사회와 정부가 청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